

어사매

飛

新

鳥

(제13호)



황성문화원

橫城郡民憲章

우리 橫城은 우람한 泰岐山의 氣象과 悠悠히 흐르는 蟾江의 精氣를
받은 고장으로 豐饒를 謳歌하며 人情을 나누면서 子孫萬代가 살아갈
永遠한 삶의 터전이다.

이땅에 사는 우리는 先烈의 드높은 抗日 救國精神과 愛鄉心을 이어
받은 자랑스러운 郡民으로서 創意와 叡智를 한데 모아 살기좋은 새 橫
城 建設의 主人으로 身命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첫 째 : 우리 郡民은 항상 反省하고 부지런히 배워 참되고
바른 사람이 된다.

둘 째 : 우리 郡民은 서로 믿고 사랑하며 英才를 키우는 복
된 家庭을 이룬다.

셋 째 : 우리 郡民은 어른을 尊敬하고 이웃을 아끼며 웃음
이 넘치는 마을을 이룬다.

넷 째 : 우리 郡民은 地域特性을 살리고 科學的 研究와 實
踐으로 豐饒로운 내고장을 만든다.

다섯째 : 우리 郡民은 正直, 秩序, 創造, 協同의 生活化로
맑고 밝은 社會를 이룬다.

여섯째 : 우리 郡民은 崇高한 3·1精神을 이어받아 나라에
忠誠하는 國民이 된다.

형성의 상징



군 기

군민의 평화와 맑은 정기를 상징하며 장엄한 군은 의지를 말한다. 중앙의 반달형은 옥토와 맑은 자원이 성장과 자원의 개발로 이어져 무궁한 번영을 상징한다.



군의새/백로

군을 상징하는 군조는 해오라기과에 속하며 천연기념물 248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은백의 눈부신 자태는 군민의 순결함을 뜻하며 서원면 압곡리일대에 무리지어 여름을 난다.



군의꽃/함박꽃

녹색의 넓은 잎은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장을 말하며 탐스럽고 화려한 꽃은 군민의 높은 기상과 밝은 미래를 뜻한다. 강한 번식력은 군민의 강인한 정신력을 나타낸다.



군의나무/느티나무

군목의 느티나무는 나무의 수명이 길뿐만 아니라 우람하며 재질도 좋다. 한여름에 넓은 그림자를 드리워 농부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느티나무는 무한히 성장하는 형성군을 뜻한다.

형성군 노래

방 직 현 작사
노 명 석 작곡



1. 태 기 - 산 뻔 은 줄 기 덕 고 - 의 정 기 모 아
2. 운 암 - 정 청 란 아 래 형 성 - 교 빛 겨 있 고
3. 교 통 - 의 심 장 부 로 사 방 뻔 은 동 맥 의 길



앞 들 - 의 넓 은 옥 토 부 강 을 자 랑 하 고
태 풍 - 루 반 송 터 는 옛 일 을 아 뵈 는 듯
경 향 으 로 사 통 오 달 거 마 가 즐 비 하 고



동 서 로 - 구 비 친 강 꾸 준 히 - 흐 르 는 곳
낙 낙 장 송 넓 은 숲 에 흥 익 정 신 가 득 한 곳
전 통 의 - 산 업 정 신 부 흥 을 - 꾀 하 는 곳



아 름 다 운 이 - 강 산 에 빛 나 는 우 리 형 성

發 刊 辭



심 진 황
황성문화원 원장

郷土誌인 「어사매 13호」의 발간을 군민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文化家族여러분 그리고 地域文化暢達과 文化事業을 위해 聲援을 보내주신 先後輩 諸位 여러분께 심심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7년은 UN이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의 해"로 매우 뜻깊은 한해 였습니다.
長久한 시간을 이어온 우리의 傳統文化가 국제화, 세계화의 거센 물결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조상의 찬란한 文化遺産을 繼承하고 保存, 發展시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所望이라 하겠습니다.

물밀듯 밀려오는 외래문화속에 우리문화를 가꾸고 지키는 郷土史의 研究와 發掘 그리고 관내 文學同好인의 작품발표등 「어사매」는 지역문화의 求心点이 되기 위한 郷土誌가 되기 위해서 가일층 勞力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고장의 대표적 문예지인 「어사매」의 壯途를 지켜보아주시고 이번 13호가 군민여러분의 文化慾求를 充足시키는데 일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귀중한 玉稿를 보내주신 文學人 그리고 出郷人士님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關心과 愛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조 태 진
황 성 군 수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발전을 선도해 온 문화 예술인들의 땀과 정성으로 엮은 어사매 제13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심진황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향토문예지 어사매는 그 동안 우리 고장의 숨은 향토사 발굴을 통해, 면면히 이어오는 조상의 얼을 선양하고,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일깨우는 한편, 관내 문학인들의 주옥 같은 작품 발표 공간으로서도 훌륭히 제 몫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삶의 지혜와 아름다운 심성이 듬뿍 담겨 있는 문학 작품은 고단하고 지친 일상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 주고,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가꾸어 주는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금번 호에 실린 작품 하나하나에 깃들여 있는 높은 문학성과 향토사랑의 마음은 고단한 삶에 지친 군민들의 정서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제13호 어사매 발간을 통해 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군민들의 많은 참여와 애정 속에서 향토 문화를 선도하는 문예지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원하며, 발간에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祝 辭



이 인 원
황성군의회 의장

향토문화를 꽃 피워온 어사매 13호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그동안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심진황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슬기로운 후손은 조상의 빛난 자취를 반영의 기틀로 삼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다고 하였습니다. 물질문명 앞에 가리워진 자랑스런 민족의 혼을 다시 찾고 소중히 가꾸는 것이 이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소명이요 책임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내외적으로 밀려오는 서구문화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문화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이를 지켜 나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어사매 13호의 발간이야말로 모든 군민들의 정신문화의 함양과 자긍심을 새삼 일깨워 줌과 아울러 향토문화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큰 기대를 담고 있는 어사매에 대한 온 군민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그동안 어사매 발간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사매 13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祝 辭



최 범 철
황성교육청 교육장

긴 歲月은 흔적을 同伴하지만 그 형상을 잃기 쉽고 文化遺産을 잘 保存하여 文化民族의 대접을 받기란 더욱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예로부터 愛國忠節의 고장이요, 文化遺産을 잘 간직한 고장으로 郡民의 情緒 涵養과 愛郷心 鼓吹에 남다른 熱情을 보인 고장이기도 합니다.

빨리 빨리 文化가 流行처럼 번지고 無分別한 外來文化가 掩襲해 와 우리의 고유 文化가 退色되는 가운데 골골마다 살아 숨쉬는 우리 橫城의 文化遺産이 잘 保存되고 있음은 큰 자량이 아닐수 없습니다.

郷土文化의 脈을 연연히 이어주며 文化力量을 結集시켜 郷土發展의 밑거름이 되어주는 於斯買 第13號의 發刊을 眞心으로 祝賀 드립니다.

본군 於斯買 郷土資料를 통해 삶의 질을 向上시키고 메말라가는 郡民의 矜持와 自負心을 키우는데 큰 힘이 될 것을 確信합니다.

橫城에서 發源하는 섬강이 이 나라 中部 平野를 온통 적시듯 아름다운 이 고장 文化가 넉넉하고 호젓한 삶을 추구하는 幸福한 生活을 만들어 줄 것으로 믿으며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感謝를 드립니다.

• 발 간 사	심 진 황
• 축 사	조 태 진
• 축 사	이 인 원
• 축 사	최 범 철

I. 어사매의 얼

어사매의 얼	이병열 · 15
--------	----------

II. 횡성댐 수몰지역의 민속문화

수몰지역의 역사	원영환 · 유재훈 · 23
민 속 분 야	김의숙 · 46

III. 연 구 문

전래동요 연구	정재영 · 93
물세불망비고찰	채희승 · 133

IV. 어사매 문화마당 (수필, 시, 한시, 가맹문)

거 세	권용환 · 139	언 어	박현숙 · 162
추억이야기	조규영 · 152	계잡기	송인식 · 163
여름을 보내며	장정숙 · 160	향토문화답사	엄수희 외 · 164

V. 문화행사 입선작

제14회 태풍문화제 입선작	177
제12회 태기문화제 입선작	190
이연승시비건립 1주년기념 입선작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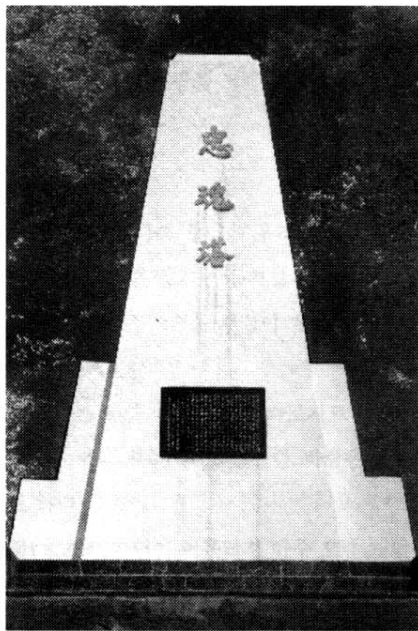
VI. 문화원 소식 및 안내

문화원소식	213
임원및 회원명부	218

어사매 (제13호)

1. 그 오랜 역사의 자존심

어사매의 얼



어사매의 「열」

- 2 오랜 역사의 자존심 -

이 병 열
(예비역 장군)



『玉林芳風 溪碧水 花開鳥歌 香滿衣
泰岐道風 滿乾坤 大震威光 永無窮』

“깨끗한 숲에는 향기로운 바람이 불고 계곡에는 푸른물이 흐르는데,
꽃피고 새가 지저귀는 곳에 향기가 옷자락에 가득하네 태기산의
도풍이 온천지에 가득하니 그 위광을 크게 펼쳐 영원 무궁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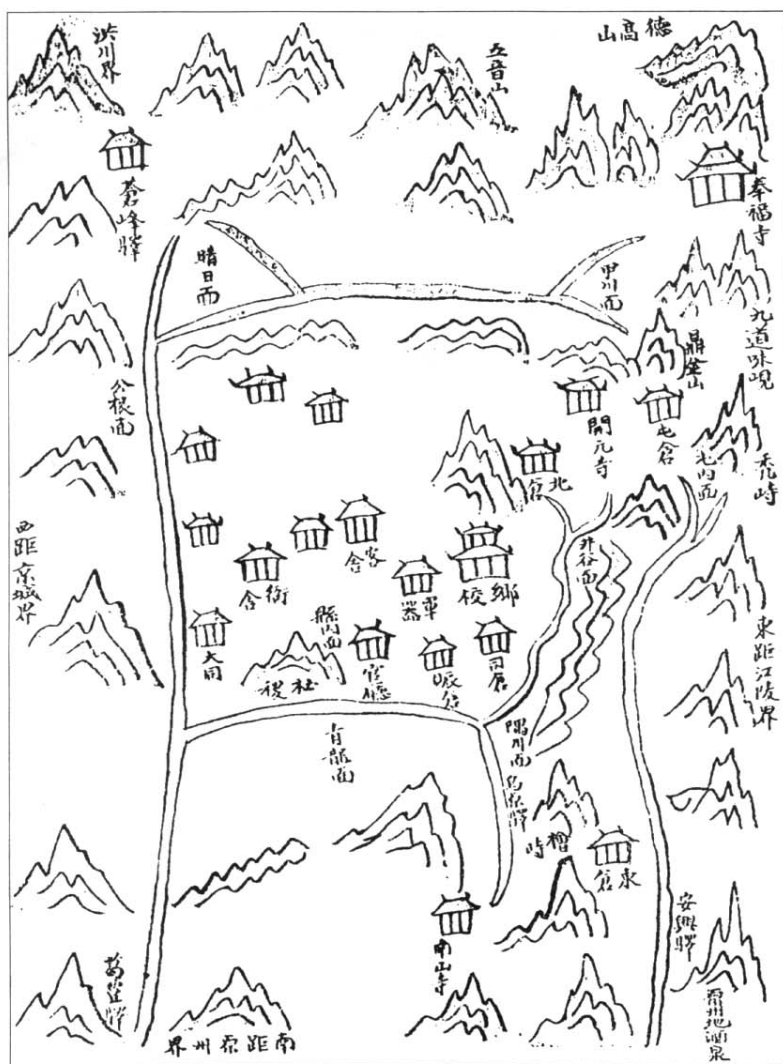
- 서암 이 병 열 -

어느 풍수가(風水家)가 쓴 책을 보니까 황성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당이라고 소개된 것을 본 일이 있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등뼈를 등지고 갈비뼈가 외워썬 심장부에 해당 되는 곳ियो, 동해일출(東海日出)의 싱그러운 햇살이 제일 먼저 쏟아지고 태백산 정기(精氣)가 이곳으로 뻗어 내리기 때문일까?

태기산에서 사시장철 쏟아내는 물줄기는 이곳을 가로지르며 그 많은 생명들의 젖줄이 되어 한강에 이르고 골(谷)마다 부는 맑고 신선한 바람은 못 생명의 생(生)과 기(氣)를 이어주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황성에는 태고적(太古的)자연이 어우러져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람이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둔내 현천리, 갑천중금, 구방리, 황성목계리, 안흥의 안흥리 등지에서 발견된 선사시대 유물들은 이미 이곳에 구석기시대 중엽부터 인간이 살아왔다는 흔적을 볼 수 있다.



《關東誌》所載 橫城縣 地圖

특히 1984년에 둔내 둔방내리에서 발견된 3개의 집터(46, 12, 10평) 흔적은 초기 철기시대(기원전후 300년)부터 소규모의 부락을 이루고 살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다.

“선사(先史)유적을 간직한 오랜 역사의 고장”

횡성은 진한(辰韓)의 마지막 왕인 태기왕(泰岐王)이 부산 삼랑진에서 신라 박혁거세에게 패퇴하여 부하 수백명을 데리고 태백산맥으로 은거하여 복상하다가 이곳 태기산(본래 덕고산)에 진(陳)을 치고 삼천육백여척의 돌성을 쌓고 훈련하며 재기를 노리던 중 서석방면에서 또다시 신라군사들의 기습을 받고 영원히 패(敗)하고 말았다는 기록이 전설로 이어져오고 있다.

갑천(甲川)이라는 지명은 그 당시 피문은 갑옷을 씻었다하여 유래된 곳이고 어답산(御踏山)은 태기왕이 군사요새지를 만들기 위해 직접 돌아본 산이라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횡성은 삼국시대이후 처음에는 백제에 속해 있다가 고구려 남진에 따라 백제가 충청도 부여지역으로 퇴출(退出)되면서 고구려에 속하여 최초로 지명이 횡천(橫川)으로 불리어 졌는데 이는 태기산에서 발원한 물(섬강, 주천강 수계)이 이지역을 동(東)에서 서(西)로 가로 지른다하여 붙여진 지명이고 한때 황천(黃川), 어사매(於斯買)로도 불리어 졌다고 하는데 당시로서는 물 웅덩이를 상징할 만한 곳도 없었는데 어떻게 저수지와 연관된 황천으로 불리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의 갑천을 막아 횡성댐을 만드는 것과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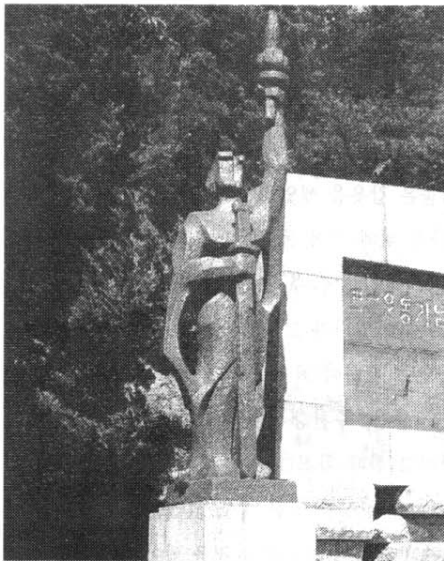
어사매라는 지명은 확실한 의미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물과 관련된 당시의 순수한 우리말을 한문자로 옮긴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할 뿐이나 매우 정감어린 표현임에는 틀림이 없다.

현재의 지명인 횡성(橫城)은 조선조 태종13년(1431년)에 종6품(從六品)의 현감(縣監)이 임명되면서 이듬해에 이웃 홍천(洪川)과 지명이 비슷하다 하여 횡성으로 바뀌어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천(川)이 성(城)으로 바뀐것

도 태기산성과 연관된 것이 아닐까 하는 필자 개인적인 추측도 든다.

아무튼 횡성은 물과 연관된 지명의 유래로부터 출발한 것이 분명하고 이 두 개의 물줄기를 따라 수만년전부터 사람이 살아왔고 적어도 2천년전을 전후한때부터 부락을 이루고 살아온 오랜역사의 고장이다.

“이인거(李仁居)의 난(亂)과 3·1만세 운동은 지역자존심의 발로”



그래서인지 횡성사람들은 비교적 토착적인 자존심이 강하고 강직하며 개성이 강한 편이다.

역사적으로 볼때도 인조 5년에 당시 둔내에 살던 이인거(李仁居)라는 분은 병자호란의 난세에서 조정의 실정(당시 조정을 관장하던 서인들이 청나라를 배척한데서 병자호란을 유발)으로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항거하는 난(亂)을 일으켜 그분과 뜻을 같이하는 수백명과 함께 횡성으로 내달아 현감을 나포(拿捕)하고 한양으로 가기 위해 원

주방면으로 나가다가 원주목사가 이끄는 군사들에게 체포되고 말았으나 당시에 이「이인거의 난」이 조정에까지 보고되어 어명(御命)으로 군사가 동원되어 요소요소에 배치될 정도였다고 한다.

그후 횡성은 이 일로 인하여 10여년간 원주에 예속되었던 일이 있다. 또한 기미년 3·1독립만세 운동이 강원도에서는 이곳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것도 지역적 자존심의 발로라고도 볼 수 있다.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의 상권(商權)을 모두 장악했던 일본상인들이 유독 횡성과 개

성에서만은 발을 붙이지 못한 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표현중에 「형편 나까무라야」라는 말이 있었다.

일본상인 나까무라(中村)가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으나 결국은 이곳에서 장사를 망하고 만 것이다.

그래서 황성은 옛부터 야무지고 맹랑한 곳으로 통해 왔다. 지금도 황성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곧고(直) 똑똑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콩과 메주의 함수관계를 생각하고 지역 구심(求心)을 이루어 갈 때”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황성사람들의 자존심과 구심(求心)은 무엇이며 또한 황성의 미래는 무엇인가?

한때 동서관문(東西關門)의 요충지로서 그 위세등등(威勢騰騰)하던 지역의 자존심과 위상은 어찌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황성은 역사깊은 뿌리의 맥이 동해일출(東海日出)과 태백정기(太白精氣)에 맞닿아 있는 곳이다.

78%가 산지(山地)로 되어있는 황성의 자연환경은 전국 최고의 선진형 미래의 고장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폐쇄된 안주(安住)에서 벗어나 넓고 멀리 보는 안목에서 포용과 변화를 해야만 한다.

이제 우리 모두는 변화하는 시대에 힘을 모아 더 큰세계를 향해 콩과 메주의 함수관계를 생각해 보고 그로 비 롯되는 간장, 된장의 부가가치를 얻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그것은 고착된 자존심을 털어버리고 넓은 안목과 열린감각으로 공감된 구심(求心)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도 쳐주고 힘겹게 나무에 오르는 사람에게는 버팀목이 되어 주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역사깊은 고장의 뿌리를 이어 희망차게 발전하는 어사매의 미래를 이루어 가길 소망해 본다.

변화의 시작은 바로 지금 「나」부터이다.

어사매 (제13호)

II. 횡성댐 수몰지역의 민속문화

수몰지역의 역사 민속분야



횡성댐 수몰지역의 역사

원 영 환 (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유 재 춘 (강원대학교 사학과 강사)

I. 머리말

횡성군은 우리 나라 중부 지방의 강원도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평창군, 서쪽으로는 경기도 양평군, 남쪽으로는 원주시·영월군, 북쪽으로는 홍천군과 각각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郡의 東端은 둔내면 삼교리, 西端은 서원면 유현리, 南端은 강림면 부곡리, 북단은 청일면 봉명리이다.

횡성군은 태백산맥과 연계된 지역으로 강원도 대부분의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로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동북으로 태기산(1,261.4m), 청태산(1,190m), 운무산(980m), 북방으로는 수리봉(959.6m), 발교산(998.4m), 오음산(930m), 동방으로는 사자산(1,120m), 배향산(808m), 남으로는 치악산 국립공원내의 남대봉(1,181m), 향로봉(1,042m), 비로봉(1,288m), 매화산(1,084m), 서쪽으로는 성지봉(791m)이 전체적으로 郡界와 접하면서 郡을 둘러싸고 있는 형상이다.

그러나 높은 산을 접하고 있는 동북방이 산악지대인데 비해 서남방은 완만한 산세를 이루며 비교적 넓은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횡성군에는 남한강수계에 속하는 지방하천 1개와 준용하천 17개 등 모두 18개의 하천이 있는데, 특히 청일·갑천·공근·우천 등지를 흘러 횡성읍에서 합류하여 섬강을 이루는 하천 주변에는 「화성들」, 「문암들」, 「횡성앞들」 등의 비옥하고 비교적 넓은 평야를 이루고 있다.

횡성은 둔내면 현천리 유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미 구석기시대에 인류가 거주하였던 곳이며, 三韓時代에는 馬韓의 땅이었다.

이후 삼국시대에 와서는 삼국이 치열한 영토 전쟁을 하는 가운데 백제・고구려・신라로 영역이 바뀌게 되었으며, 고려시대에 와서는 朔方道 春州에 속하였으나, 이후로 지방행정제도가 개편되면서 변천을 거듭하였다.

「橫城」이라는 지명의 연원이 되는 「橫川」이라는 지명은 본래 고구려의 명칭이라고 한다.¹⁾

「橫川」이라는 지명이 생기게 된 것은 횡성지역의 河川이 대부분의 다른 지역 물이 北-南으로 흐르는데 반하여, 이곳은 東-西, 즉 가로(橫) 빗겨 흐르기 때문에 “가로 횡자(橫)”를 써서 橫川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여러 기록에 보면 「橫川」 혹은 「於斯買」라고 불렀다고 하는데²⁾ 「於斯買」라는 말은 吏頭式 표현으로 본래 우리 고유의 명칭을 한자로 빌어 옮겨 놓은 것이 분명하고, 「橫川」이나 「潢川」보다는 오랜 지명이라고 할 수 있다.

「橫川」이 횡성지역의 물 흐름의 현상에서 유래한 지명이 분명하다면 「於斯買」나 「橫川」도 물과 관련이 깊은 지명임에도 틀림이 없겠으나³⁾ 이는 좀 더 많은 地名・古語 研究를 통하여 규명할 과제이다.

또한 高麗史나 世宗實錄地理志에 보면 횡성의 別號를 「花田」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예전에 지금의 갑천면 花田里, 釜洞里 일대가 縣의 중심지(官衙)였다고 하는 說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일대에는 “향교터”, “옥담터”, “花城들” 등의 지명이 남아 있어서 그와 같은 說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각 시대별로 횡성의 역사와 횡성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구에 해당하는 甲川面의 연혁과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三國史記』卷 第三十五 雜誌 第四 地理 二.

『高麗史』58 志第 12 地理 3.

2) 『高麗史』58 志第 12 地理 3.

『世宗實錄』地理志 江原道 橫城縣條

『大東地志』卷 15 江原道 橫城條.

3) 金濬基, 「橫城地名攷 於斯買와 橫川에 대하여」 『於斯買』第四號, 橫城文化院, 1986.

Ⅱ. 횡성의 역사

1. 고대의 횡성

횡성지역에 정확히 어느 때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하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둔내면 현천리에서 구석기유적이 확인됨으로써 이 지역에 이미 구석기시대부터 인간이 살아 온 것을 알 수 있다.⁴⁾ 또 인접한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홍천강 유역에서 중석기시대의 유적이 발견된 것으로 볼 때 횡성에도 중석기시대에 사람이 살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둔내면 현천리와 둔방내리에서는 신석기시대나 청동기시대의 토기와 고인돌이 발견되고, 기타 갑천면 중금리·횡성읍 묵계리 등지에서도 간돌갈, 간돌화살촉 등이 출토되어 이 시대에도 횡성지방에 사람이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 이전의 횡성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기원전 3~2세기경이 되면 한반도 중남부지역 「辰國」이 성립되었으므로 당연히 횡성도 이 辰國에 속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辰國」에 관한 최초의 기록인 「史記」에서도 판본에 따라 「辰番旁辰國」, 「辰番旁辰國」 두 계통이 있어 진국을 역사적인 실체로 인정하는 학설이 있는가 하면 “진번 옆에 있는 여러 나라(衆國)”라는 보통명사로 해석하여 진국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진국을 中國 중의 하나로 보는 등 그 주장이 다양하다. 또한 다른 기록들도 「진한은 옛 진국(辰韓古之辰國)」(『삼국지』 魏書 東夷傳), 「삼한은 모두 옛 진국(三韓皆古之辰國)」(『後漢書』 東夷傳)이라고 하는 등 그 내용이 일치하고 있지 않다.

그후 한반도 중남부지역에 「三韓」이 성립되게 되었는데, 이 시대에 와서도 횡성지역이 어느 나라에 예속되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횡성이 원주지방과 함께 蟾江을 통해 경기도 지방과 연결되고 남한강의 상류인 만큼 이 강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지방의 원시부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본다면 횡성지역은 당연히 경기 남부와 충청도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횡성군 유물·유적항 참조(崔福奎 작성)

지방에 정치집단을 이루고 있었던 馬韓에 속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보다 분명하게, 설명되기 위해서는 각종 기록에 나오는 마한의 小國 명칭과 유물・유적조사를 통한 황성지역과의 연관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한편 황성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甲川과 泰岐山에 관한 전설은 辰韓의 마지막 왕인 태기왕에 관한 것인데, 이는 삼국시대가 되기 이전 聯盟王國段階의 小國들이 각기 세력과 영토확장을 추진하던 시기의 것으로 德高山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던 泰岐山에는 지금도 城址가 남아 있다. 이로 볼 때 황성은 진한의 소속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역사기록이 아닌 전설인데다가 태기산 전설이 평창지방에서는 「진한의 왕」이 아닌 「예맥의 왕자」로 전해지고 있어 이러한 傳說을 삼한시대 황성을 설명할 직접적인 근거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황성지방은 우리 나라 선사시대 문화를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南・北으로 나눌때 원주와 더불어 남방계열로 볼 수 있다. 이는 황성에는 북방계 유적인 탁자형 고인돌이 없는 반면 전라도・충청도・경상도지방에서 많이 발견되는 남방계의 碁盤型 고인돌이 발견된다는 점과 三韓과 관계되는 전설이 있다는 것은 남방문화권과의 연관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

삼국시대에 들어서면서 황성은 그 소속이 보다 분명해지게 되었다. 이는 삼국이 고대국가로 성장하면서 보다 넓은 영역을 통솔하게 되고 지방제도가 점차 확립되어 갔기 때문이다. 황성은 삼국 중 가장 먼저 백제의 영역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백제가 성장하면서 종래 馬韓의 영역을 대부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강유역을 가장 먼저 점령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제가 성립한 초기부터 황성지역을 차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백제가 국가기반을 다지며 대대적인 영토확장을 추진하였던 제8대 高爾王(재위: A.D.234-286)- 近肖古王(재위:A.D. 346-375) 연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근초고왕은 마한을 병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으로 고구려가 차지한 帶方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수도를 漢山으로 옮겨 「漢城」이라고 하였던 왕으로 늦어도 이 시기

5) 원영환·최복규, 『둔내유적발굴보고서』, 강원대학교 박물관, 1983. p.22.

까지 횡성은 백제의 영역에 속하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서기 5세기 초가 되면 그동안 열세를 면치 못했던 고구려가 크게 성장하여 남쪽으로 대대적인 영토확장을 하게 된다. 특히 고구려 제20대 왕인 장수왕은 백제의 尉禮城(지금의 경기도 광주⁶⁾)을 공략하여 蓋鹵王을 죽이고 백제를 남쪽 態津(충청도 공주)으로 구축하였다. 그후 횡성은 고구려·백제에 비해 뒤쳐져 있던 신라가 국력을 신장하여 대대적인 영토확장을 추진하면서 신라의 영역이 되었다.

특히 그 시기는 신라가 대대적으로 영토확장을 하는 신라 제24대 진흥왕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백제가 횡성지역을 차지하였을 당시는 완전히 지방지배체제를 확립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三國史記』기록에 「황천현, 본래 고구려의 횡천현(橫川縣)인데 경덕왕이 개명하였다가 지금 다시 옛 이름을 복구하였다」(潢川縣 本高句麗 橫川縣 景德王改名 今復故⁷⁾)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즉 백제 다음으로 이 지역을 차지한 고구려의 본래 지명이 전할 뿐, 백제의 지방행정상 명칭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橫城」이라는 명칭의 연원이 되는 「潢川」이라는 지명은 고구려시대부터 불리워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지방제도를 9州 5小京으로 확립하여 다스렸는데, 횡성을 비롯한 강원도내의 영서지역은 朔州라고 칭하였고, 특히 원주는 北原京이라고 하여 전국 5小京 중의 하나로 편입되어 있었다. 9州 중의 하나인 朔州는 북쪽으로 지금의 함경남도 安邊에서 강원도 영서지방과 경상북도 榮州에까지 이르는 행정구역상 「道」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州에는 「都督」이라는 지방관을 두어 다스렸는데, 이 당시 朔州의 都督所在地는 춘천이었다.

당시 지방제도는 州아래 郡을 두고, 그 아래 다시 縣을 두었으나 특정 지역은 縣이라고 하더라도 郡에 편입되지 않고 州에 소속되었는데 횡성도 바로 그러한 경우였다.

횡성은 통일신라 경덕왕 16년(757)에 「潢川縣」이라고 개칭하고 朔州의 領縣으로

6) 「尉禮」라는 이름이 단지 도읍지의 이름인지 백제초기의 국명인지 명확치 않으며, 또 위치에 관해서도 全北 益山郡說, 忠南 稷山說, 京畿道 廣州說 등이 있으나 문헌기록이나 유물·유적의 고증을 통해 경기도 광주설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7) 『三國史記』卷 第三十五 雜誌 第四 地理 二.

하였다⁸⁾ 그러나 1864년 金正浩가 편찬한 『大東地志』에 의하면 횡성은 「본래 신라 於斯買縣」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경덕왕때 潢川으로 개칭하기 전의 공식명칭이 潢川이었는지 於斯買였는지는 불분명하다.⁹⁾ 신라 말기에 와서 여러 사회모순과 정치적 혼란, 지방의 반독립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각지에서 일어난 농민들의 봉기는 후백제와 후고구려 건국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에 신라는 다시 三國으로 분립되어 936년 고려에 의해 후백제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30여년 이상을 삼국은 피나는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한편 橫城은 신라말에 와서 北原京(原州)에서 梁吉이 활동하면서 그의 세력하에 있다가 후에 그의 휘하에 있던 弓裔가 세력을 떨치면서 그가 세운 후고구려(泰封)세력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 후 궁예가 신하들에 의해 추방당하고 왕건이 왕으로 추대되어 고려를 건국함으로써 횡성은 고려의 영역으로 되었다.

2. 高麗時代의 橫城

고려시대에는 횡성을 “橫川”이라고 하였으나 『三國史記』에는 「景德王改名 今復故」라고 하여 옛 이름을 복구하였다고 하나 이를 『三國史記』 편찬 당시에 다시 복구하였다는 것인지 고려 성립 초기에 橫川이라는 고구려의 지명을 복구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高宗1년(1864) 高山子 金正浩가 편찬한 『大東地志』에 의하면 太祖 23년(940)에 橫川으로 고쳤다고 하는 바, 『高麗史』 太祖 23년 기사에 「州・府・郡・縣의 명칭을 고쳤다」¹⁰⁾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김정호의 기록은 정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고려시대에 와서 橫川이라는 명칭은 태조 23년(940)부터 사용한 것이다.

고려시대 횡성지역의 행정구역편제의 변화를 보면, 우선 고려 초기에는 전국을 16도로 나누어 획정하였는데, 이때 강원도는 함경도 남부지역을 합하여 朔方道라고 불렀으

8) 『高麗史』 58 志 卷第 12 地理 3.

景德王 16년이라는 기록은 『大東地志』에 기재된 연대인데 그가 참고한 典據가 무엇인지는 불명하나 『삼국사기』(新羅本紀 第九) 경덕왕 16년 기사에 보면 횡성의 지명개칭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없지만 이해 12월에 州의 명칭 개칭과 소속 군현의 조정 등 대대적인 지방제도 개편에 관한 기사가 있는 바, 이때 횡성의 지명 개칭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9) 金正浩, 『大東地志』 卷 15 江原道 橫城條.

10) 『高麗史』 世家 卷第 2 太祖 2 庚子 23年 春 3月條

며, 횡성은 朔方道 春州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그후 전국을 5道 兩界로 획정하면서 강원도는 세구역으로 나누어 영동지방을 東界, 영서지방을 북부는 交州道(또는 東州道・春州道)에, 남부는 楊廣道에 속하게 되었으며, 횡성은 처음에는 교주도 춘주에 속해 있다가 후에는 양광동에 속한 원주의 관할이 되었다.¹¹⁾

그후 고려 말기에는 東界로 편제되어 있던 영동지방이 江陵道가 되면서, 영서 북부의 交州道와 합하여 交州江陵道가 되었고, 橫城(橫川)은 공양왕 원년(1389년)에 監務를 설치하여 독립하였으며, 양광도에서 교주강릉도로 그 소속이 이관되게 되었다. 특히 횡성은 고려시대 契丹의 遺族이 세운 大遼收國의 침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이 침입은 고려 고종 3년(1216)부터 6년까지 계속되었는데, 원주까지 침입한 契丹兵은 그곳에서 강력한 저항으로 횡성으로 패퇴하여 주둔하였다가 다시 원주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¹²⁾ 후에 이들은 崔元世, 金就礪將軍 부대에게 패하여 大關嶺을 넘어 도주하였다.¹³⁾ 契丹兵 침입은 물러갔지만 橫城은 原州를 공격하기 위한 거란병의 정비 기지화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이다.

3. 朝鮮時代의 橫城

1392년 7월 17일 開城 壽昌宮에서 즉위하여 새로운 王朝를 건국한 太祖 李成桂는 2년 4개월 후인 1394년 10월 25일(陰曆) 개성에서 漢陽으로 首都를 옮기고, 宮闕・宗廟・社稷 등 首都를 건설하는 동시에 首都의 명칭을 비롯한 地方行政區域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태조 3년(1394) 6월 23일 都評議使司가 江陵・交州道를 합해서 江原道로 개칭하는 것 등의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건의가 있었고¹⁴⁾, 1395년 6월 13일에는 都評議使司의 건의가 있는지 약 1년만에 江陵道와 交州道를 합하여 江原道로 하고, 開城府를 開城留後司로, 楊廣道를 忠淸道로, 西海道를 豐海道로 개칭하는 등의 행정구역

11) 『高麗史』 58 志卷第 12 地理 3 橫川縣條

世宗實錄地理志 江原道 橫川縣條

12) 『高麗史』 世家 卷第 22 高宗 1 丁丑 4年 5月 癸巳日, 己亥日條.

13) 『高麗史』 世家 卷第 22 高宗 1 丁丑 4年 7月 庚辰日條.

14) 太祖實錄 太祖 3年 6月 辛卯條.

및 명칭의 개정이 있었다.¹⁵⁾ 江陵道와 交州道를 합하여 江原道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江陵의 「江」字와 原州의 「原」字를 취하여 江原道라 하였던 것이다. 그 이유는 朝鮮時代に 江陵은 江陵大都護府로서 正三品官인 大都護府使를 두었고, 原州는 原州牧으로서 역시 正三品官인 牧使를 두어 江原道에서는 가장 우대를 받는 지방이었기 때문이었다.

그후 정종·태종·세종대를 거치면서 부분적인 행정구역조정이 있었는데, 定宗 元年(1399)에는 原州의 屬縣인 永春과 忠州의 소관인 寧越을 서로 바꾸었고, 太宗 13년(1413)에는 加平縣·朝宗縣을 京畿道에 이속하고, 京畿道 소속이었던 伊川縣을 江原道에 이속시켰다. 또 世宗 16년(1434)에는 경기도에 예속되었던 鐵原地域을 江原道로 이속시켰다. 江原道의 名稱은 1395년 6월 13일에 제정된 이후 1895년까지 무려 10여 차례의 變更과 復稱이 되풀이 되었는데, 이는 어떤 지방에서 不孝·悖倫·謀逆 등 綱常에 위배되는 중죄인이 발생할 경우 그 죄인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地方官廳의 등급까지 강등하여 大都護府나 牧·縣으로 강등하든가, 郡을 縣으로 강등하였고 강등된 地方글자 名稱의 글자는 道名에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朝鮮時代 江原道 名稱의 變遷

구분순위	時代 (年度)	名 稱	備 考
1	朝鮮 太祖 4年 (1395)	江 原 道	
2	顯祖 7年 (1666)	原 襄 道	
3	肅宗 1年 (1675)	江 原 道	
4	肅宗 9年 (1683)	江 襄 道	
5	肅宗 14年 (1688)	江 春 道	
6	肅宗 19年 (1693)	江 原 道	
7	英祖 11年 (1729)	江 春 道	
8	英祖 14年 (1738)	江 原 道	
9	正祖 6年 (1782)	原 春 道	
10	正祖 15年 (1791)	江 原 道	
11	高宗 32年 (1895)	春川府·江陵府	
12	高宗 33年 (1896)	江 原 道	

15) 太祖實錄 太祖 4年 6月 乙亥條.

조선왕조의 지방제도는 대체로 太祖 당시에는 고려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부분적인 道名 變更이나, 통치기구에 대한 부분적인 改定이 이루어 졌을 뿐 대폭적인 변혁은 없었다. 그 후 定宗 을 지나서 第3代 太宗 때부터 王權의 확립과 더불어 점차 統合 規範이 짜여지기 시작하여 여러 방면에서 제도의 개혁과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太宗은 麗末鮮初의 地方制度를 과감히 改編하여 전국을 八道로 區分하여 地方을 통괄하였다. 世宗代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世祖代에 이르러서는 政治의 大本이 되는 法典의 編纂에 本格的으로 着手하여 成宗 2년(1471)에는 朝鮮王朝의 統治 組織과 地方制度의 基本法典인 經國大典이 완성되게 되어 조선왕조 개창이후 지속된 모든 법제의 개혁과 정비가 1차적으로 완성을 보게 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朝鮮時代의 地方制度는 대체로 中央直轄이라고 할 수 있는 漢城府와 開城府, 慶州府, 全州府, 永興府, 平壤府의 5개 府와 京畿・忠淸・慶尙・全羅・黃海・江原・咸鏡・平安道の 八道制를 시행하였고 그 밑에 下級行政區域으로서 府・大都護府・牧・都護府・郡・縣制를 시행하였다.

한편 江原監營下의 行政體制를 보면, 正三品の 大都護府使가 관할하는 江陵大都護府와 正三品の 牧使가 관할하는 原州牧, 從三品の 都護府使가 관할하는 襄陽・三陟・淮陽・春川・鐵原의 5個의 都護府, 從四品 郡守가 관할하는 平海・通川・高城・杆城・寧越・旌善・平昌의 7個郡, 從五品の 縣令이 관할하는 울진・흡곡・금성의 3개縣, 從六品の 縣監이 관할하는 伊川・平康・金化・狼川・洪川・楊口・麟蹄・橫城・安峽 9개의 縣이 있었다.¹⁶⁾ 이상과 같은 江原道の 地方體制는 府・牧・郡・縣의 降等과 昇格이 있기는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변동없이 1895년 23府制가 실시될 때 까지 유지되었다. 한편 橫城은 高麗 恭讓王 원년(1389) 監務를 설치한 이래 그 소관이 春川에서 原州로 바뀌었을 뿐 조선초까지 계속 유지되다가 太祖 13年(1413)에 從六品인 縣監을 두게 되었고, 이듬해에 橫川이라는 지명의 발음이 洪川과 유사하다고 하여 「橫城」으로 개칭하였다.¹⁷⁾ 특히 횡성은 조선왕조 제3대 임금인 태종과 관련이 깊은 지역으로 태종

16) 『經國大典』史典

17) 世宗實錄地理志 江原道 橫城縣條

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覺林寺(講林面 講林里)에서 修學하였고,¹⁸⁾ 왕위에 오른 후에도 이곳으로 그의 스승이었던 耘谷 元天錫을 만나기 위해 왕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지역에는 「태종대」, 「주필대」, 「횡지암」 등 태종과 관련된 유적과 여러가지 逸話가 전해지고 있다. 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횡성은 戶數 313戶, 人口가 59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인구상으로 볼 때는 道內에 있어서 寧越郡이나 金化縣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당시 橫成縣의 현황을 世宗實錄地理志에 의거하여 살펴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世宗實錄地理志의 橫城

區 分	內 容	備 考
戶口	313戶 595口	寧越 324戶 寧越 611口
軍丁	侍衛軍 77, 般軍 20	
土姓	秋·高·趙·尹·黃	
續姓	金(原州)에서 음, 朴(密陽에서 음)	
墾田	2737結(水田은 1/10이다)	
土宜	五穀·桑·麻·梨·栗·楮·漆	
土貢	蜂蜜·黃蠟·松子·五倍子·朱土·眞茸·石茸·芝草· 紫檀香·白檀香·狐皮·狸皮·兎·正鐵	
藥材	五味子·人蔘·茯苓·秦艽·富歸·前胡·蓮子·白膠香· 白芨·獾膽	
驛	烏原·安興·葛豐·蒼峯	

조선후기에 와서는 인조 5년 횡성에서 있었던 李仁居亂의 발발로 原州의 屬縣으로 강등되었다가 同 임금 14년에 다시 縣으로 복구되었다.¹⁹⁾ 그리고 영조 36년(1760) 官에서 편찬한 『輿地圖書』에는 횡성에 대하여 이전의 어느 기록보다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특히 『輿地圖書』에는 各面に 속한 洞리는 물론, 戶主와 宮門으로부터의 거리 등이

18)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四十六 原州牧 佛宇條.

19) 횡성군에서 발간된 『통계연보』(1991년도)의 沿革概要를 보면 이인거란으로 縣이 철폐된 동안 花田, 혹은 花城으로 불렸다고 하나 朝鮮王朝實錄은 물론 기타의 자료에서도 그와 같은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

세밀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횡성현은 縣內面, 南靑龍面, 西公根面, 北晴日面, 甲川面, 井谷面, 屯內面, 隅川面 등 8개면 55개리로 되어 있으며, 戶數는 2,775 戶, 人口는 6,100명 (男 3,078, 여 3,022)이었다.『輿地圖書』에 의해 횡성현의 관할 행정구역과 面・里別 戶口를 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한편 橫成縣의 官職으로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縣監과 訓導를 각 1人씩 두었다고 되어 있을 뿐 下部官員의 수는 나와 있지 않고, 『輿地圖書』에는 현감을 武班 3品으로 임명하여 營將・討捕使를 겸하게 하였고, 縣의 官員은 座首 1人, 別監 2人, 軍官 6人, 衙前 24人, 知印 14人, 軍 30人, 使令 23人, 官奴 21人, 妓婢 5人, 官婢 12人 등 총 139명이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輿地圖書』의 내용은 순조 26년 (1826) 편찬된 『橫城邑誌』에도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面・리의 구성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⁰⁾

그러나 1864년 김정호가 편찬한 『大東地志』에 보면 횡성현의 행정구역이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기록에는 縣內面을 비롯하여 靑龍・隅川・井谷・屯內・甲川・松陰・晴日・水南・公根 등 10개면으로 되어 있다. 또 횡성현은 戶數 3,300, 인구 10,900명, 軍保 2,203명이었으며, 토지는 旱田이 192結, 水田이 179結, 續田²¹⁾이 290結이었다.

그후 1894년 6월 8일 老人亭會談에서 日本公使 大鳥圭介가 제시한 全文 5條 27項으로 되어 있는 「內政改革方案細目」에 의하여 지방제도개편이 주장되어졌고, 그 후임의 일본공사로 임명된 井上馨은 일본에 망명해 있던 朴泳孝를 귀국시켜 내각을 개편하고 大鳥公使가 설치한 軍國機務處를 폐지하는 한편, 의정부를 내각이라고 개칭하는 등의 官制의 변혁과 八道制度를 23府制度로 개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江原道의 名稱 및 그 行政體制가 대대적으로 변동되었다.

그러나 23府의 地方制度는 불과 1년 2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존재하다가 폐지되고

20) 이 『橫城邑誌』는 「甲午新章程」, 「更張後」 등의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갑오개혁 이후에 다시 追補된 것으로 보인다.

21) 조선시대 租稅의 부과를 기준으로 분류한 田地의 명칭으로 토질이 좋지 않아서 계속 경작하지 못하고 가끔 휴경하는 토지로 경작할 때만 收稅하였다.

<표 3>

橫城縣의 面·里와 戶口 (1759년)

區分 面別	里	戶	人 口		備 考
			男	女	
縣 內 面	奈 之 里	25	45	30	官門으로부터 東 20里 北 15里 東 20里 東 10里 東 5里 東 5里
	玉 洞 里	19	20	23	
	永永浦里	21	23	25	
	介 田 里	45	50	47	
	馬 山 里	37	39	38	
	橋 項 里	29	31	30	
	邑 內	168	189	170	
小 計	7개리	344	397	363	
南靑龍面	楸 洞 里	24	30	28	官門으로부터 南 15里 南 10里 南 5里 南 10里 西 15里 西 10里
	沙 吞 里	62	70	64	
	長 安 里	51	69	57	
	靑 龍 里	54	60	56	
	茅 坪 里	42	49	50	
	葛 豐 里	37	38	41	
小 計	6개리	270	316	296	
西公根面	鶴 谷 里	57	60	61	官門으로부터 西 10里 西 20里 北 30里 北 30里 北 30里 北 40里 北 10里 北 15里
	草 院 里	52	55	57	
	蒼 峯 里	41	44	45	
	白鶴谷里	45	60	61	
	內公根里	71	80	78	
	豆 洞 里	36	40	41	
	水 白 里	68	70	68	
	葛麻谷里	42	47	48	
小 計	8개리	412	456	459	
北晴日面	栗 洞 里	20	22	21	官門으로부터 北 40里 北 50里 北 60里 北 70里 北 50里 北 15里
	柳 洞 里	54	57	56	
	春 堂 里	25	30	31	
	栗 實 里	30	31	32	
	兵之坊里	21	23	21	
	外晴日里	62	65	61	
小 計	6개리	212	228	222	

區分 面別	里	戶	人 口		備 考
			男	女	
甲 川 面	中 金 里	112	120	115	官門으로부터 北 30里 東 40里 東 40里 東 60里 東 60里
	浦 洞 里	48	50	51	
	馬 日 里	48	43	45	
	檢 垜 里	34	36	35	
	甲 川 里	104	106	112	
小 計	5개리	346	355	358	
井 谷 面	山 田 里	72	76	78	官門으로부터 東 30里 東 40里 東 40里 東 50里 東 50里 東 60里 東 30里 東 25里
	鼎 金 里	69	70	71	
	弓 宗 里	53	57	59	
	所沙非里	45	50	50	
	地 丘 里	47	50	51	
	安 興 里	64	67	68	
	大美院里	54	60	59	
	加佐谷里	38	40	40	
小 計	8개리	442	470	476	
屯 內 面	禾 洞 里	51	58	59	官門으로부터 東 70里 東 55里 東 60里 東 50里 東 60里 東 55里 東 50里 東 50里 東 50里 東 55里
	馬余味里	33	40	37	
	石 門 里	31	40	35	
	自浦谷里	38	43	40	
	軍伊谷里	40	45	40	
	右 容 里	63	70	72	
	鳥 項 里	22	30	29	
	永 浪 里	101	110	120	
	道 廳 里	90	100	95	
	玄 川 里	102	110	112	
小 計	10개리	571	646	639	
隅 川 面	正 菴 里	33	40	37	官門으로부터 東 15里 南 30里 東 30里 東 20里 東 20里
	法 周 里	31	39	40	
	烏 原 里	34	40	41	
	水 南 里	29	30	30	
	杜 谷 里	54	61	61	
小 計	5개리	178	210	209	
合 計	55개리	2,275	3,078	3,022	

※ 『輿地圖書』에 戶口는 己卯帳籍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바, 이는 영조 35년(1759년)에 조사된 것이다. 1759년 우리나라는 1,654,248戶에 인구는 6,796,690명이었다.

1896년 8월 4일 勅令 第 36號를 반포하여 全國을 13道・8府・1牧・331郡의 새로운 地方制度를 施行하였다. 이때 13道는 종전의 八道중에서 江原・京畿・黃海道는 그대로 두고, 그외의 咸鏡道・平安道・忠清道・全羅道・慶尙道の 五個 道는 각기 南・北으로 분할하여 13道로하였고, 13道の 下部組織으로 廣州・開城・江華・仁川・東萊・德源・慶興의 7個府와 1개 濟州牧, 331郡을 두되, 1等 府・郡에서 5等 郡까지 차등을 두었다. 이후 부분적인 변동은 있었으나 대체로 그체제는 1945년까지 유지되었다.

한편 橫城은 고종 32년(1895년) 전국의 행정구역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어 23부제가 실시되면서 원주에 속해 있던 古毛谷面(후에 書院面)이 횡성으로 편입됨과 동시에 「郡」으로 개칭되었다.

Ⅲ. 갑천면의 연혁과 현황

갑천면은 횡성읍의 동북방에 위치하는 面으로서 東經 127° 46' 北緯 37° 22' 에 위치하고 있으며, 東으로는 屯內面 馬岩里, 西로는 公根面 三培里, 南으로는 橫城邑 玉洞里, 北으로는 洪川郡 동면과 각각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면적은 123.0km²이다.

갑천면이라는 지명은 三韓의 하나였던 辰韓의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泰岐王의 전설과 관련이 있다. 즉 전설의 내용은 삼한의 하나였던 辰韓이 신흥의 新羅와 투쟁을 계속하던중 三浪津 戰鬪에서 대패하게 되었는데, 이때 신라는 朴赫居世居西干이 등장하여 신라의 세력을 크게 확장시키던 시기이고 진한은 태기왕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였다.

진한은 삼랑진 전투에서 패하고 나라를 빼앗기자 태기왕은 패잔병을 이끌고 이곳 덕고산에 와서 軍卒로 하여금 城을 쌓게 하고, 火田을 개간하고, 군대를 훈련시키는 등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기를 4년간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신라에 탐지되어 다시 신라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辰韓軍은 덕고산에 쌓은 산성을 거점으로 신라의 大軍을 맞아 싸웠으나 참패하여 진한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 태기왕도 덕고산에서 최후를 마쳤다고 한다. 이후로 태기

왕의 이름을 따서 태기산이라 부르고, 그 성터를 태기산성이라 하였다고 전한다.²²⁾

이 산성은 『世宗實錄』地理志에는 德古山石城이라 이름하고 둘레 568步 5尺이며, 한 시내가 있는데 오래도록 흘러도 마르지 않으며, 軍倉 5間과 官廳 2間이 있다고 하였으며, 중종 25년(1530)년에 간행된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돌로 쌓은 석성이며, 둘레가 3,653尺이고 성안에는 우물과 軍倉이 있는데, 지금은 반은 頽落하였다」라고 하였다.

이후 조선후기 영조 36년(1760)년에 간행된 『輿地圖書』에서는 「今廢」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산성은 조선중기 이후 점차 퇴락하여 조선후기에 와서는 산성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또 태기왕이 新羅軍에게 쫓기어 많은 將卒을 이끌고 璿성으로 이동하여 德古山 계곡 桂川을 지나다 냇물에 甲冑(갑옷)을 씻었다 하여 이때부터 桂川을 「갑내」, 혹은 「甲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행정구역상으로 갑천면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조선전기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高麗史, 世宗實錄地理志 등의 기록에 璿성의 別號가 「화전」이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현재의 甲川面 花田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명칭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갑천면 화전리에는 「향교터」라고 하는 곳이 있으며, 인접한 釜洞里에는 “옥담터”(獄墻터)라고 하는 곳이 있고 화전리 일대를 “花城들”이라고 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이곳이 그 시기는 불명하나 璿성의 중심지 내지는 초기의 璿성지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조선후기에 와서는 英祖 36년(1760) 官에서 輿地圖書를 편찬한 이후 갑천면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나타난다. 즉 이에 의하면 당시 璿성현은 8개면 55개리로 되어 있었는데 갑천면은 中金里, 浦洞里, 馬日里, 檢垓里, 甲川里 등 5개리로 되어 있었고, 戶數는 346戶, 인구는 713명으로 당시 璿성현의 전체 인구 6,100명의 11.69%를 차지하고 있었다. 각 里別 戶口數와 官門으로부터의 거리를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22) 강원일보사, 『江原文化叢書 4 : 太伯의 說話(上)』, 1974, p. 235-6.

〈표 4〉 甲川面 洞里 및 戶口 現況(輿地圖書)

里 別	戶 數	人 口		備 考
		男	女	
中 金 里	112	120	115	官門으로부터 北 30里
浦 洞 里	48	50	51	東 40里
馬 日 里	48	43	45	東 40里
檢 垞 里	34	36	35	東 60里
甲 川 里	104	106	112	東 60里
計	346	355	358	

그후 편찬된 『關東誌』, 『橫城邑誌』, 『大東地志』 등에도 갑천면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으나 대체로 『輿地圖書』의 내용을 답습하고 있어서 별다른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지방제도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1910년 일제의 강제합방 이후에는 일제의 식민통치기구 재정비에 따라 큰 변화가 있었다. 1910년 9월 30일 「總督府官制」와 함께 日帝의 勅令 第357號로 「朝鮮總督府地方官 官制」를 공포하여 道 觀察使를 道長官으로 개칭하고, 各道에 內務部와 財務部를 두도록 함과 동시에 道の 하부행정구역으로 府郡→面을 두도록 하는 것을 재확인하였는데, 특히 여기서 面을 두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面長을 두되 이를 判任官待遇로 한다는 것이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法令上 최초로 面長이라고 하는 지위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1906년 행정구역정비로 총 4,338面으로 정비되었던 面이 이때에 와서 법적근거를 재정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1912년 조선총독부에서 펴낸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의하면 횡성군의 관할행정구역은 甲川面을 비롯하여 郡內面, 靑龍面, 隅川面, 井谷面, 屯內面, 晴日面, 公根面, 古毛谷面 등 총 9面 108洞里였는데, 갑천면에 소속된 洞里는 中金里, 釜洞里, 花

田里, 舊坊內里, 浦洞里, 梅日里, 下琴臺里, 上琴臺里, 榆坪里, 甲川里, 古時里, 新垵里 등 12개리로 종전보다 洞里數가 훨씬 늘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갑천면은 대체로 12개리를 유지하였다.²³⁾

한편 갑천면의 소재지는 1917년에 편찬된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越智唯七 編纂)에 의하면 釜洞里로 되어 있으나 1940년에 편찬된 『江原道誌』에는 갑천면 소속 첫번째 洞里로 梅日리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40년 이전에 갑천면 소재지는 매일리로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해방직후 상황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958년도 갑천면은 15개리, 114個班으로 편성되어 있었고²⁴⁾ 面職員數는 13명(횡성군 전체 113명), 面議員11명(횡성군 전체 91명), 區長이 14명이었다.

그후 1973년 3월 12일에 공포된 大統領令 第6242號에 의해 행정관할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1973년 7월 1일부로 洪川郡 南面 上蒼峰里, 山田里를 本郡 公根面에 編入하는 것을 비롯하여 기타 橫城郡 管内 各面의 관할구역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晴日面 栗洞里・三巨里・全村里・秋洞里・大官垵里・兵之坊里를 甲川面에 각각 編入하고, 甲川面 榆坪里・甲川里・古時里・新垵里 一部를 晴日面에 이속하였다.

또한 1974년 7월 1일 행정구역변경시 舊坊里와 浦洞里를 각각 1.2리로, 매일리를 1.2, 3리로 분리함으로써 갑천면은 14개 법정리와 20개의 행정리로 구성되게 되었다.

이후 계속 그대로 유지되어 1992년도 현재로 갑천면은 중금리, 부동리, 화전리, 구방 1・2리, 포동 1・2리, 매일 1・2・3리, 하대 1・2, 상대리, 울동리, 삼거리, 전촌리, 추동리, 대관대리, 병지방 1・2리로 법정 14개리, 행정 20개리(횡성군 전체 110개 법정리, 172개 행정리)와 69개반, 63개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다.

면소재지는 1990년 6월 26일 매일 1리 670-5번지에서 매일 1리 627-1번지로 廳舍를 신축하고 이전하였다.

해방후 갑천면의 관할행정구역의 변천을 표로 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23) 『江原道誌』(1940년판) 邑面町里 橫城條에도 종래와 마찬가지로 12개리로 되어 있다.

24) 1958년도 江原年鑑 p.273.

〈표 5〉 甲川面의 行政區域變遷

연 도	법 정 리	행 정 리	반 수	자연부락수	비 고
1957	15	14	114	-	
1962	12	14	65	43	면적 125km²
1972	12	16	84	68	
1975	14	20	81	63	면적 136km²
1980	14	20	70	65	면적 122km²
1985	14	20	70	65	
1990	14	20	69	65	
1992	14	20	69	-	

그리고 갑천면의 인구추이는 다음의 〈표 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68년도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계속 감소하여 1992년도 현재 988가구, 인구는 3,719명(남자 1,863명, 여자 1,865명)이다. 이는 1968년도에 비한다면 가구수는 57.5% 수준이며, 인구는 35.2% 수준이다.

〈표 6〉 甲川面의 人口變動

연 도	가 구 수	인 구			비 고
		남	여	계	
1957	1,593	4,518	4,563	9,081	
1968	1,718			10,522	
1972	1,541	4,697	4,413	9,110	
1975	1,500	4,294	4,154	8,448	
1980	1,252	3,211	3,034	6,245	
1985	1,117	2,464	2,379	4,842	
1990	1,007	1,827	1,772	3,599	
1992	988	1,863	1,856	3,719	

한편 지난 1986년 9월 건설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1991년 5월 27일 甲川面 大官垓里 갑천면을 가로지르는 桂川에 횡성다목적댐을 건설한다는 기본계획이 공

고되고 이후로 댐건설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桂川을 끼고 있는 갑천면의 중금리, 부동리, 화전리, 구방리, 포동 1리, 포동 2리 등 6개 마을의 251세대가 타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는 1992년도 현재 갑천면의 총 988가구의 25.4%에 해당한다. 지난 92년 댐건설로 인한 이주대상가구의 향후 이주희망자를 郡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주대상가구 251세대중 원주지구로 117세대, 황성지구로 33세대, 기타 101세대로 나타났다.

갑천면에 소속한 14개 법정리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中金里

국사봉(400m)을 중심으로 황성읍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7개의 자연부락과 5개 반이 있다. 마을어귀에 수령이 약 200여년 된 느티나무가 있으며, 여양 陳氏가 많이 살고 있다. 주요 지명과 유래는 다음과 같다.

○ 국사봉: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예전에 사령들이 國事に 관한 물건을 가지고 상급관청에 왕래할 때 국사봉 고개를 넘어서 황성현에서 원주·춘천, 혹은 한양으로 다닐때 붙인 고개 이름이라고 한다. 국사봉 위에는 자연석으로 된 제상바위라고 하는 높이 60cm, 넓이 1평정도의 암석이 있는데, 이 바위는 황성에 새로 부임해 오는 수령이 國泰民安을 빌고, 豊年과 無病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낼때 제물을 진설하던 바위라고 전한다. 이로 볼 때 국사봉의 유래는 사령들이 국사에 관한 물건을 가지고 다니다서 유래한다고 보다는 이곳에 있었던 제사의식과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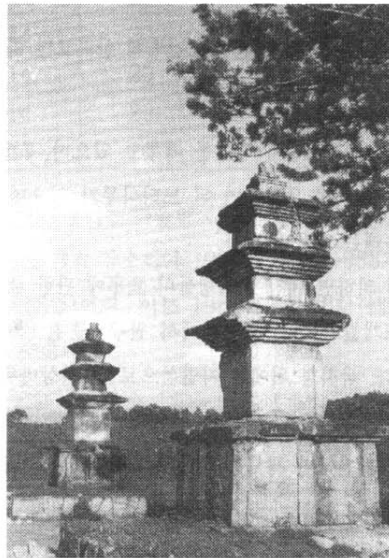
○ 한치: 황성읍 옥동리와 갑천면 경계에 있는 고개로, 고개 중턱에 한치저수지가 있다.

○ 탑둔지: 중금리 삼층석탑이 있는 마을로 탑이屯치고 있다고 하여 「塔屯地」라고 한다. 현재 이곳에는 신라시대의 삼층석탑 2基가 있는데, 신라시대에 이곳에 巨刹이 있었다고 전한다.

○ 마당재: 한치고개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산지에 넓은 마을을 이루고 있다. 이곳에는 원주이씨 효자정문이 있다.

○ 대문동: 이곳은 동북으로 산이 둘러쳐 있고, 서남쪽으로는 중금리 가운데 가장 비옥한 산간평야를 이루고 있다.

이곳에는 수백년전 巨富 陳央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陳央의 집 큰 대문이 있었던 마을이었기 때문에 大門洞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그의 집 본채는 대문으로부터 700여 미터나 떨어진 곳이었다고 한다.



중금리 3층석탑

■ 釜洞里

부동리는 화전리에서 桂川 건너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桂川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하천주변에 비교적 넓고 비옥한 토지가 발달해 있다. 「가마골」로서 한문표기로 바뀌면서 「부동」으로 되었으며, 2개의 자연부락과 2개반으로 되어 있다. 과거 이곳은 갑천면 소재지였던 곳으로 과거 감옥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여 “옥담터”(獄牆터)라고 부르는 곳이 있다.

■ 花田里

화전리는 구리봉(547m) 남서쪽 넓은 들에 위치한 마을이다. 행정의 옛 부호였던 「花田」과 관련이 있는 곳으로 예전에 향교가 있었다고 전하나 확인할 수 없다. 주변의 넓은 들을 “花城들”이라고 부르며, 버덩말·땅뚜루 등의 2개의 자연부락과 2개반이 있다.

■ 舊坊里

구방리는 鼎金山 북쪽에 위치하며, 1974년 7월 1일 행정구역조정시 구방 1.2리로 분리되어 각각 3개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지말, 음달말, 새말, 음곡, 다래말 등의 부락과 개골고개(개골고개)가 있다.

■ 浦洞里

桂川 주변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작은 나루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남쪽으로 鼎金山과 竹林山사이에 있는 고락고개가 우천면 정금리와 경계가 된다. 1974년 7월 1일 행정구역조정시에 2개리로 분리되어 있으며 각각 4개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 한 가운데 烈女 鄭俊濟의 妻 江陵金氏의 烈女閣이 있다 고래골, 저고리골, 마무리, 부영바위, 모재기, 하동평 등의 지명이 있다.

○조고리골(저고리골): 예전에 이 마을에서 퇴비로 논에 넣을 갈나무를 꺾으러 골짜기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고 조고리(저고리)만 남겨 놓은 것을 보고는 혼비백산하여 도망한 후부터 이 골짜기를 조고리골(저고리골)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곳은 경관이 아름다워 태기왕 시대에 휴양지로 이용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寺址가 있는데 寺址에는 석탑이 남아 있다.

■ 梅日里

갑천면 소재지로 구리봉(547m) 하천가에 자리잡고 있는 마을로 마을 어귀에 구리고개가 가로지르고 있다. 『輿地圖書』에 나타나는 馬日里가 이 마을이다. 1974년 7월 1일 행정구역조정시 3개리로 분리되었으며, 매일 1리는 4개반, 2리는 3개반, 3리는 2개반으로 되어 있다. 안매일, 잔골, 동평(銅坪), 馬日등의 지명이 있다.

■ 下臺里

매일리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예전에는 상대리와 하대리를 묶어 검두라고 불렀다. 하대리는 1,2리로 분리되어 있으며, 하대 1리는 3개반, 2리는 5개반으로 되어 있다. 본말, 아홉사리, 다십리, 아랫너부니, 윗너부니, 말구리, 새골 등의 지명이 있다.

■ 上臺里

하대리에서 둔내면쪽으로 있는 마을로 검두고개를 넘으면 둔내면 屯坊內里로 연결된다. 웅골, 터골, 느릅재, 버덩말, 검두재 등의 지명이 있으며, 7개반으로 되어 있다.

■ 栗洞里

울동리는 밤말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매일리 북쪽, 御踏山 동남쪽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1973년 7월 1일 행정구역변경시 청일면으로부터 갑천면으로 편입되었다. 밤말, 창말, 세거리 등의 지명이 있으며, 4개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 三巨里

1973년 7월 1일 행정구역변경시 청일면에서 갑천면에 편입한 마을로, 마을명은 삼거현(三巨峴)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御踏山 남쪽, 전촌리 동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동막, 어영골, 삼거현, 장양치 등의 지명이 있다. 삼거저수지가 있으며, 4개 자연부락과 3개반이 있다.

■ 荃村里

어답산 남서쪽, 추동리와 삼거리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1973년 7월 1일 행정구역변경시 청일면으로부터 갑천면에 편입되었다. 전촌리라는 지명은 이곳에 전장군의 묘소가 있고, 전씨 성을 가진 사람이 많이 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안말, 어답이, 동가래터, 진양지, 동아묵 등의 지명이 있다.

■ 秋洞里

대관대리 북쪽에 위치하며, 추동리라는 지명의 유래는 불명하나 「가래울」이라는 이

마을의 지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73년 7월 1일 행정구역변경시 청일면에서 갑천면으로 편입된 마을로 3개 자연부락과 4개반이 있다. 가래울, 염소골(염수골), 도화목, 당평(堂坪)등의 지명이 있으며, 효자 郭采象의 효자문이 있다.

■ 大官垞里

예전에 개나리로 불리었는데 한문으로 지명을 표기하면서 “개인 날”(晴日)로 訛譯되어 지금의 청일면의 지명유래가 된 곳이라 한다. 『輿地圖書』江原道 橫城縣 古跡條에 기록되어 있는 「有狗出窟」과 관련이 있는 곳이며, 坊里條에 나오는 「外晴日里」가 바로 이 대관대리이다. 따라서 이미 『輿地圖書』에 「晴日」이라는 명칭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개나리→개인 날→晴日로 변형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시기는 『輿地圖書』가 편찬된 18세기 중엽보다 훨씬 전시대라고 할 수 있다. 횡성군에서 발간된 통계연보의 지명 설명이나 기타 자료에 “개나리”(개나오리)를 일제시대에 발음을 원용해서 “갠날” 즉 「晴日」로 표기하였다고 하는 바, 『輿地圖書』의 기록을 보건대 시기적으로 일제시대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대관대리는 1973년 7월 1일 행정구역변경시 청일면에서 갑천면으로 편입된 마을로 4개의 자연부락과 4개반이 있다. 거문매, 사기막, 삼배골, 물고개, 수내들 등의 지명이 있으며, 일제시대에 산에 굴을 뚫어 만든 대형수로가 있다.

■ 兵之坊里

兵無山, 台議山, 御踏山 사이의 골짜기에 자리잡고 있는 마을로, 橫城郡內에서도 가장 오지마을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큰 산의 골짜기에 자리잡은 마을답게 심산유곡을 이루고 있으며, 북방으로는 홍천군 동면과 경계를 이루고, 북동쪽으로는 청일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1973년 7월 1일 청일면에서 갑천면으로 편입된 마을로, 병지방 1.2리로 분리되어 있으며, 각각 3개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세동(공서울), 장승골, 새골, 늘목, 소학동, 묵해(먹해), 홍문터, 당거리, 곧은골, 산대리 등의 지명과 공근면 상동리로 넘어가는 뚝골재와 청일면 초현리로 넘어가는 밤골고개가 있다.

민 속 분 야

김 의 숙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I. 概 要

정조때 발간된 《輿地圖書》에는 횡성의 風俗에 대해 “효도가 지극하며 노인들을 공경한다. 농사일에 힘쓰며 訟事가 없는 고장이다(樹風敬長力農無訟)”고 하였다. 이제 이러한 미풍양속이 깃든 고장의 일부가 영원히 물속에 잠기게 되었다.

횡성 및 원주지역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갑천면 대관대리에 건설될 예정인 횡성댐은 1996년까지 완공할 계획인데, 1994년 9월 현재 아직도 준비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어서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갑천면은 청일면 소속이었다가 1973년에 편입된 대관대리를 포함해서 法定里 14개리, 行政里 20개리, 자연부락 65개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몰지역은 14개의 법정리 중 중금리·부동리·화전리·구방리·포동리·대관대리 등 6개리에 해당되며, 가구수는 260여호이다. 그렇다고 해당 마을이 다 수몰되는 것은 아니다. 중금리의 경우는 5개의 자연부락 중 한치재에 있는 마당재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관대리는 윗사기막골만 해당되는데, 그것도 댐의 아랫마을이라서 공사를 하기 위해 5가구를 이전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5가구가 실향민이 된 것이다.

이들 주민에 대한 보상문제는 94년 8월 현재 중금리·부동리는 해결, 구방리 일부와 포동리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1995년까지 수몰지역 전체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大를 위해 실향민이 된 주민들은 보상금문제가 해결되건 말건 시름이 많다.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돈이 적은 것 같아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더 받을 수 없을까해서 걱정이고, 또 어디로 갈까 하는 문제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

는다. 연로한 노인들이 대부분이어서 고향을 떠나기를 더 아쉬워한다.

대체로 이들의 행선지는 넷으로 구분한다. 자식들이 있는 춘천이나 서울 등의 외지파, 같은 생활권이면서 도시인 원주파, 고향에 해당되며 도시권에 가까운 횡성읍파, 그리고 수몰되지 않은 인근 지역에 집과 토지를 장만해서 죽는날까지 흠에 묻히겠다는 향토파 등이다.

그중에서 원주파가 제일 많고, 늙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인지 향토파는 많지 않다.

기나긴 세월 동안 주민들과 함께 풍상을 겪어온 여기 수몰지역은 이제 역사의 현장에서 일단 사라지게 된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서 만들었던 갖가지의 문화도 활동을 멈춘 채 영원한 동면에 들게 된다. 그러므로 생명이 완전히 꺼지기 전에 목소리와 숨결을 붙잡아두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여기서는 주로 民俗學的인 각도에서 의식주를 포함하여 생존에 직접 관계된 産業俗, 지명유래와 전설, 세시풍속, 통과 의례, 민간신앙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그 풍속사를 오래도록 남기고자 한다.

Ⅱ. 마을 現況

1. 大官垞里

대관대리 1반인 사기막골, 그것도 아랫사기막이 아니고 윗사기막에 댐이 생긴다. 댐은 윗사기막보다 600여m 위쪽에 축조된다. 윗사기막에는 5가구가 있었는데, 그곳이 댐공사와 댐을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공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 후 철거되었다. <사진 2> 윗 사기막골은 南宮씨가 世居하였는데 4집은 떠나고 1집만 150m쯤 아래쪽 산비탈에 천막을 치고 거주하고 있다. <사진 1> 그 집은 노부부가 사는데, 건설사무소 아랫쪽으로 매각하지 않은 임야가 800여평쯤 있어서 길목 좋은 미래의 관광지를 예상해서인지 그곳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다. 텃밭에 채소와 토종닭을 기르고, 산채를 캐는 것 외에는 생산업이 없어서 바깥노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여 돈을 벌어난다. 노부부에게는 도

회지에서 일가를 이루어 사는 자식들도 있다. 전화는 있으나 전기가 없다. 가장 큰 문제인 식수는 꿈에 계시를 받고 뒷산에다 샘을 파서 해결되었다.

2. 中金里

중금리는 83호 중에서 74세대가 수몰된다. 1·2·3반은 모두 수몰되고, 4반은 17호 중에서 고지대에 있는 2집만이 들어가지 않는다. 5반의 경우는 한치재에 있어서 수몰되지 않는다. 里 중에서 수몰되는 세대가 가장 많은 중금리는 5개의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명칭은 다음과 같다.

1반 - 탐둔지(아랫마을)

2반 - 군량골

3반 - 대문안

4반 - 짝바위

5반 - 마당재

중금리는 횡성읍에서 갑천면쪽으로 가는 지방도로에 있는 한치고개 넘어 도로 좌측에 위치한 마을이다. 일제시대에 시작하였으나 해방후에 완공한 중금저수지(한치저수지)를 지나서 조금 가면 지방도로 옆에 중금상회(사진 3)라는 잡화가가게가 있다. 거기서 좌측으로 꺾어 들어가면 중금리 2반인 군량골이다. 여기에 중금리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사진 4) 및 퇴락한 중금정미소가 있고, 뒤쪽으로 제지공장이 연기를 내뿜고 있다.(사진 5) 여기서 다시 桂川쪽으로 내려가면 시골교회치고는 규모가 큰 성결교회당이 있다.(사진 6) 다시 50여m 내려가면 계천에 이르게 되는데, 물 건너가 1반인 탐둔지이다. 8월의 1차답사 때는 다리가 없어서 물길로 갔으나, 9월의 2차답사 때는 16개의 드럼통에 돌을 담아서 2개씩 짝바위 세우고 그 위에 낙엽송 2,3개를 통채로 길게 묶어 올려놓은 다리로 건너갔다.(사진 8)

여기의 다리는 여름 장마철마다 떠내려가는데, 외지에 나갔다가 추석 때면 돌아오는 가족들과 자신들을 위해서 매년마다 세워 왔다. 금년에는 탐둔지의 주민 20여명만이

참여하여 가설하였다. 원래 다리를 놓을 때는 중금리마을 전 주민이 참여하여 첫날에는 다릿발등 나무다리 놓기에 필요한 자재를 준비하고, 다음날에는 모두 협조하여 다리를 놓았으나 금년에는 고향을 떠나야 하는 서글픈 심정 때문에 호응이 없어 탑둔지 주민들만이 설치하였다.

1반인 탑둔지는 1994년 9월말 현재 8가구 중 3가구가 이주하고, 5가구가 남아 있다. 5가구의 성씨는 정·김·명씨가 각 1명이고, 이씨가 2명이다. 김병현씨는 보상비로 논은 평당 2만원씩 쳐서 받았고, 또 가옥과 집터를 합해서 1,19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황성읍으로 이주할 작정인데, 집을 사고 남은 보상비를 잘 굴려 자식들에게 구박받지 않고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동춘씨댁은 살아있는 민속박물관 같다. 세탁기와 냉장고가 있는 집이지만, 그 옛날에 쓰던 물건들 곧 호야·떡메를 비롯하여 나무로 된 다음이돌과 굴뚝 등이 그대로 있다.<사진 10, 11, 12>

3. 釜洞里

가마골로 불리는 부동리는 중들에 있는 웃마을과 중금리쪽으로 있는 아랫마을로 되어 있다. 웃마을 23호, 아랫마을 9호가 모두 수몰된다. 마을입구에는 이미 움직이지 않는 부동리정미소가 있고, 계천에는 대관대리로 가는 돌다리가 있다. 그리고 아랫마을 들판에 서낭당이 있다.

4. 花田里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황성의 다른 명칭으로 橫川, 於斯買, 潢川, 花田 등이 있다고 하였다. 그중의 하나인 화전과 동일한 지명인 화전리는 버덩말(坪村)과 당뜨루 등 2개의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다. 계천 옆의 넓은 들판에 있는 마을이 버덩말, 산쪽으로 붙은 마을이 당뜨루이다. 당뜨루의 5가구를 포함한 30여호가 모두 수몰된다.

이 마을의 원철상(60세)씨는 아직 갈곳을 정하지 못했으나 자식들을 따라갈 생각은 없다고 말한다. 제비가 마루 위 서까래에다 집<사진 20>을 지으려고 하자 주인 원씨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귀찮다고 자꾸 쫓는다. 농약과 환경오염 탓에 벌레도 줄어서 제비

를 보기 어려운 세상인데 그래도 찾아왔으니 반갑지 아니한가.

옛날에 이곳은 花城郡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계천 건너에 있는 초등학교의 명칭도 花城으로 붙인 것이라는데, 고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5. 舊坊里

구방의 옛이름은 개풀이다. 넓은 구방뜰을 지닌 이 마을은 1·2리로 나뉘어 있다. 1리의 자연부락은 양지말·음지말·음곡(모재기)이고, 2리는 한치와 새말이다. 수몰은 1리만 되고, 2리는 되지 않는다. 총 68세대 중 49세대가 수몰된다.

중금리와 구방리의 경계인 개풀고개를 넘자마자 좌로 꺾어 200여m쯤 가면 계천강 벼랑위 출발에 인근의 노인회 회원들의 노력으로 세워진 花城亭이라는 정자가 있다.(사진 21,22)

이곳에는 화전들판이 그림처럼 아름답게 보인다. 화성정에서 다시 도로로 나와 포동 쪽으로 조금 가면 우람한 一字形 8작기와집이 보인다. 郡議員인 이복균씨의 가옥이다. 그 옆에도 큰 기와집이 있는데 이씨의 동생집이며, 집 안에는 정미소가 있다.(사진 18) 정미소 옆에는 화성노인정이 있다. 노인정 앞에는 노인회 회원들이

공 덕 기 념 비

갑천면 구방1리 박 치 정

귀하는 평소 지역사회에 큰 관심을 두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여 왔으며 경
로사상이 투철하여 화성노인정 건립에 대지를 무상으로 회사하여 어려움을 해
결해주셨으며 평소 본 노인정의 운영에 헌신적인 지원을 하신 공로가 크므로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본회 일동의 고마운 마음을 이 비에 담아 드립니다.

서기 1986년 3월 29일

황성군 갑천면 화성노인회 회원일동

1986년에 세운 '密城朴公稚廷頌德碑'의 비문이 뚜렷하다. 공덕비<사진 16, 17>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다시 포동쪽으로 조금 가면 도로 좌측 옆으로 운동장이 큰 학교가 있는데, 화성초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1946년 12월 12일에 개교하였으니 올해로 48회가 된다. 앞으로는 이 학교의 수많은 졸업생들이 옛 추억을 더듬어 보고자 하여도 찾을 수 없게 된다.

6. 浦洞里

포동리는 1·2리로 나뉜다. 자연부락은 1리에 고래골·저고리골<사진 24>·마무리가 있고, 2리에 아래구리뜰(下洞坪)·모재기·큰말(부영마을)<사진 23>이 있다. 포동 1리는 14호가 수몰된다. 고래골은 수몰되지 않고, 저고리골과 마무리가 각각 7호씩 수몰된다. 포동2리는 37호중 11호가 수몰되는데, 부영마을이 14호 중 7호, 모재기가 6호 중 4호가 수몰된다. 하동평의 21호는 가옥은 수몰되지 않으나 농지가 수몰된다. 부영마을의 남봉현씨택의 경우, 본체는 해당되지 않고 행랑채만 수몰지역에 편입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가옥은 3분의 1정도만 수몰되지만, 농지는 반수 이상이 수몰된다. 농촌이라서 집은 남아도 농지가 없으니 살 수가 없다고 한다. 포동2리의 이장인 박용팔씨는 다음과 같이 막막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제 환갑이 넘은 우리가 어디 작장에 갈 수도 없고, 소나 기르고 농사나 짓다가 힘이 닿는때까지 사는 것인데, 이 지역에 집이라도 지어서 살 수 있다면 좋은데 마땅치 않다. 돈이라도 넉넉한 사람은 어디서나 살 수 있지만 우리와 같은 영세민은 보상을 받아도 살기가 어렵다. 다른데 땅값이 비싸서 몇천만원은 돈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저 막막하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낫익은 고장, 내고향에서 살고 싶어도 내 마음이 그렇지 농토가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도 없다. 도시로 간다는 것은 늦은 일이고 농촌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만한 우리의 고향을 찾아갈 수가 없다.

Ⅲ. 地名由來와 傳說

황성담은 甲川이 있기에 생기게 되었다. 갑천의 본디 명칭은 桂川이다. 이것이 갑천이 되는데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전설이 있다. 삼한시대 말에 진한의 마지막 왕이라는 泰岐王이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와 일전을 겨루어 패하자 수많은 장졸을 이끌고 피난길에 올라 이곳을 지나던 중 덕고산(일명 태기산)에서 갑옷(甲冑)을 씻었다고 해서 계천을 갑내 또는 갑천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갑천면에 소속되어 있는 6개의 수몰지에는 갖가지의 지명과 전설이 여러 있다. 앞으로 물속에 잠기게 되면 실마리가 되는 실체를 볼 수 없으므로 이 지역의 이야기들은 더욱 빨리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마을별로 나누어 기록으로 남긴다.

1. 大官垓里

* 사기막골

사기를 굽던 초막이 있었다고해서 사기막골이라 한다.

* 御踏山

어담산은 수몰되지 않으며, 수몰지역의 鎭山 역할을 하는 背山이다. 높이가 790m에 이르는 이 산은 옛날에 태기왕이 손수 답사하고, 군대를 주둔시켰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

2. 中金里

* 塔屯地<사진 9>

신라말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3층석탑 2基(강원도 무형문화재 19호)가 있어서 붙은 지명이다. 탑의 기단에는 八部神像이 조각되어 있다. 동탑은 일제가 반출하려다가 냇가에 버린 것 옮겼고, 서탑도 심히 손상되어서 20년전에 해체해서 복원하였다. 전설에 의하면 여기에는 신라시대에 세운 거찰이 있었는데 도둑떼가 들끓어 관에서 불태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절이 하도 커서 스님들의 밥쌀을 씻은 물이 저 아래 세목다리까지 흘러내렸으므로 적군이 그것을 보고 쳐들어와 절을 태웠다고 한다.

＊ 軍糧골<사진 7>

군대의 양식을 마련하던 곳이다.

＊ 大門洞과 福星亭

중금리에는 대문동이라는 자연부락이 있는데, 동쪽과 북쪽에는 산이 둘러쳤고, 서쪽과 남쪽으로는 기름진 옥답이 펼쳐져 있어서 예로부터 富村으로 알려져왔다. 대문동은 400여년전 전국에서도 부자로 손꼽히던 陳央이라는 사람의 집터였다고 한다.

대문동은 그 부자집의 대문이 있던 곳이기에 유래한 명칭이다. 고루거각의 본채는 대문으로부터 무려 700여m나 떨어져 있었고, 본채와 대문 양편에는 하인과 노비들이 거처하는 집들이 줄지어 있었다. 정원에는 화단과 연목이 축조되어 있어서 봄부터 가을까지 주연과 유흥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주인은 대문동에서 약 5리정도 떨어진, 지금의 화성정 자리에 복성정이라는 별장을 세우고 시문을 짓거나 여가를 즐기었다. 그때는 300여명의 하인들이 집에서부터 일렬로 늘어서서 음식을 계주식으로 배달하였다고 하니 그 富와 위세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진앙은 성정이 온화하고 겸손하여 부자라고 해서 남을 깔보거나 억압하지 않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주 자선을 베풀었기에 존경을 받았다.

한편 호사다마라, 어느 정객이 진앙을 시기하고 그 재산을 탐하여 진앙이 陣王을 꿈꾸고 역모를 도모한다는 소문을 내어 퍼뜨렸다. 소문이 궁에까지 들어가자 나라에서는 그를 잡아 극형에 처하였다. 이렇게 되자 그 많은 재산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가문의 명예도 땅에 떨어졌으며, 웅장하던 집도 퇴락하고 말았다. 진앙의 하인들은 복성정 인근에 주인을 추모하는 '永世不忘碑'를 세우고 떠났다. 훗날 이 비석이 발견되었으나 관리 소홀로 다시 유실되고 말았다. 부동리 좌편 강가인 독지병은 옛날에 진앙이 낚시를 즐기던 곳이라는 전설만이 전해질 뿐 지금은 하상이 높아져서 낚시도 할 수 없는 곳으로 변했다.

※ 탐둔지湫

보가 탐둔지에 있다.<사진 13>

※ 구만이湫

원래 구만리로 부르던 곳에 보가 있기에 생긴 이름이다.

3. 釜洞里

※ 가마골

부동리의 자연부락 명칭은 가마골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유래가 있다. 하나는 옛날 화전에 화성군이 있어서 여기에 죄수를 가둔 감옥이 자리잡았기 때문이요, 둘은 풍수지리에 의할 때 마을이 마치 가마솥(釜)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중뜰

가마골의 들판을 중뜰이라 하는데, 옛날에 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절터가 감옥소가 되었다고 한다.

※ 생교골

부동리의 아랫마을과 중금리 경계에 鄉校가 있어서 생교골이 되었다. 현 황성읍의 향교는 여기서 옮겨간 것이라고 하나 분명치 않다.

※ 장독바위

부동리(가마골)에서 대관대리로 건너는 다리인 釜洞橋에서 약 50m쯤 되는 물속에 장독바위 곧 장독대로 썼다는 2평 남짓한 반석이 잠겨있는데, 이 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어려 있다.

옛날에 어떤 부자가 가마골(釜洞)의 장독바위에 큰 집을 짓고서 살았다. 그 집은 부자인 데다가 뒷산에는 좋은 약수가 있어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었다. 당시에 가마골에는 인가가 드물고 또 집들이 가난해서 나그네를 받을 수 없었으나, 그 집은 부자인데다가 인심도 좋아서 사람들이 각처에서 모여들었다. 그래서 이 부자집의 하인과 여자들은 손님을 접대하는 일로 눈코 뜰 사이가 없었다. 겨울을 제

외하고는 고통과 바쁨 속에서 살게 되니 지치고 짜증이 났다. 그러던 어느날 한 스님이 탁발을 왔다. 며느리가 시주는 얼마든지 할터이니 소원을 풀어달라고 하자 스님은 소원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래서 며느리는 약수와 손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손님들이 오지만 않게 해달라고 하였다. 스님은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손님은 들만 하니까 드는 것이니 재고하여 보라고 하였다.

며느리는 방법이 있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여 재고하고 말 것도 없이 방법만 가르쳐 달라고 졸랐다. 스님이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하자 며느리는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러자 스님은 다음과 같은 비방을 알려주고 떠나버렸다. 곧 “은밀히 개를 잡아 피를 약수에 뿌리고 개가죽으로 약수바위를 덮은 후에 쌀 3되3홉을 놓고 절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은 모두가 좋아하였다. 마침내 기회를 보아 며느리는 하인들에게 개를 잡게 해서 스님이 시킨 대로 하였다. 며느리가 개피를 약수에 뿌리고 바위에 개가죽을 씌운후 절을 하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일고 회오리바람이 무섭게 불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순식간에 부동천이 넘치고 독이 터져 검붉은 황토물이 마을을 덮쳤다. 산으로 피신한 며느리네 사람들은 곡식 하나 남기지 않고 농토가 씻겨나가고, 고래등처럼 웅장하던 집이 흔적없이 쓸려나가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비가 그친 후에 돌아와 보니 오로지 장독대로 사용하던 장독바위만이 물속에 잠긴 채 남아 있었고, 탐스럽던 곡식이 가득하던 농토는 자갈밭이 되어 있었다.

그후 이 가족은 어디론가 떠나버렸고, 과거사를 간직한 장독바위만이 남아 있으나 이제 는 이 이야기도 영원히 잠겨버리게 될 것이다.

4. 花田里

※ 花田

지금은 농경지가 되었지만, 옛날에는 이곳이 花城郡 자리라서 화전이라 한다.

5. 舊坊里

* 花城亭

400여년전 중금리 대문안골에 살았던 陳央이라는 이가 세웠다는 福星亭 옛터에다 화성친목회원 23명이 중심이 되어 세운 화성정은 옛이름은 花城 또는 花田에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한다. 이 정자는 1977년에 완공되었으나 이제 수몰될 운명이다.

6. 浦洞里

* 포동

작은 나무[浦口]가 있었다고 전한다.

* 뱃날개 잔등

옛날에는 물이 많아서 배가 넘나들었기에 그렇게 부른다.

* 구리봉

구렁이가 사라진 산이라고 해서 구렁이봉으로도 부르는 구리봉은 높이가 547m로 하동평 마을의 뒷산이다.

예전에 주민들이 농사철 가래질을 하기 위해 논에 물을 대고자 하였다. 그래서 桂川에 나가 沚를 막으려는데 어느 곳이 좋은지 의견이 맞지 않았다.

때마침 매일2리쪽에서 거대한 구렁이가 나타나 桂川을 건너 하동평을 지나 논밭으로 기어가서는 구리고개를 지나 구리봉으로 사라졌다.

이를 지켜보며 따라가던 사람들이 구렁이가 기어가며 남긴 자리에 왕겨를 뿌려놓고 그 흔적으로 보의 물길을 내어 물을 대니 논마다 풍년이었다.

그래서 그 들을 구리뜰(구렁이들), 구렁이가 넘어간 고개를 구리고개, 산을 구리봉(구렁이봉)이라 하였다. 지금의 보는 소나무가지 대신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나, 위치는 그때 그대로이다.

* 저고리골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고 저고리만 남겨두었다고 해서 생긴 지명이다. 옛날에는 이

곳에 절이 있었으나 없어졌고, 지금은 탑만 남아 있다. 매일리의 용성사는 거기에 있다가 옮겨왔는데, 그 탑을 옮겨오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그만두었다.

＊ 검두 색시골

호랑이가 검두에다 색시를 몰어다 놓고 해코지하였으므로 그렇게 부른다.

＊ 고래골

우천면 정금리에서 내려오는 골짜기가 무척 길기 때문에 고래골이라 한다.

＊ 마무리

정금리에서 고개를 넘어오면 마무리가 된다고 해서 생긴 이름인데, 지금은 수물지역의 끝마무리 마을이라 해서 신기하게 여기고 있다.

＊ 모재기

모래가 갯벌에 많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다.

＊ 下洞坪

갑천시장의 아랫마을이라 해서 하동이라 하였는데 본래 아래구리뜰 또는 구리뜰이다. 이곳은 “장작불에 이밥(쌀밥)을 먹는 데”라고 했을 정도로 농사가 잘 된다.

＊ 부엉바위

큰마에 있는 바위로 부엉이처럼 생겨서 그렇게 부른다. 그래서인지 부엉이도 자주 온다고 한다. 부엉바위의 이름을 따서 부엉마을이라고도 한다.

＊ 술泆

보를 소나무가지로 막아서 만들었기에 생긴 이름이다.

＊ 구리뜰 泆

큰 구렁이가 지나간 들판이 구리뜰이고, 지나간 자리가 보가 되어서 구리뜰보이다. 여기 계천에 흙물이 나면 구렁이가 용이 되어 올라갔다고 한다.

Ⅳ. 産業俗

1. 담배농사

이곳의 농가에서는 재배하기를 기피하는 잎담배를 지금도 더러 재배한다. 담배농사를 피하는 원인은 잎담배농사가 일년농사라고 할 정도로 일손이 많이 가는데다가 요즘 외국담배가 들어와 시장점유율이 갈수록 높아져서 우리의 것이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담배 취급에 어려운 점은 잎담배를 건조하는 일이다. 예전에는 불을 때서 말리는 재래식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일손이 덜 가고 관리가 쉬운 전기에 의한 기계설비로 건조시킨다. 재래식 건조장은 대개 흙벽돌로 된 2층이다. 흙으로 짓기 때문에 습기를 잘 제거하고 또 보온효과가 뛰어나나 나무로 불을 때야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스위치만 올려놓으면 저질로 모터가 돌아가 송풍하여 말려주는 기계설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재래식 건조장은 서서히 퇴락하고 있다.

그리고 농가에서는 고추를 말리는 방법으로 陽乾이라 해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놓고 햇볕을 이용하지만, 다량으로 빨리 건조시키고자 할 때는 역시 담배건조기와 같은 신식 기계장비를 사용한다.

담배농사는 대개 11월이나 12월께 묘판을 설치해서 씨를 뿌리고, 이를 비닐하우스에서 1달반 정도 지난 다음에 갈라 이식하며, 다시 달포가 지난 다음에 밭에 내는데 3월께가 된다. 이때부터는 농약치고 거름주고 온갖 정성을 다 들여 7월께에 수확한다. 그리고 1달 정도 건조장에서 잘 건조시킨 후 이를 찌서 출하한다.

2. 저수지

이곳은 계천이 있어서 보를 만들어 논에 물을 대었으므로 계천에 가까운 논은 물 걱정은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금리의 군량터처럼 계천에서 멀거나 지대가 높은 곳은 도움을 받지 못했기에 천수답에 해당하였다. 그래서 지금의 중금리저수지를 일제시

대에 시작했는데, 임금은 물론 밥도 주지 않고 강제노역을 시켰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어 다시 착수하여 건설되었다.

3. 湫

이곳은 물이 풍부하므로 水路를 만들어 계천의 물을 끌어들이어 농사를 지었다. 예전에는 주로 소나무가지로 막아서 만들었으나 지금은 콘크리트로 만든다. 중금리에는 담둔지보, 구만이보가 있고, 포동리에는 솔보와 구리뜰보가 있다.

4. 種牛

농가마다 개량 우량종자에 해당하는 한우를 기른다. 종우에는 모두 명패가 붙어 있다. 포동의 큰말에 사는 최원근씨댁에도 2마리의 종우가 있다. 새끼를 낳으면 官에서 어미는 8포, 새끼는 4포의 사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5. 횡성 牛市場

소시장을 비롯하여 횡성에 장이 서면 항상 걸어들었다. 갑천에서 횡성까지 40리, 구방리에서는 30리로 친다. 그래서 소장사꾼은 첫닭이 울기 전에 떠난다. 소몰이꾼을 채찍꾼이라 하는데, 밤새도록 소를 몰아 횡성읍에 이르러 마당에서 쇠죽을 먹인다. 그리고 우시장으로 끌고 간다. 우시장은 여전히 횡성에 있다. 옛 장소가 바뀌었으나 규모는 훨씬 커졌다.

6. 율무주

구방1리에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고 폐와 위를 튼튼하게 하는 율무주를 생산하는 양조가가 있다. 여기에서 양조하는 술의 상표는 의이인주(薏苡仁酒) 곧 율무주이다.

조선시대 현종때부터 전수되어온 비법으로 쌀가루·누룩·밀가루를 첨가해 100일

간 숙성시켜 만든 울무주는 알코올 농도 20~23%에 독특한 향과, 황갈색의 은은한 빛깔을 내고 있다.

순곡주인 관계로 화학처리를 한 시중의 양조주에 비해 한번 병마개를 따면 보관기간이 짧은 것이 흠이지만, 중풍·신경통·각기병을 예방하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 건강주이다. 그래서 예전에 궁중에서 애용한 술이라 한다. 가격은 700ml 유리병이 4천 원, 750ml 도자기병이 1만8천원이다. 참고로 말하면, 현재 유명한 안동소주(800ml 도자기)의 값은 2만5천원에서 3만원선이다.

V. 歲時風俗

1. 正月

* 설

정월은 1년의 시작이라서 세시행사가 가장 많은 달이다.

除夕에는 白眉俗 곧 새해를 맞이하는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희어진다는 풍속이 있어서 守歲하면서 元旦·元日이라는 정월 초하루를 맞는다. 초하룻날 아침에는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께 세배를 한다. 형제간에도 서로 세배한다. 이때는 서로 덕담을 주고 받는다. 옛날에는 선달 그림에 구세배도 다녔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차례는 집집마다 도시에서 귀향한 가족과 함께 메·떡국·만두 등으로 지낸다. 그리고 설빔을 차려입고 어른께 세배를 드리면서 서로간에 덕담을 나눈다. 이때 아이들에게는 세뱃돈이라 하여 절값을 준다. 자기집에서 세배를 마치면 이웃어른이나 친척어른을 찾아가서 세배를 드린다.

설날 새벽에는 4H청소년회에서 복조리를 돌리며, 각 집에서는 그것을 벽에 걸어둔다. 그렇게 하는 것은 본래 조리가 쌀을 걷어 올리므로 것처럼 재산이 불어나라는 뜻에서이다.

정초의 놀이로는 연날리기 · 옷놀이 · 널뛰기 · 줄다리기 · 햇불놀이 등이 있다.

연은 가오리연과 방패연을 많이 날렸다. 연날리기는 정초부터 보름까지 날리는데, 보름이 되면 말린 쭉 묶음에 불을 붙여 연줄에 매달아서 높이 올린 후 줄을 끊어 멀리 날아가게 한다. 그때 연에다가는 생년월일과 이름을 썼다. 그것은 일종의 액막이로서 그 연이 멀리 날아가면 그해는 무사하다고 믿었던 것이다. 또 연싸움이라는 것을 하였는데, 연줄에 사기나 유리가루를 먹여 연줄끼리 서로 엇갈리게 해서 끊어지도록 하여 끊기는 쪽이 지는 놀이이다.

옷놀이는 정월의 보편적인 동네놀이였으나, 지금은 가족단위의 놀이로 되어가고 있다. 옷놀이와 유사한 것으로 昇脚圖놀이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알지 못했다. 널뛰기는 여자들만의 놀이인데 요즈음은 이것도 보기가 어렵고, 종종 민속행사장에서 상금을 걸고 뛰는 것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이밖에도 일반적인 놀이로 노인층은 장기 · 골패 · 바둑, 젊은층은 화투놀이인 고스톱을 즐긴다.

줄다리기는 마을단위의 행사인데, 집집마다 각출한 짚으로 두세 가닥의 줄을 만들어 암줄과 수줄로 나누어 당겼다. 이긴 쪽이 풍년이 든다고 하여 필사적으로 당겼다. 이때는 아이들과 여자들, 여자와 남자들끼리도 서로 상대가 되어 줄을 당기는 곳도 있는데, 여자 대 남자의 대결에서는 여자쪽을 이기게 해준다. 그렇게 해야 풍요원리인 여성의 陰氣가 昇하여 풍년이 든다고 믿은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마을에 젊은이들이 없어 행하지 못하고, 운동회때나 군청이 주관하는 향토축제때에 더러 행하거나 구경할 수 있을 뿐이다.

* 上支日

정월의 첫 쥐날인 上子日에는 이날 방아를 찧으면 쥐가 없어진다고 해서 부인들이 방아를 찧었다. 또 쥐불이라 하여 논밭둑에다 불을 놓는데, 역시 쥐와 해충을 없애기 위함이다. 요즈음도 이때가 되면 불을 놓기 때문에 들녘에 연기가 자욱하다.

정월의 첫 토끼날인 上卯日에는 무명실을 짜서 옷을 지어입으면 장수한다고 하여 부녀자들이 배를 짜서 서로 교환하였는데, 이때의 실을 命絲라고 한다.

지금은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보기가 어려우나, 정월의 첫 용날인 上辰日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우물에 가서 간밤에 하늘에서 용이 우물 속으로 하강하여 낚는다는 용알을 뜨는 '용알뜨기'라는 물뜨기를 행하였다. 이물로 밥을 지어 먹으면 그해의 농사가 잘 된다고 한다. 그리고 먼저 우물을 길어 간 사람은 그 표시로 우물 속에 지푸라기를 조금 띄워 놓았다.

정월의 첫 뱀날인 上巳日에는 머리를 빗지 않았는데, 그것은 빗질을 하면 뱀이 들어온다는 속신 때문이다.

아마도 머리털이 많이 빠지는 철이어서 건강 및 위생상의 배려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봄의 시작이라는 입춘은 음력으로 12월에 들기도 하고 혹은 정월에 들기도 하는데, '立春大吉' '建陽多慶' 등의 입춘연을 붓글씨로 써붙였으나 지금은 그렇게 하는 집이 없다.

* 대보름

보름 중에서도 정월 보름을 대보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해에 처음 맞이하는 만월이 뜨는 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민속행사가 이날에 전개된다.

14일 밤에 동네아이들은 집집으로 밥을 얻으러 다녔다. 그리고 달맞이를 하면서 소원을 빌고, 쥐불돌리기를 한다. 중금리에서는 아랫마을(1·2반)과 윗마을(3·4반)이 편을 갈라 불싸움을 하였다. 삼을 벗겨낸 삼대나 싸릿가지를 묶어서 햇불을 만들어 그것으로 불을 지르고 마구 두드렸다. 그래서 옷을 태우는 경우도 있었다. 불싸움은 윗마을이 드셨기 때문에 항상 아랫마을이 졌다.

보름날 아침에는 耳明酒라는 술을 마셨다. 이는 귀가 밝아진다는 뜻에서 비롯하였다. 또 밤·호두·은행·잣 등 곧 '부름'이라 칭하는 굳은 껍질의 과실들을 깨물고 "일년열두달 편안하고, 부스럼과 종기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면 부스럼이 생기지 않고 치아도 튼튼해진다고 하여 부름을 깨문다.

이날은 오곡밥이나 약식을 해먹고, 반찬은 陳菜食이라 해서 평소에 말려둔 고사리·

호박고지·가지·무시래기 등을 삶아서 양념을 하여 먹는다. 이날 소에게는 먹이를 주지만, 개에게는 낮에 굶기고 달이 뜨는 저녁에야 먹이를 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름에 파리가 피고 마르기 때문이라는데, 이로 인해 굶은 사람을 비유하여 “개 보름 쇠듯한다”는 속담이 생겼다.

보름날에는 식전에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 그가 대답하면 “내 더위 사라”고 하는 더위팔기를 한다. 옛날에는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나무가지를 둥그러니 휘거나 왼새끼를 꼬아 개나 소의 목에 걸어줌으로써 가축들이 더위나 병에 걸리지 않게 하였다.

어른들은 이날 저녁에 높은 곳에 올라가 소원을 빌며 달을 보는 ‘달맞이(望月)’를 하였다. 남보다 먼저 보아야 좋다고 해서 앞을 다투어 올라갔다. 그러나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들을 위해 순서를 양보하기도 하였다.

이때는 보름달의 상태 여하로 풍년의 길흉을 판단하는 달점을 쳤다. 곧 달빛이 붉으면 가뭄이 있고, 희면 비가 많아 흉년이고, 빛이 진하고 사방이 두터우면 풍년이라는 것이다.

한편 마을의 洞神祭도 이때에 제일 많이 행사한다. 생기복덕이 맞는 사람으로 제주와 유사를 선정하여 금기를 지키고, 자정이 지나면 서낭이나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마을의 평안과 가가호호의 무사를 위해 소지를 올린다. 또 이날은 마을의 농악대가 乞粒을 다니면서 그 집의 地神을 밭아준다. 이때 주인은 돈이나 곡식을 내놓는데, 그것은 농악대 유지비나 경로당 건축기금 등으로 사용된다.

＊ 귀신날

음력 정월 16일(혹은 14일)은 귀신날이다. 이날에는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가 지면 대문간에서 냄새가 독한 목화씨·고추씨·머리카락 등을 태운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신을 엮어놓거나 아예 방안에다 들여놓는다. 또 체나 삼태기를 기둥에 걸어놓기도 한다. 신을 엮어놓는 것은 귀신이 신을 신어보아 맞는 신발 임자가 불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 체나 삼태기를 걸어놓는 것은 귀신이 수많은 구멍을 세어 보다가 틀리면 다시 세고 하다가 첫답이 올면 그냥 돌아가는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 머슴날

2월 초하루를 머슴날 또는 일꾼의 날이라고 하여 머슴을 쉬게 하고 잘 대접하였다. 중금리에서는 이날 아홉그릇의 밥을 주고 쉬게 하였다. 특히 이날에는 '나이떡'이라 하여 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집안식구의 나이나 나이만큼 백미를 손가락으로 떼서 떡을 만들었다. 지금은 머슴을 두고 농사짓는 집이 없어서 이 풍속도 사라졌다.

* 쯔생이날

음력 2월 6일은 昴星인 쯔생이의 날로서 쯔생이가 이날 달의 앞뒤에 서는 것을 보아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 쯔생이가 달과 나란히 가거나 쯔더 앞서 있으면 흉하고, 반대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길하다는 것이다. 곧 떨어져있는 것은 먹을 것이 많아 천천히 가도 굶을 염려가 없기에 풍년이요, 가까이 있다는 것은 빨리 가야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흉년이라는 것이다.

* 영등절

영등은 2월 초하루에 왔다가 15일에 승천한다는 風神이다. 영동지역은 바람이 거세기 때문에 영등을 위하는 제의가 성하나, 이 지역은 내륙이어서 풍신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다. 이는 환경이 신앙을 만들어내는 한 예이기도 하다.

* 驚蟄

우수가 지나고 경칩이 되면 새싹이 돋고 미물들의 활동이 시작되는 때이니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다. 옛날에는 이날에 흙일을 하면 탈이 없고, 빈대나 잡벌레가 없어진다고 하여 흙으로 담을 쌓거나 벽을 발랐다.

3. 三月

* 삼짚날

음력 3월 3일을 삼짚날 또는 삼짚이라고 하고, 제비가 오는 날이라고 한다. 지금은 농약때문에 벌레가 없어서 제비도 잘 오지 않는다. 그리고 오는 제비도 집을 지으면 지저분하다 해서 쫓김을 당한다.

삼진날에는 산야에 꽃이 피기 때문에 진달래잎을 따서 찹쌀가루 반죽에 넣고 기름에 지져 花煎을 만들어 먹고, 천렵을 한다. 이날에는 화전 외에도 검은떡을 해서 머리를 깎은 아이들에게 먹였는데, 그렇게 하면 검은 머리카락이 난다고 한다. 아이의 머리를 깎을 때 제비초리가 있는 아이는 장수하라고 깎지 않는다. 스님도 이날에 머리를 깎는다.

한편 이날에 날아다니는 노랑나비와 호랑나비를 보면 길조이나, 흰나비를 보면 부모상을 당한다는 속설이 있어서 흰나비를 꺼리는 습속도 있었다.

* 寒食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서 음력 2월에 들기도 하고 3월에 들기도 한다. 본래 한식과 청명에는 묘소에 砂草를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三九不動塚’이라 하여 3월과 9월에는 묘를 건드리지 않는다. 따라서 2월 한식에는 사초를 하지만, 3월 한식에는 사초를 하지 않는다.

* 穀雨

이때가 되면 못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범씨를 담그고 솔가지로 덮어 놓는다. 예전에는 밖에 나갔다가 상가에 들르거나 부정한 것을 보고 오면 집앞에다 불을 놓아 부정을 가시게 한 다음에 들어왔다. 부정한 몸으로 범씨를 보거나 만지게 되면 싹이 트지 않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4. 四月

* 초파일

부처의 탄생일인 초파일은 신라의 팔관회에서 발단하여 정월 대보름에 거국적으로 행해지던 고려의 연등회로, 조선시대에 초파일로 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중의 축제로서 전승되어 왔다. 사찰과 신도의 집에는 수박등·연화등·일월등과 같은 다양한 등을 매달고 축하하였다. 이날에는 신자가 아니라도 사찰에 가서 등을 구경하고 법요식에 참여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이날에 주로 덕고산에 있는 봉복사, 포동과 매일리 사이에 있는 용성사, 원주에 있는 구룡사, 충북의 구인사 등으로 불공하러 간다.

* 영갈

농사에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거름이다. 그래서 거름이 되는 떡갈나무잎을 베는 행사가 있었다. 이른바 영갈이라 해서 面山이나 群山에 있는 갈을 베는데, 날씨가 지정되면 그날은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리다가 일찍부터 갈을 꺾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존속했던 이 행사는 강원도 산촌 농가의 어디에서나 있었으며, 마을사람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주고자 마을의 이장이나 어른이 날을 잡아 명령을 내려야만 꺾을 수가 있었다. 영갈이 시원치 않을 때는 '버들모'라 하여 버드나무 햇순을 5cm정도로 작두로 썰어 못자리에 뿌렸다.

5. 五月

* 端午

4대 명절의 하나로 수리·天中節·重五節 등으로 부르는단오에는 節日茶禮를 지내고, 쑥떡이나 취떡(수리취떡) 또는 미니리적을 부쳐 먹었다. 그리고 약쑥캐기·그네뛰기·창포에 머리감기·대추나무 시집보내기·익모초즙 내먹기·씨름하기 등 여러 행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차례를 지내지 않고, 약쑥캐기·그네뛰기·씨름하기·대추시집보내기 등의 행사가 간혹 있을 뿐이다.

약쑥캐기는 약효가 가장 많은 때라 해서 단오날 새벽에 캔다. 쑥잎에 묻은 이슬이 증발하기 전에 뽑아 막걸리를 뿜어서 그늘에 말린다. 이것을 다려서 산후에 산모의 몸을 씻거나 酒滯및 쑥뜸의 재료로 사용한다. 또 모기가 많은 원두막에서 이 약쑥을 피워 벌레들을 쫓는다.

그리고 단오날 저녁에 이 지역의 처녀와 부인들은 상추에 내린 이슬을 채취하여 분처럼 얼굴에 발랐다. 이렇게 하면 피부가 고와진다는 것이다.

6. 六月

※ 流頭

유두인 6월 보름에는 '유두잔치'를 벌였다. 이날에 마을사람들은 음식을 장만하여 물가로 가서 머리를 감고 음주를 하면서 하루를 시원하게 보냈다. 이렇게 하면 더위를 먹지 않고, 재앙도 면한다고 여겼다. 또 이날에는 집집마다 국수·수단과, 조·벼·콩 등의 곡식 및 수박·참외와 같은 새로 난 과일을 사당에 바치고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流頭薦新을 행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유두풍속도 사라지고, 아는 사람마저 없다.

이 지역의 풍속으로, 이날에 비가 오면 다래와 머루가 다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주워다가 술을 빚는다.

※ 三伏

하지로부터 셋째 剛日을 初伏, 넷째 강일을 中伏, 입추로부터 첫째 강일을 末伏이라 하는데, 여름철 중에서 가장 더운 때를 이르는 것이다. 이날에는 폭서를 피하여 물가나 계곡으로 가서 천렵을 하거나 개장국을 먹는다. 이 개장국은 보신탕·영양탕·사철탕이라 하여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도 복날만이 아니라 수시로 먹는 세태이다. 복날에는 개장국 대신에 닭에다 인삼·대추와 참쌀을 넣고 푹 삶은 蔘鷄湯을 먹기도 한다.

7. 七月

※ 七夕

7월 7일을 칠석이라 하는데, 이날은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번 만나는 날이어서 반가워 울고 또 이별함에 울기 때문에 비가 온다고 한다. 이날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꺼린다. 아마도 그것은 비가 두 神格의 생식력인 雲雨之情의 상징이므로 비가 오지 않으면 그들의 초자연적인 생식력이 농작물을 감염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여긴 때문일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장마에 습기가 서린 집안의 옷가지들을 내다 말린다.

예전에는 이날을 '칠석받이'라 하여 메를 짓고 떡을 해서 조상제사를 지내는 집이

많았다.

이날의 시절음식으로는 호박을 기름에 지진 호박도래전이 있었다. 이것은 기름냄새를 풍겨야 집안이 편안하다는 데서 비롯하였다. 아이들은 소나무의 송진을 꺾처럼 씹었다. 그리고 파리열매를 따서 바늘로 구멍을 내고 속을 살살 꺼낸 다음 공기를 불어넣고서 이로 눌러 빠드득하는 소리를내는 ‘파리불기’를 즐겼다.

※ 百中

7월 보름을 百種·百中·中元이라고 한다. 이날에는 온갖 음식을 갖추고 즐겁게 노는데, 씨름과 장치기를 즐겼다. 사찰에서는 과일과 나물을 백가지(百鍾)로 갖추어 부처께 재를 올린다. 또 신도들은 부처와 스님에게 공양을 올림으로써 조상의 영혼을 천도할 수 있다고 해서 백중기도를 드리고, 물고기를 놓아주는放生에도 참여한다.

※ 호미씻이

강원도에서는 “간간 5월, 미끈 6월, 어정 7월, 건들 8월”이라는 말이 유행한다. 이것은 5월은 일이 많아 간간하게 보내고, 6월은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게 미끈하게 흘러가고, 7월은 농한기이므로 별로 하는 일 없이 어정어정하면서 보내고, 8월은 추수가 시작되므로 밭을 동동 구르면서 보내다 보니 쉽게 건들건들 간다는 데서 비롯한 말이다.

농가에서는 ‘어정 7월’의 절기인 백중이 되기 전에 호미씻이를 하는데, 이것은 이미 논밭의 김을 다 매었기 때문에 호미를 쓸 일이 없으므로 씻어서 놓아둔다는 뜻에서 유래하였다. 이날 머슴에게는 광목적삼을 만들어 입히고 용돈을 주었다. 마을에서는 그해의 농사가 가장 잘된 집의 머슴을 선정하여 머슴대장으로 삼고 황소에 태워 축하해 주었으며, 집집마다 잘 차려내온 음식으로 머슴들을 먹이고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하였다.

8. 八月

※ 秋夕

추석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옷으로 갈아입고, 햇곡식으로 빻은 송편과 술 및 과일로 상을 차려서 조상님께 차례를 지낸다.

그리고 묘소로 가서 역시 간단한 음식을 올리고 배례를 한다.

저녁이 되면 친척과 이웃끼리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윷놀이를 하거나 뒷간에 올라 달구경을 한다. 추석날 밤에 달이 없으면 토끼가 수태를 하지 못하고, 메밀이 결실을 맺지 못하며, 구름이 끼어도 흉년이 든다고 해서 꺼렸다. 만일 이날에 비가 오면 보리가 흉년이라고 한다.

추석에는 대체로 2~3일간을 쉰다. 이때에 농악대가 있는 마을에서는 농악을 치며 즐긴다.

9. 九月

* 重陽節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간다는 중양절은 重九 또는 重陽으로도 부르는데 특별한 행사는 없었다. 간혹 단풍구경을 하거나, 국화꽃잎을 따서 찹쌀가루와 반죽하여 국화전을 만들어 먹는다. 이것은 봄철의 진달래전과 함께 독특한 계절음식이다. 또 국화잎을 술에 담구어 국화주를 만들어 마시는데 그 향기가 일품이라 한다.

10. 十月

* 상달(上月)

예로부터 시월을 1년 중 가장 좋은 달이라 하여 상달이라 불러온다. 그것은 농사가 끝나는 수확의 계절이므로 신에게 감사하며 그해의 햇곡식으로 떡을 만들어 바치는 달이기 때문에 생긴 명칭이다. 지금도 안택고사를 드리는 집이 많은데, 어떤 집에서는 경을 읽는 사람을 불러다가 시루떡을 올리고 제사를 지낸다.

한편 시월은 겨울이 시작되는 달이어서 立冬의 날씨를 보아 겨울날씨를 점친다. 달이 완전히 진 후에 날이 새면 그해는 춥지 않고, 반대로 달이 아직 남아 있는데 날이 새면 그해 겨울은 춥다고 한다.

무겁질이 두꺼우면 겨울이 춥고, 얇으면 따뜻한 것으로 안다. 지금은 굴껍질로 판단하기도 한다. 또 이달에는 겨울 동안 먹을 김장을 담구어 울밑을 파고 묻는다.

※ 時祭

상달에는 時享이라 하여 역대의 조상에 기리는 시제를 지낸다. 시제는 5대 이상의 조상이 있는 가문의 후손들이 모여서 시월초에 지낸다. 시제의 비용은 位土의 수입에 의존한다.

만약 위토가 없는 경우에는 염출하여 충당한다. 시제가 끝나면 그자리에서 문중회의를 개최하는데, 이 회의에서는 門中事와 위토의 수입·지출을 결산하고 새해의 사업을 논의한다.

11. 十一月

※ 冬至

예로부터 4대 명절의 하나로 치는 동지에 요즈음도 더러 동지차례를 지내는 집이 있으나, 대체로 팔죽을 쑤어 먹는 유품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팔죽은 팔을 삶아 으깨거나 체에 걸러서 그 물에다 찹쌀로 새알만큼씩의 단자를 만들어 넣고 죽을 쑀다. 이 단자를 '새알심' 또는 '웅심이'라 한다. 팔죽을 먹을 때는 나이수 대로 웅심을 먹는다.

예전에는 팔죽을 쑤어서 우선 사당에 차례를 지낸 다음 방·마루·광에다 한그릇씩 떠다 놓았다. 그리고 대문이나 벽에다 수저로 뿌리고서 먹었다. 뿐만 아니라 외양간에 도 뿌려 소의 건강을 기원하였다.

이것은 팔죽이 붉은 색이므로 액을 물리쳐준다는 데서 비롯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변질된 의미이다. 팔죽을 조상이 계시는 사당에 바치고, 또 家神들이 있는 마루나 방에도 떠 놓고 대접하는 것이라면, 대문·벽 등이나 외양간에 뿌리는 팔죽도 사실상 거기에 있는 신들에게 나누어 대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것은 바로 '고시례'와 유사한 의례이다.

그런데 대체로 애동지에는 팔죽을 쑤지 않는다. 동지는 절기에 따라 11월 중순 이후에 드는 때도 있어서 전자를 애동지라 하고, 후자를 中동지 또는 老동지라고 부른다. 애동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팔죽을 쑤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동짓날에 丙寅日과 같이 간지로 丙자가 들면 병동지라 하여 역시 팔죽을 쑤지 않는다. 丙이 病과 동음이기 때문이다. 마을에 질병이 발생해도 팔죽을 쑤지 않는다.

12. 十二月

＊ 臘享

예전에 나라와 관아에서는 동지로부터 3번째 末日을 납일로 정하고 그해 농사의 형편에 따라 종묘와 사직에 제사를 지내던 풍속이 있었는데 이를 납향이라 한다. 臘이란 사냥하여 잡은 짐승으로 선조께 제사지내는 것을 이른다.

이 지역에서는 이때에 산돼지·토끼·꿩 등을 잡아 겨울철에 허약하기 쉬운 양기를 보충한다.

＊ 除夕

선달 그믐날을 제석이라 하는데, 이날은 送舊迎新하기 때문에 守勢한다. 그래서 제석에 집을 자면 눈썹이 센다는 白眉俗이 생겼다. 예전에는 그믐차례를 지내고, 1년간의 보살핌에 감사하는 舊歲拜를 다녔으나 지금은 다 없어졌다.

또 선달 하순이 되면 조왕이 집안의 모든 일을 옥황에게 보고하기 위해 승천하는 것으로 알아서 집안이 조용히 근신하고, 곳곳에 촛불을 밝히어 조왕을 맞을 준비를 하었다고 한다.

13. 閏月

윤달은 납은달 또는 썩은달이라 하여 평소에 꺼려서 하지 못하던 일을 해도 무방한 달로 알려져 있어서 여러가지 일을 시행한다. 이를테면 집 고치기·수의 만들기·묘지 손보기 등이다. 이 지역에서도 이 풍속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결혼식도 이때에 하면 좋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하는 사람도 있다.

Ⅵ. 通過儀禮

1. 產育俗

해산달이 가까이 오면 집안의 어른이 장에 가서 질이 좋은 미역을 값을 깎지 않고 산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꺾어 집지 않고 둥글게 말아서 가져온다. 이렇게 해야 아이의 명이 길고, 산모가 허리를 앓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미역을 가져올 때도 부정이 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상제와 같이 오면 아이가 늘 운다고 한다. 아이가 울면 밥·물·무를 한데 섞어서 삼신께 빈다. 아이를 낳으면 미역국을 끓여 삼신에게 바치고 먹는다.

부동리 중들에 사는 마을 이장인 원용범(60세)씨택은 삼복더위에 경사가 났다. 며느리가 아들을 낳은 것이다. 병원에서 낳았으나 3일만에 집으로 돌아와 몸조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대문에도 금줄을 쳤다.〈사진 15〉원새끼에 붉은 고추와 송침을 각각 7개씩 달았는데, 7일간 매달게 된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아들이면 고추, 딸이면 송침 곧 술가지(소아리)를 매단다. 중금리에서는 거기에 보태서 검댕이 곧 솥을 매달기도 한다.

금줄은 친 것을 보고도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면 아기에겐 동티가 난다. 곧 경도가 있는 여자가 들어오면 아기가 황달기가 있는 누르베기가 되고, 상제가 들어오면 밤새도록 운다.

태의 처리는 지금은 병원에서 알아서 하지만, 예전에는 태를 왕겨에 묻고 태웠다.

아기를 데리고 외출할 때는 아기가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 영사(약)를 눈썹 가운데에 바른단. 아기를 데리고 외가에 갈 때는 이마에 검댕이칠을 하고 간다. 또 고추나 쇠똥을 지니고 간다. 이렇게 하면 귀신이 붙지 않고 명이 길어진다고 한다. 외가에 도착해서도 곧장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변소에 잠시 들렀다가 나온다.

귀신은 귀하게 여기는 것에 잘 붙기 때문에 천동이로 인식시키고자 함이다.

아기가 쌍가마일 경우에는 친정에서 술이나 술가락을 훔쳐온다. 이것은 아이가 커서

장가를 2번 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 보리를 뽑아다가 떡시루 밑에 넣고 찌서 먹이 기도 한다.

백일에는 반지를 선물한다. 돌에는 돌상을 차리고, 상 위에 국수·쌀·돈·연필·공책 등을 놓는다. 그리고 아이가 집는 것으로 아이의 운명을 점치는 돌잡이를 한다.

아이가 태어나 10살까지는 삼신이 키우고, 그 후는 칠성신이 무병장수하게 한다고 한다.

2. 婚禮

현재 농촌의 총각은 혼인하기가 어렵다. 여자들이 일이 많은 농촌으로 시집오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에 사는 조선족 여자를 택하여 결혼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 못하다. 우선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가, 결혼을 하고서는 돈을 벌려고 도회지로 도망을 가버리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든 총각이 많다.

요즘은 모두 예식장에서 신식결혼식으로 한다. 이 지역에서는 횡성이나 원주로 가서 한다. 그리고 간단히 신혼여행을 다녀온다. 제주도에 다녀오기도 한다.

옛날에는 혼인을 하고자 하면 먼저 의혼의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혼인이 약정되면 신랑측에서 신부측에 사주를 써서 보낸다. 그러면 신부측에서 초례를 치를 날짜를 잡아 신랑측에 보낸다. 혼인날이 오면 신랑은 가마꾼과 함께 신부네 마을로 간다. 가마는 계속 타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들어갈때만 잠시 탄다.

신랑이 초례를 치르고, 신방을 차린다. 날짜를 보아 그날로 가기도 하는데, 신방을 차릴 경우 신부의 친척이나 이웃의 부인들이 신방지키기를 한다. 신방에는 쌀·물·돈이 든 식기 혹은 빈 식기를 소반에 차려놓는데, 신랑이 그것을 집는 것을 보아 앞을 예견해 보기도 한다. 쌀과 돈이 들어 있는 식기를 열면 부자로 잘 산다고 한다.

신부는 다음날 가마를 타고 시댁으로 新行간다. 신부의 가마가 시댁에 이르면 대문 처만치 앞에 피워놓은 불 위로 가마채로 넘어간다.

이때 바가지를 깨거나 총을 쏘기도 하고, 소금을 뿌리거나 목화씨를 태우기도 한다.

그것은 신부를 따라온 귀신을 쫓기 위함이다.

신부의 가마가 들어올 때 시어머니는 장독을 끌어안기도 한다. 이는 며느리가 말대답을 앓고 잘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뜻이다.

신부는 시집에 와서 사흘이나 열흘까지 밥하기 전에 몸단장을 하고 시부모께 반절을 올린다. 3일후 아침에 소당을 만지며 “내 손은 무쇠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릇을 깨지 않게 된다. 또 며느리에게 여름적삼을 속에다 입히고 그 위에 저고리를 입히는데, 그것은 시원시원하게 시집살이를 잘 하라는 뜻이다.

신부는 두달이나 석달 혹은 1년농사를 지은 후 친정에 근친간다. 이때 엿을 고고, 인절미와 흰떡을 해서 가져간다.

또 새댁이 직접 만들거나 이웃의 도움을 받아 친정식구의 버선을 만들어 간다. 그때 신랑은 동네 청년들에게 신랑다루기(東床禮)를 당한다. 보름 내지 한달 정도 머물다가 돌아올 때는 갈 때와 마찬가지로 선물로 이바지를 가져온다.

예전의 시집살이는 맵고도 매웠다.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는 인내와 덕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거기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포동리에서 채록하였기에 기록해 둔다.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돌을 주면서 “돌을 놓 안에 넣어두었다가 돌이 말을 하거든 말을 하거라. 그 이전에는 절대로 말을 하지 마라”고 하였다. 딸은 이를 명심하고 계속 귀를 기울였으나 단 한마디도 하는 법이 없었다.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나도 돌이 말을 하지 않으므로 며느리도 3년간이나 말을 하지 않았다.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병어리라 하여 신랑더러 친정에 데려다주고 오라 하였다. 그래서 친정으로 가던 중 꿩이 푸드득거리는 것을 본 신부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저 꿩을 잡아가지고 갑시다”고 하니 신랑이 깜짝 놀라 다시 시댁으로 데려왔다. 며느리는 잡아온 꿩을 구워서 잠자코 시댁 식구들 앞에 놓고 다음과 같이 읊으니 이를 들은 식구들은 모두가 탄복하였다.

이 다리 저 다리 걷던 다리는 서방님 잡숫고

이 가슴 저 가슴 썩던 가슴은 이 내가 먹고
이 주둥이 저 주둥이 놀리던 주렁이는 시어머니 잡숫고
이 나래 저 나래 덮던 나래는 시아버님 잡숫고
이 꼬리 저 꼬리 치던 꼬리는 시누이 잡숫소.

3. 喪禮

* 臨終

최후가 가까와지면 가족에게 알려져 임종에 참여하게 한다. 지금은 하지 않으나 예전에는 곡(哭)을 하였다.

* 訃告

상이 나면 친척, 친지들에게 부고를 낸다. 근년에는 부고를 신문에 내거나 전화로 알려주지만, 예전에는 한지에다 붓으로 써서 인편으로 일일이 돌렸다. 그때 부고는 상주가 아니고 護喪의 이름으로 낸다. 이 부고를 받으면 마을사람들은 쌀 1되씩을 가지고 와서 돕는다.

* 招魂

사람이 죽으면 초혼을 한다. 집안의 어른이나 이웃이 죽은이의 이름을 부르고 “속점 삼 가져가시오. 북·북·북.”하고 외치면서 옷을 지붕에다 던진다. 지금은 옷을 던지지 않기도 한다.

* 殮襲

사람이 사망하면 시신을 목욕시키고 손톱을 깎는다. 이어서 삼베옷으로 갈아입히고 7매듭을 맨다. 이것을 염습이라 한다. 이렇게 모셔놓고 장례기간 동안 조문을 받는다. 이 지역의 장례는 3·7·9·10일장이 있는데, 주로 3일장을 치른다. 7·9일장으로 하는 집도 가끔 있다. 9일장의 경우에는 빈 행상을 지고 다니며 친척집마다 술을 다 해 놓게 하고 그 술을 다 걸러야 지냈다고 한다. 그때는 한데에다 빈소를 마련하고 상제들이 시간마다 곡을 하였다.

＊ 發鞠

상여에 관을 신고 행렬이 집을 떠나는 것을 발인이라고 한다.

잘사는 집에서는 장례를 치르기 하루전에 상두꾼들이 미리 발을 맞추어 보는 '대돈음'을 하였다.

이 지역에는 마을마다 상여가 있다. 평소에는 곳집에 넣어두는데, 36명이 매는 큰틀과 16명이 매는 작은틀이 있다.

지금은 대개 간소하게 하느라고 작은틀을 사용한다. 포동리의 저고리골에는 36명이 매는 상여가 있으나 맬 사람이 없어 16명이 매는 것으로 다른 마을에서 빌려다 쓴다. 지금은 상여의 동아줄을 광목으로 매지만, 예전에는 마을사람들이 모여 종일토록 새끼를 틀어서 땀다. 상여의 재질도 예전 것은 나무이지만, 지금은 프라스틱이다.

상여가 나가면 맨 앞에 4명의 方相氏가 두 사람 선다. 흑색과 적색의 옷을 입은 이들은 커다란 가면을 쓰고 칼춤을 추기도 한다.

방상 다음에는 명정과 공포가 따른다.

상여 바로 앞에는 혼백을 실은 腰輿라는 작은 가마가 선다. 그리고 상여 뒤로 상주 등의 服人이 상복을 입고 따르고, 그 뒤로 평복을 한 조문객이 따른다.

관을 내갈 때는 귀신이 붙지 말라고 하여 바가지를 깨고 나가거나 도끼로 문지방을 찍고 나가기도 한다.

또 어떤 집에서는 상여가 나갈 때 체로 곱게 친 잿가루를 밑에 놓는다. 그렇게 하면 죽은이가 무엇으로 환생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곧 채에 새의 발자국이 있으면 새로, 구렁이가 지나간 자국이 있으면 뱀으로, 사람 발자국이 있으면 사람으로 환생한 것으로 믿는다.

예전에는 상여를 모실 때 요령잡이가 상여 앞에 서서 요령을 흔들면 꼭 3번을 받고서야 상두꾼들이 상여를 출발시켰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 법을 따르지 않고 요령을 흔들기만 하면 그냥 떠난다.

상주가 상여를 따를 때 부친상에는 대나무지팡이, 모친상에는 버드나무지팡이를 짚는다.

※ 下棺

장지에 이르면 상여에서 관을 묘로 옮긴다. 그리고 광중으로 관을 내린다. 이를 下棺 또는 下柩라고 한다. 하관할 때는 두가지 방법 곧 관채로 묻는 방법과 관을 파기하는 破棺이 있다. 이곳에서는 파관하지 않고 관채 하관한다. 하관한 후에는 횡대로 덮고 회를 다진다. 회를 다질 때는 저승길이 멀다더니 달궁달궁 혹은 달구달구 하면서 '회다지'를 부르며 달구질을 한다.

이때에는 달구질을 잘 해달라는 뜻에서 달구막대기의 새끼에 돈을 끼워 준다. 회다지가 끝나면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平土祭를 지낸다.

※ 返魂

장사를 끝내고 산소에서 돌아와 지내는 의식을 반혼제 또는 返哭이라고 한다. 장사를 마치고 귀가할 때에 상여는 분해하여 매고 오지만, 혼백은 腰輿에 봉안하여 모시고 온다. 요여 뒤에는 상주가 서열에 따라 뒤따르며 집에 이를 때까지 곡을 한다. 요여가 돌아올 때는 다른 길로 오는 곳도 있으나, 이 지역에서는 반드시 상여가 갔던 길을 택하여 돌아온다. 반혼은 정결한 곳에 모시고 살아있는 조상처럼 위한다.

요즈음은 100일 탈상이 일반적이나, 예전에는 부친은 3년상, 모친은 3년상 혹은 1년상을 치루었다. 모친상의 경우는 부친보다 먼저 돌아가시면 1년상, 나중에 돌아가시면 후살이 간다고 하여 3년상을 치루었다.

4. 祭禮

장례를 마치고는 虞祭를 지낸다. 우제는 지하에 묻힌 영혼이 안착하지 못하고 방황할 것을 염려하여 그 혼을 위로하려는 의미의 제사이다. 그것은 3회로서 산소에 가서 지내는데, 곧 初虞·再虞·三虞祭이다. 삼우제는 장사 지내고 3일후에 지내는 제사이다. 이것이 끝나면 절에 가서 49제를 지내는 집도 있다. 그리고 해마다 忌祭祀를 지낸다. 4대 위에 조상은 時享으로 모신다.

VII. 民間信仰

《輿地圖書》에는 황성의 전통신앙 제단을 다음과 같이 밝혀놓고 있다. 곧 현의 서쪽 3리에 사직단, 동쪽 3리에 文廟, 북쪽 3리에 성황당, 남쪽 3리에 여제단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 향교에 있는 문묘를 제외하고는 찾을 수가 없다.

근래 우리 사회에서는 서구의 과학사상과 실용주의 그리고 외래종교의 유입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은 물론이고 전통적인 민간신앙도 설 자리를 잃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민간신앙은 노인들만의 차지가 되어 겨우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여기 수물지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찰이나 교회에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이 매우 종교적인 성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 노인들만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 데서 비롯한 것이라.

수물지역에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충북 단양의 구인사로 간다. 또 청일면의 덕고산에 있는 鳳腹寺나, 포동과 매일리 사이에 있는 龍盛寺(천태종)에 간다. 용성사는 포동의 저고리골에 있던 사찰이었는데, 1984년에 관음성전을 짓고 이전하여 왔다.

중금리에는 교회가 하나 있다. 구방리에는 천주교와 교회가 각각 하나씩 있다. 화전리와 부동리에 사는 교인들은 그곳에 교회가 없어서 구방리의 교회로 온다. 포동리에도 교회가 없다.

민간신앙은 크게 마을신앙과 가정신앙으로 나눈다. 전자는 서낭신·산신·천신 등에 대한 신앙이요, 후자는 家神인 성주·조왕·터주·삼신 등에 대한 신앙이다. 이들 신앙에 대한 제의는 전자가 洞祭, 후자가 安宅祭로 나타난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 가신에 대한 신앙은 거의 사라지고, 동제는 미미하나마 명맥을 잇고 있다. 동제는 오히려 마을보다 관청이 주관하는 큰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례로 행해지고 있다. 가정에서도 특정한 가신을 위하기 보다는 자연적 종교심성에 의지하는 기대심리에서 禁忌나 豫兆와 같은 자연신앙이 지배적이다. 이 지역의 신앙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동제를 지내는 마을도 극소수이고, 가신도 성주신을 제외하고는 사라져갔다. 따라서 이 부문은 자연히 과거사에 관한 기록이 주류를 이룰 것이나, 여기에서

는 현존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기술하고자 한다.

1. 서낭信仰

탐둔지에는 서낭당이 있는데, 대관대리와와 경계에 있다. 화전리와 구방리의 서낭당은 새마을운동때 없어졌다. 포동1·2리에도 서낭당이 있었으나 농지정리때 없어졌다.

(1) 부동리 서낭제

부동리는 과거에 독재봉에서 山神祭를 지낸 적이 있으나, 현재는 서낭제만 지낸다. 서낭당<사진 14, 25, 26>은 스테이지봉의 목조건물인데, 아랫마을 들판 한가운데에 오래된 당목과 함께 서있다. 당 안에는 '城隍之神位'라고 쓴 위패를 모셨다. 서낭신에 대한 설화는 없다.

부동리 사람들은 마을의 안과태평, 풍년, 무병장수, 자손번창, 마을의 단합과 질서유지를 위해 음력 1월 3일을 기해서 서낭제를 지낸다. 제일이 다가오면 생기복덕에 맞추어 제관과 도가를 선정한다. 이때 서낭당과 제관·도가의 집에 원새끼로 된 금줄을 치고 금기하게 한다. 제관은 비린 음식을 금하고, 부정한 것을 보지도 않는다. 제사에 대한 모든 업무는 이장이 주관한다. 제의 비용은 성의껏 낸 추렴으로 하되, 거기에 맞추어 제사를 준비한다. 제수는 돼지머리와 시루떡 및 오색실과와 술이다. 제사에는 제관을 중심으로 7~8명이 참여하는데, 여자는 음식을 만들 때는 참여할 수 있으나 제사 때는 끼지 못한다.

제의는 먼저 향을 피우고 재배한 뒤에 축문을 읽는다. 讀祝이 끝나면 다시 재배한 뒤 축문을 불사른다. 다시 재배한 후에 개개인의 소지를 올려준다. 소지가 끝나면 제사상을 거두고 음복한다. 음식은 모두 나누어 먹고, 남으면 나누어 가져간다.

(2) 중금리 서낭제

중금리에서는 매년 음력 4월 4일에 서낭제를 지낸다. 제일이 다가오면 10일전에 생기복덕을 맞추어 제관과 도가를 선정하고 금기를 지킨다. 도가와 제관의 집, 그리고 서낭당<사진 27, 28>에 금줄을 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 제사일 밤이 되면 다만 3인

만이 도가에서 만든 제수인 돼지머리·떡·복어를 가지고 서낭당에 간다. 그리고 마을의 태평과 풍년을 축원한다. 축원이 끝나면 마을사람 모두의 소지를 올린다. 잘 오르지 않을 때에는 3번까지 올려주고, 그래도 안되면 그 집에 조심하라고 당부한다.

2. 山神信仰

이곳에서는 산신에 대산 제사를 山祭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산제는 마을의 공동제의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산에 가서 빌고 또 이사갈 때도 미리 고하고 가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 삼척지역에서 전승되는 '산맥이'에 해당한다고 보겠다.

산제를 드릴 때는 미리 산에 올라가 구리봉의 소나무에 금줄을 쳐서 부정을 금한다. 제사 때는 정성을 다해 만든 제수인 시루떡과 복어포를 올려놓고 비손한다. 부정이 탄 제수음식으로 인한 설화를 채록하였기에 여기에 기록한다.

며느리가 산에 치성을 드리려고 복어를 준비해 두었는데, 시어머니가 모르고 눈을 빼먹었다. 그런 사실을 모른 며느리가 산에 올라가다가 뱀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마음에 꺼렸으나 무시하고 올라갔다. 메를 짓는데 이번에는 빨간 개미들이 오물오물 줄지어 오르내렸다. 아무래도 언짢았으나 그냥 내려가기가 위해서 빌기를 시작했으나 자꾸 말문이 막혔다. 이상한 느낌이 와서 눈을 떠보니 저쪽에서 빨간 눈알 2개가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호랑이였다. 끝끝내 빌다 못빌고 포기하고 집으로 내리뛰었다. 집에 와 그 이야기를 전하니, 시어머니가 사실을 말하였다.

그런일이 있고부터 치성드릴 음식에는 일체 손을 대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3. 祈雨祭

날이 가물면 포동리에서는 마을사람들이 덕고산의 용소로 가서 돼지를 잡아 그 피를 바위에 칠하였다. 그러면 부정한 피를 씻기 위해 곧 비가 내렸다고 한다.

한편 여자들은 계천으로 나가 키를 뒤집어 쓰고 물을 뿌리면서 물싸움을 하였다.

4. 성주 信仰

家神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었어도 여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성주이다. 어느 집이나 차례를 지낼 때 차례상 옆에 성주상을 놓는다. 성주는 집안을 관장하는 主神이기 때문이다. 성주는 북어를 광목에 묶어서 서까래나 선반에 매단다. 제사는 10월에 안택고사로 드린다. 이때에는 떡을 시루채로 상에 올려놓고 비손을 한다. 떡은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 제일은 주로 날을 받아서 정한다. 성주를 모실 때 터주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5. 돌(石)信仰

이 지역에는 독특한 가정신앙이 있는데, 그것은 집안의 큰 재산인 소의 건강과 번창을 위해 구멍이 뚫린 돌을 외양간의 기둥에다 매다는 것이다.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개천이나 들에 나가 구멍이 평 뚫어져 있는 돌을 주워서 그 구멍에 끈을 끼워 외양간에 걸어놓는데, 어느 집은 그런 돌을 2~3개나 걸어놓기도 한다.〈사진 30〉

전통적인 민간신앙에서 돌은 생식의 에너지를 지닌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그래서 바위에다 빌었고, 가루를 내어 마셨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여성적인 돌을 통해서 생식력을 증대코자 한 것이고, 또 병액과 여성적인 것의 合— 곧 陰과 陽의 相生을 도모코자 한 의례로 생각된다.

6. 禁忌

산에서 토종벌을 받을 때면 쌀을 양재기에 넣고 콩을 놓는다. 그리고 동전도 놓는다. 벌을 받는 날에 만약 외부인이 들어오게 되면 다음날 가져가더라도 옷이나 수건을 반드시 벗어놓고 가야 한다.



사진 1. 황성댐 공사 현장 사무소(윗사기막골)



사진 2. 윗사기막골 황성댐 공사장
(없어진 집터를 바라보는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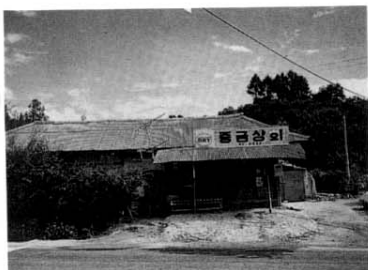


사진 3. 중금리 중금상회



사진 4. 중금리 사무소 및 노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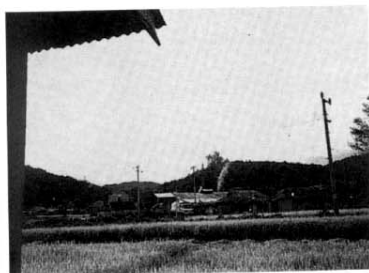


사진 5. 중금리 제지공장



사진 6. 중금리 교회



사진 7. 중금리 군량터 농가



사진 8. 탐둔지 나무다리



사진 9. 탐둔지 마을



사진 10. 탐둔지 농가



사진 11. 장독대(탐둔지)



사진 12. 나무굴뚝(탐둔지)



사진 13. 탑둔지 보(湫)



사진 14. 부동리 서낭당



사진 15. 금줄(부동리)



사진 16. 송덕비 전면(구방리)



사진 17. 송덕비 후면(구방리)



사진 18. 화성정미소(구방리)



사진 19. 화성정에서 본 화전리



사진 20. 제비집 (화전리)



사진 21. 화성정 건립 기념비



사진 22. 화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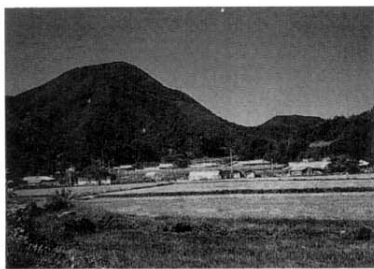


사진 23. 포동리의 부영마을



사진 24. 포동리의 저고리골 마을



사진 25. 부동리의 서낭당



사진 26. 부동리 서낭당 내부



사진 27. 중금리 서낭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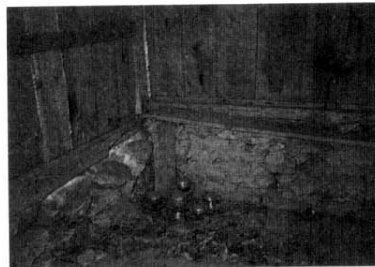


사진 28. 중금리 서낭당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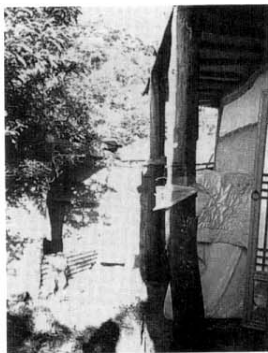


사진 29. 나무굴뚝(포동리의 저고리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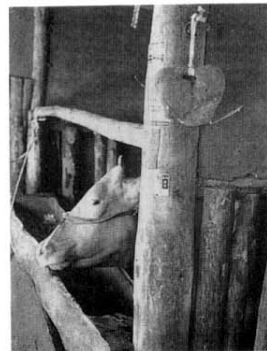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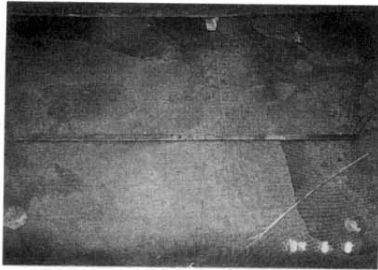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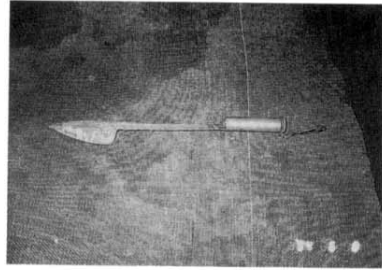


사진 30. 외양간과 구멍 뚫린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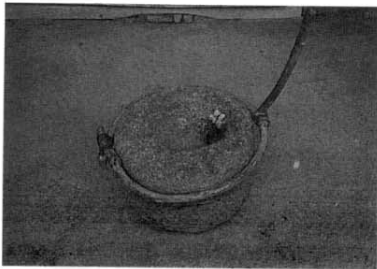
생활기구 및 농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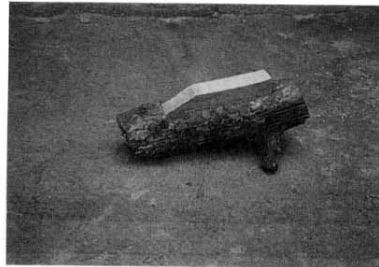
대나무자(부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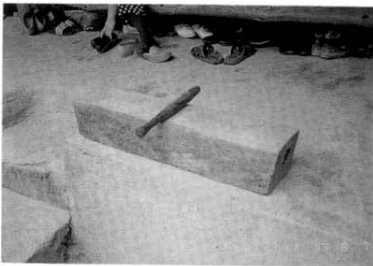
인두(부동리)



맷돌(화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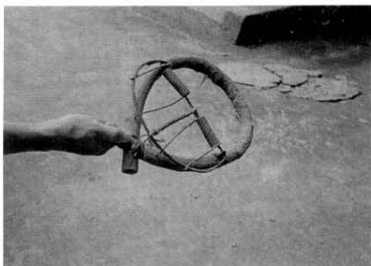
숫돌(화전리)



나무 다듬이대와 방망이(중금리 탐둔지)



떡메(중금리 탐둔지)



넛-창애(포동리 부영마을)



탈곡기(부동리)



새끼틀(부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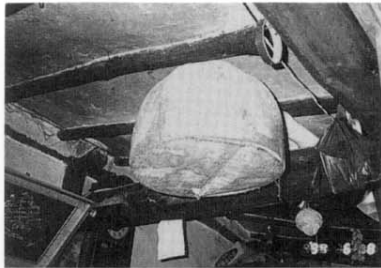
톱(부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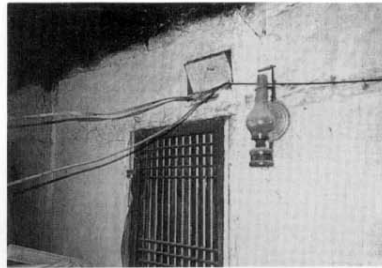
작두(부동리)



농기구(포동리 부영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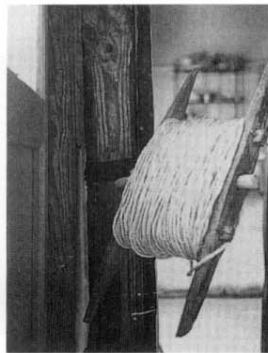
모자보관통- 천정에 매달림(부동리)



환기통과 남포등(중금리 탐둔지)



석쇠와 떡살(포동리 저고리골)



줄감기틀(포동리 저고리골)



씨아(부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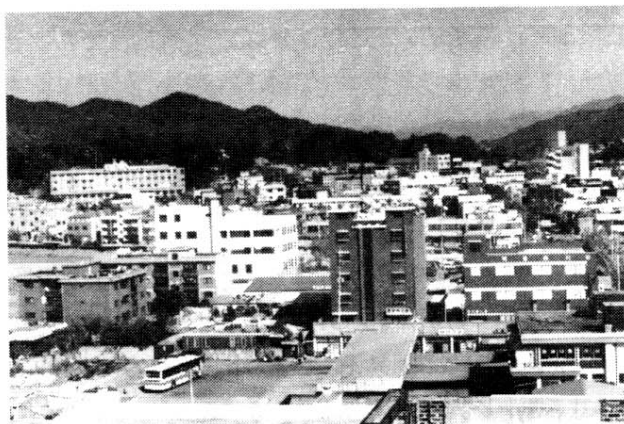


장기관(부동리)

어사매 (제13호)

Ⅲ. 横城의 郷土史

研 究 文



橫城 地方에 口傳되는 傳來童謠 研究



정 재 영

I. 들머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문제
3. 연구의 범위

II. 몸 말

1. 전래동요의 채집
2. 전래동요의 내용

3. 전래동요의 형식

4. 전래동요의 표현기교
5. 횡성지방의 전래동요 특질

III. 끝맺음 말

IV. 바라는 말

* 참고 문헌

* 부록(횡성의 전래동요 모음)

1. 들머리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우리는 現代를 가르켜 제3의 산업혁명시대 혹은 과학적 기술혁명의 시대라 부른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한 산업사회는 인간의 문명에 대한 두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인간을 物質的, 時間的으로부터 해방시켰으며 다른 하나는 산업사회의 강력한 支配體制에 의해서 인간의 行動양식과 思考方式이 操縱 당하고 있어 인간 本然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밀물처럼 밀어 닳치는 외래문화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요즘 무분별한 외래문화의 수용 및 남용으로인해 옛부터 우리들 핏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던 조상들의 얼과

슬기가 담긴 우리만의 전통문화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의 보존과 창달은 그 어느 것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전래동요는 서민들의 情과 恨이 서리설킨 庶民文學의 독보적 존재이다. 이러한 전래동요가 국제화시대, 개방화시대의 거센 물결속에서 외래문화에 침식당해 오늘을 사는 우리들 모두에게서 점차 멀어져 가고 빛이 바래져 가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어릴 때 체험이 각 개인의 인격형성에 지극히 중대한 영향을 끼치며 어린 시절 부모나 교사로부터 받은 문학교육이 일생을 두고 그 사람의 人生觀이나 世界觀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비취 볼 때 황성지방에 口傳되는 傳來동요를 발굴하고 文書化시키며 한걸음 더 나가 황성에 사는 아동들에게 전래동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줌은 이땅에 살던 조상들의 열과 슬기를 오늘에 되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밝힌 바 처럼 황성 지방에 구전되는 전래동요를 採錄 정리하여 문서화 하고 채록 된 동요를 기초로 전래동요의 내용, 형식, 표현기교를 연구 분석하고 황성 전래 동요만이 갖는 특질을 다른 지방의 전래동요와 比較 分析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研究는

첫째 황성지방의 전래동요는 어떤 노래들이 얼마만큼 지금까지 전래되고 있는가?

둘째 황성지방의 전래동요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셋째 황성지방의 전래동요는 표현방법이 어떠 했는가?

넷째 황성지방의 전래동요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다섯째 황성지방의 어떤 특질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점을 갖고 출발해 연구에 임하였다.

♣ 전래동요 채록 방법: 황성9개 읍면에 거주하는 아동과 성인들을 직접 대면해서 채록, 문헌을 이용한 황성 지방의 전래 동요 발채

3. 연구의 範圍

본 연구는 연구자가 1980년부터 1996년 까지 채록한 황성군 관내 9개 읍·면에 口傳되는 전래동요와 신경림¹⁾의 〈한국전래 동요집〉, 鄉土誌 〈황성군지〉²⁾, 〈강원도지〉³⁾, 〈황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⁴⁾ 에 수록 된 황성지방의 전래동요만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Ⅱ. 몸 말

1. 전래동요의 채집

1) 전래동요의 수집 상황

표1) 전래동요 수집 상황

수 집 대 상	아 동	성 인	문 헌	계
수집편수(%)	56(54.9%)	32(31.37%)	14(13.72%)	102(100%)

위 분석표에서 보듯이 본 연구자가 채집한 황성지방의 전래동요는 모두 102편이었으며 채집대상자는 아동에게서 56편(54.9%), 성인에게서 32편(31.37%), 문헌에서 14편(13.72%)을 각각 채집하였다.

전래동요를 부르는 계층이 주로 아동이어서 채집 된 전래동요의 편수도 전체 전래동요중 과반수를 넘었으며, 성인들에게서 채집한 동요들은 대부분 역사가 오래 된 동요들이 많았다.

또한 문헌에서도 황성지방의 전래동요를 14편이나 만날 수 있었는데 이 노래들은 대부분 유희요 형태였다.

1) 신경림, 〈한국전래 동요집〉, 창작과비평사, 1984.

2) 황성군지 편찬위원회, 〈황성군지〉, 황성군, 1986.

3) 강원도지편찬위원회, 〈강원도지〉, 강원일보사, 단기 4292년

4) 강원향토문화연구회, 〈황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원문화사, 1995

2. 전래동요의 내용

1) 전래동요의 素材와 主題

표 2) 형성의 전래동요(대상편수:102편)

차례	傳來童謠名	素材 및 主題상의 分類		기능상의 분류
		素材	主 題	
1	고모네집	고모집	친척간의 화목	인간생활 노래(生活謠)
2	동무동무 새 동무	친구	우정	"
3	사랑하는 아줌마	아줌마	친척간의 우애	"
4	사랑하는 언니야	언니	형제애	인간생활 노래
5	엄마 엄마 나 죽거든	어머니	어머니를 사모함	(生活謠)
6	쫓겨가는 며느리	며느리	가족간의 우대	"
7	엄마 생각	어머니	어머니를 기다림	"
8	꼬마 신랑	신랑	가족화목	"
9	사촌 형님	시집살이	시집살이의 고달픔	"
10	우리 엄마	어머니	엄마의 나들이	"
11	동무	친구	우정	"
12	돌아가신 엄마	어머니	어머니를 사모함	"
13	어깨동무	친구	우정	인간생활 노래(生活謠)
14	비야 비야	비	비오기를 기원함	자연의 노래
15	샘물	샘물	깨끗한 물 얻기	(自然謠)
16	달아 달아	달	효도	"
17	해야 해야	해	자연과의 친화	"
18	까치야 까치야	까치	이가 빨리 나길 바램	새(鳥)노래, (動物謠)
19	티 꺼내기 노래	까치	눈의 티 꺼내기를 바램	"
20	따운 따운 참새야	참새	어머니를 그리워 함	"
21	황새야 황새야	황새	자연과의 친화	"
22	떡해먹자 부엉	부엉이	먹을 것에 대한 동경	"
23	핑핑 핑서방	핑	핑을 놀려줌	"
24	피꿀냉 피꿀냉	피꼬리	피꼬리 예찬	"
25	가재와 개구리	가재, 개구리	자연과의 친화	"
26	넝넝 너구리야	너구리	너구리를 놀림	"
27	쥐야 쥐야	쥐	동물 사랑	짐승과 물고기 노래
28	꿀돼지	돼지	많이 먹는 아이 놀림	"
29	아가리 딱딱 벌려라	미꾸라지	자연과의 친화	"
30	두껍아 두껍아	두꺼비	자연과의 친화(먹이)	"
31	두껍아	두꺼비	자연과의 친화(새집 타령)	"
32	알나라 콩콩	잠자리	잠자리 알 낳게 하기	"
33	아침방아 찻라	방아개비	자연과의 친화	"
34	잠자리통 파리통	잠자리	잠자리 놀리기	"

차 례	傳 來 童 謠 名	素材 및 主題상의 分類		기능상의 분류
		素材	主 題	
35	잠자리 꿈자리	잠자리	잠자리 꺾이기	"
36	나무하러 가세	나무하기	근로의 보람	일노래(勞動謠)
37	호미질 노래	호미질	농사일의 고달픔	"
38	배짜기 노래	배짜기	시앗에 대한 질투	"
39	시집살이 노래	점심준비	농촌 아낙의 분주함	"
40	소몰이 노래	겨릿소 부림	발갈이의 흥겨움	"
41	소몰이 노래	호릿소 부림	발갈이의 흥겨움	"
42	가랑잎 떠벌떠벌	가랑잎	자연과의 친화	나무풀 꽃의 노래
43	가랑잎 때굴때굴	가랑잎	자연과의 친화	(植物謠)
44	할미꽃 할머니	할미꽃	딸을 기다리는 모정	"
45	장다리는 한철이요	장다리미나리	자연의 성장 모습	"
46	때굴때굴	도토리	도토리의 가치	"
47	꽃 사세요	장미	꽃의 미학	"
48	뽕대기 노래	뽕대기놀이	즐거운 뽕대기 놀이	놀이노래(娛樂謠)
49	미니미니 미니뽕	놀이	즐거운 가위바위보 놀이	"
50	동대문을 열으라	대문 열기	재미있는 대문놀이	"
51	개미 삼촌	삼촌	재미있는 술래잡기 놀이	"
52	우리집에 왜 왔니	꽃찾기 놀이	꽃찾기의 즐거움	"
53	감자에 씹이나고	가위바위보놀이	재미있는 가위바위보 놀이	놀이노래(娛樂謠)
54	깡통의 보리밭은	방귀놀이	방귀놀이의 즐거움	"
55	강강 술래야	술래잡기	즐거운 술래잡기 놀이	"
56	달려라 기차	기차놀이	즐거운 기차놀이	"
57	풀뜯 말아라	풀잎말기 놀이	재미있는 풀잎말기 놀이	"
58	때굴때굴 땀때굴	술래잡기 놀이	재미있는 술래잡기 놀이	"
59	딱딱 붙으라	돌맹이 씹	재미있는 돌맹이 씹 놀이	"
60	도래미파 뽕	방귀놀이	방귀놀이의 즐거움	"
61	똥고라미똥고라미	그림그리기놀이	그림그리기 놀이의 재미	"
62	세세세	기러기	재미있는 손뼉치기	"
63	꼬마야 꼬마야	줄넘기 놀이	줄넘기놀이의 흥겨움	"
64	여우야 여우야	여우놀림 놀이	재미있는 여우놀림 놀이	"
65	이거리 저거리	다리빼기 놀이	다리빼기 놀이의 흥겨움	"
66	엄마밥이 더 많니	쌀 이는 놀이	쌀 이는 놀이의 즐거움	"
67	오니아 오니아	줄넘기 놀이	줄넘기 놀이의 즐거움	"
68	때때 말러라	물건말리기	물건말리기 놀이의 재미	"
69	여보 여보 당신은	줄넘기 놀이	줄넘기 놀이의 재미	"
70	자동차 놀이	자동차 놀이	자동차 놀이의 즐거움	"
71	뽕돌기 노래	뽕돌기 놀이	즐거운 뽕돌기놀이	"
72	공치기 노래	공치기 놀이	즐거운 공놀이	"
73	춘향아 춘향아	춘향이 놀이	흥미있는 춘향이 놀이	"
74	꼭꼭 숨어라	숨기장난	숨기장난의 재미	"

차 례	傳 來 童 謠 名	素材 및 主題상의 分類		기능상의 분류
		素 材	主 題	
75	대문놀이 노래	대문 놀이	재미있는 대문놀이	"
76	수박따기 노래	수박따기 놀이	재미있는 수박따기 놀이	"
77	방뽕이점 노래	방뽕이점 놀이	방뽕이점의 재미	"
78	올베이 째베이	잘우는 아이	잘우는 아이를 놀림	놀림과익살의 노래
79	고바우 영감이	영감	영감 놀리기	(해학, 풍자요)
80	친구들	친구	나무간 친구 놀리기	"
81	순이 아버지	순이 아버지	흠연하는 사람을 놀림	"
82	시골 처녀가	처녀	시골처녀 놀리기	"
83	옛장사 똥구멍은	옛장수	옛장수 놀려주기	"
84	원숭이 똥구멍은	원숭이	원숭이 놀려주기	"
85	앞니빠진 갈가지	이빠진 아이	이빠진 아이 놀리기	"
86	하늘천 따지	훈장	훈장 놀려주기	"
87	중중 까까중	까까중	뽀뽀 머리 놀리기	"
88	밀가루 반죽	중국, 미국인	중국, 미국인 놀리기	"
89	에비시디 강낭콩	강낭콩	강낭콩 놀려주기	"
90	일러라 찢러라	고자질장이	고자질장이를 놀림	"
91	새는 새는 냉개자고	엄마품	아기 잠 재우기	자장 및 아기달래는
92	시상달강	아기	아기 달래기	노래 (자장요)
93	자장 자장	아기	아기 잠 재우기	자장 및 아기달래는
94	등개 등개 등개야	아기	아기 달래기	노래 (자장요)
95	만약에 인절미가	인절미	인절미에 대한 노래	음식의 노래
96	쌈먹고	쌈	이웃과의 도타운 정	(生活謠)
97	엄마야 아빠야	돼지고기	돼지고기를 먹고싶은 마음	"
98	새볶아 먹기 노래	새고기	새고기를 먹고 싶어함	"
99	장난감 기차요	과자사탕	사탕에 대한 동경	"
100	형님상	음식상	형님께 음식 대접하기	"
101	공부시켜 주세요	중학교 진학	중학교 진학의 열망	인간생활노래
102	웃놀이 노래	웃놀이	즐거운 웃놀이	놀이노래

♣ 分類 基準

- ◆ 동요의 분류는 임동권의 <민요연구> 분류기준과 신경림의 <한국전래동요집>을 참고 함.
- ◆ 동요의 제목은 본 연구자가 내용과 소재를 참고하여 임의로 붙였음.

표 3) 전래동요의 기능상 분류

차례	전래동요 내용	편수	백분율	비 고
1	놀이 노래 (오락요)	31	30.39%	대상편수 : 102편
2	인간생활 노래 (생활요)	14	13.72%	
3	놀림과 익살의 노래 (해학요)	13	12.74%	
4	일 노래 (노동요)	6	5.8%	
5	자장가와 아기 달래는 노래 (자장요)	4	3.9%	
6	자연의 노래 (자연요)	4	3.9%	
7	동물들의 노래 (동물요)	18	17.64%	
8	식물들의 노래 (식물요)	6	5.8%	
9	음식에 대한 노래	6	5.8%	

가) 전래동요의 기능상 분류

채집된 전래동요 102편을 임동권의 <민요연구>와 신경림의 <한국전래동요집>을 참조하여 기능상 분류를 해 본 결과 위의 분석표 3)의 결과가 나왔다.

결과를 해석해 보면 놀이 할 때 부르는 놀이 노래가 31편으로 (30.39%) 가장 많았으며, 동물들을 노래한 동물요가 18편 (17.64%)으로 두번째로 많았고 인간생활을 노래한 동요가 14편, 해학요가 13편으로 비교적 많았으며 일 할 때 불렀던 노동요와 식물요, 음식요가 각각 6편씩이었으며 자장요와 자연요도 각각 4편이 채집되었다.

나) 전래동요의 소재

표4) 전래동요의 소재

소재	놀이	인간	동물	식물	음식물	자연물	노동	기타	계
편수	31	28	19	7	6	4	6	1	102
%	30.39%	27.45%	18.62%	6.8%	5.8%	3.92%	5.8%	0.9%	100%

황성지방의 口傳되는 전래동요의 글감 즉 소재를 살펴보면 위의 표 4) 에서도 볼 수 있듯이 102편의 전래동요 중 兒童들의 놀이를 素材로 한 동요가 31편(30.39%)으로 가장 많았고, 人間을 소재로 한 전래동요가 28편, 동물들을 소재로 한 전래동요가 19편, 식물을 소재로 한 동요가 7편, 음식물을 소재로 한 동요가 6편, 노동을 소재로 한 동요가 6편, 기타 동요가 1편으로 고른 소재가 황성지방의 전래동요로 쓰였음을 알 수 있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전래동요 자체가 아동의 생활 속에서 아동의 삶의 모습들을 노래한 것이라 그에 따른 동요의 소재도 아동들의 놀이, 부모 형제, 친척, 동무들, 인간생활을 노래 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요즘같이 아동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현대문명의 이기들이 없던 때라 自然을 벗삼아 자연과 하나가 되는 自然謠가 많이 불리어졌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전래동요의 주제

표5) 전래동요의 주제

主 題	人間愛	놀이의 즐거움	해학과 풍자	自然과의 親和	노동의 힘들
해당편수	21	31	13	31	6
%	20.58%	30.39%	12.74%	30.39%	5.88%

엄기원⁵⁾은 주제란 글 속에서 作者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 즉 작가의 信念이거나 哲學이며 가치관이다.라고 말했는데 이처럼 주제란 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採集 된 전래동요들을 어떤 뚜렷한 기준에 의거하여 주제가 유사한 群끼리 묶는 일은 이 분야의 선행연구가 미진하고 주제파악을 하는데 따르는 연구자의 주관성 때문에 본 연구자의 주관에 많이 개진 될 수 밖에 없었다.

위의 분석표5)와 같이 본 연구자는 채집 된 전래동요 102편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정리했는데, 놀이의 즐거움과 자연과의 親和가 각각 31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따뜻한 인간애를 주제로 한 동요가 21편 꽤 많았으며, 해학과 풍자가 주제인 동요가 13편, 노동의 고단함과 보람을 주제로 한 동요도 6편이나 채집되었다.

이처럼 황성에 口傳되는 동요들의 주제를 살펴보면, 즐거운 아동들의 놀이와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自然愛가 주된 주제였으며 부모, 형제, 친척, 동무들의 훈훈한 정이 交感되는 人間愛도 이곳 황성지방 전래동요의 주된 주제였다. 그와 더불어 庶民들의 情과 恨이 어우러진 諧謔도 여러편의 동요에서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 옛날 조상들의 삶의 면모가 그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에 남아 오늘을 사는 우리들

5) 엄기원, “童詩創作 指導 小考”, 아동문예, 1982, P 41.

에게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보게하는 좋은 교과서가 되고 있다.

3. 전래동요의 형식

1) 전래동요의 음악성

가) 전래동요의 운율(리듬)

서병하⁶⁾는 “韓國詩는 그 언어의 特質上 外形律 生成의 根幹의 要素를 音數律에 두고 발전해 왔다.”라고 하며 “이 음수율은 외형을 생성방법으로서 이어받은 전통적 방법이었다.”라고 했다. 또 동아원색 대백과사전⁷⁾에서는 전래동요는 리듬을 생명으로 하며 전통적인 다른 가요와 같이 4.4조 내지 3.4조의 기본 韻律을 지니면서도 4.4조의 리듬이 더욱 철저하다고 했다. 이처럼 전래동요는 리듬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

횡성의 전래동요도 예외가 아니며 철저히 음수율에 치중하고 있음을 아래 분석표에서 볼 수가 있다.

표6) 전래동요의 음수율

음수율 유형	7.5조	7.7조	4.4조	6.6조	6.5조	5.5조	4.3조	5.3조	5.4조	계
해당편수	13	17	29	13	3	3	2	2	1	83
%	15.66%	20.48%	34.93%	15.66%	3.61%	3.61%	2.4%	2.4%	1.2%	100%

표7) 전래동요의 리듬

구분	음수율 동요	비음수율 동요	계
해당편수	83	20	102
%	81.37 %	19.63 %	100 %

위의 표에서 보듯 횡성의 전래동요는 102편중 음수율 동요가 83편으로(81.37%) 대부분의 동요가 음수율로 짜여져 있고, 비음수율 전래동요도 부분적으로는 음수율 형태를 갖추고 있어 일반적으로 전래동요가 갖는 음악성을 이곳 횡성지방의 전래동요도 그대로 이어 받

6) 서병하, “한국 童詩의 음악성에 관한 考察”, 1977, 3p.

7) 동아출판사, “동아원색대백과사전”, 1988, 서울.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음수를 유형면에서 보면 4.4조의 음수를 동요가 83편중 29편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7.5조, 7.7조, 6.6조의 음수를 동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횡성지방의 전래동요는 전래동요만이 갖는 고유의 음악성을 잃지 않고 오늘날 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나) 전래동요의 반복율

서병하⁸⁾는 韓國詩歌에 있어서 反復律은 음수율과 함께 그 外形律 형성의 중추적 역할을 하여 온 하나의 요소였다고 한다. 반복율을 항목별로 분류하면 네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동어, 유어, 동일행, 동일연 반복〉, 둘째〈동어, 유어, 동일행 반복〉, 셋째〈동어 유어의 반복〉, 넷째〈덧구적 방법〉을 들 수 있다.

표8) 전래동요의 반복율

항 목	동어, 유어, 동일행 동일연 반복	동어, 유어 동일행 반복	동어, 유어의 반복	덧구적 방법	계
해당편수	13	12	48	26	99
%	12.74%	11.74%	47.05%	25.49%	97.05%

위의 표⁸⁾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횡성의 전래동요는 97%나 되는 동요들이 반복율을 사용하고 있다. 동어, 유어의 반복이 그 중 48편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덧구적 방법의 반복율도 26편이나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반복율도 전래동요에 있어서 음수를 못지 않게 음악성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 전래동요의 音聲象徵

음성상징⁹⁾ (Sound Symbolism)이 전래동요나 童詩에 있어서 외형률적 음악성 생성에 작용하고 있는 요소는 세가지인데, 첫째가 의성, 의태어의 활용, 둘째 모음 음절

8) 서병하, 전제서, p4.

9) 서병하, 상제서, p8.

의 삽입, 셋째가 행 및 연의 종결음절의 同形的 조절방법인데 본 연구에서는 전래동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의성어와 의태어에 관한 부분만 다루기로 했다.

표9) 의성어와 의태어의 활용

(대상편수:102편)

항 목	의 성 어	의 태 어	의성어+의태어	합 계
해 당 편 수	15	17	2	34
%	14.7 %	16.66 %	1.9 %	33.3 %

위의 표에서 보듯이 횡성의 전래동요는 의성어가 활용 된 노래가 15편, 의태어가 활용 된 노래가 17편, 의성, 의태어가 함께 활용된 노래가 2편으로 동요의 외형률적인 음악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4. 전래동요의 表現 技巧

1) 전래동요의 修辭法

문장 표현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게 수사법인데 학자에 따라 수사법을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比喻法, 強調法, 變化法의 3개항으로 나누고 다시 이들 수사법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비유법 7종, 변화법 8종, 강조법 9종으로 나누어 다음 표와 같이 분석하였다.

표10) 전래동요의 修辭法

(단위 : 편수)

항 목	비 유 법							계
	직유법	은유법	풍유법	의인법	의태법	의성법	대유법	
해당편수	5	.	2	28	17	15	2	69
(%)	4.9 %	.	1.9 %	27.45 %	16.66 %	14.7 %	1.9 %	67.64 %

항 목	변 화 법								계
	생략법	설의법	도치법	명령법	덧구법	인용법	반어법	역설법	
해당편수	.	.	1	16	12	.	.	1	30
%	.	.	0.9 %	15.68 %	11.67 %	.	.	0.9 %	29.41 %

항 목	강 조 법									계
	과장법	영탄법	반복법	접충법	점강법	나열법	미화법	문답법	비교법	
해당편수	2	3	39	3	.	1	.	21	.	69
%	1.9 %	2.9 %	38.23 %	2.9 %	.	0.9 %	.	20.58 %	.	67.44 %

위에 제시한 수사법 분석표를 보면 內在律을 重視하는 詩 쪽에서 많이 쓰이는 修辭法이 外形律이 中心이 되는 전래동요에도 많이 쓰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먼저 비유법이 璿성지방에 口傳되는 전래동요에 얼마만큼 쓰였는지 살펴보면 自然現象을 人格化하는 의인법이 28편으로 가장 많이 쓰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래동요가 주로 아동을 주 대상으로 만들어 진 것이 때문에 想像속에서 동식물 또는 無生物과 대화를 하며 그들에게 生命을 불어 넣는 것이 강한 시기 때문이라 본다.

또한 의성법과 의태법도 많은 동요에 쓰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자연과의 親和가 동요의 주 내용인 것이 원인이라고 보여진다.

변화법은 璿성의 전래동요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았는데 이는 詩語가 가지는 이미지를 중시하는 詩 쪽에서는 많이 쓰여지나 가락(외형율)에 치중한 전래동요에서는 사용빈도수가 적은게 어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 대신 명령법과 닳구법은 여러 동요에서 활용 되고 있었다. 이 또한 傳來童謠 자체가 아동의 생활자체를 별 가식없이 옮겨 놓은 것이라 이런 특징을 지니게 된 것 같다.

끝으로 강조법의 활용면을 살펴보면 강조법이 39편에서 문답법이 21편의 전래동요에 쓰였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전래동요가 리듬을 살리고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무척 고심 했음을 보여 주는 하나의 단면이다.

2) 전래 동요의 노랫말

전래동요의 대상은 아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르는 아동에 맞게 노랫말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전래동요의 노랫말은 아동들에게 충분히 이해 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자는 璿성에 口傳되는 전래동요의 노랫말을 분석 해 보고 아동들에게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노랫말이 들어 있는 동요들을 아래표와 같이 정리 해 보았다.

표 11) 아동들에게 부적합한 노랫말을 사용한 전래동요

(대상편수 : 102편)

항 목	외래어	유행어	한자어	영탄조	난해어	신조어	계
해당편수	5	1	6	2	8	.	22
%	4.9 %	0.9 %	5.8 %	1.9 %	7.8 %	.	21.56 %

위 표 11)에서 보듯 횡성 지방의 전래동요에 쓰인 노랫말 중에서 아동들에게는 이해하기 부적합한 한자어, 난해어, 외래어, 신조어 등이 들어 있는 동요들은 전체 102편 중 22편이나 되었으며 주로 성인에게서 채록 한 동요 들이 대부분이었다.

외래어로는 〈바나나, 에비시디〉 등의 서양언어와 〈구리 구리, 오니, 시브스로〉 등의 일본어계통이 대부분이었고 한자어로는 〈울명처당, 객지 하전, 금차댕기, 흑발산, 삼선대, 명정대〉 등 언뜻 들으면 성인들도 무슨말인지 잘 알 수 없는 말들이 쓰여졌으며 (짜발이 호양군, 사리 사리 박실하다.

태자관자, 전두 만두 두 만두, 시상달강, 사리짱)과 같은 난해어들도 일부 전래동요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는 전래동요가 구전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끼쳤을 외세의 영향과 노랫말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아무런 걸림없이 전승 된 탓일 것이다.

또한 횡성 지방에 구전되는 전래동요에 실린 方言을 살펴보면 다수의 동요에서 이 고장 특유의 방언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언들 중에는 현재까지도 이곳 주민들이 사용하는 말들이 있는가 하면 〈살강, 골제, 노개이, 갈가지, 보물, 북더불〉 등과 같이 요즘 아동들에게는 생소하기만한 말들도 여러 동요에서 발견되고 있다.

傳統文化 保存의 측면에서 이 고장 특유의 토속어들은 소멸되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 표 12)에 나타난 방언은 횡성의 전래동요 102편에서 가려 뽑은 이 고장 특유의 방언 모음이다.

표12) 전래동요에 나타난 이고장 방언모음

차 례	방 언	표 준 어	비 고
1	등강 너머	언덕 너머	
2	맹주	명주	누에고치 실로 짠 천
3	수염	수영(해염)	
4	살강	찬장	
5	복더불	짚더미	추수 후 으스러진 짚을 쌓아 놓은 곳
6	꾸정물	구정물	
7	갈게	가을에	
8	각재	가재	
9	깨구락지	깨구리	
10	아부지	아버지	
11	짬자리	잠자리	
12	호메이	호미	
13	괴기	고기	
14	즙심	점심	
15	골제	밭이랑	
16	부강지	부엌 아궁이	
17	낭구	나무	
18	노개이	작은솔	큰솔-지북, 가운데 솔-평치라 부름
19	보물	속껍질	
20	갈가지	삼쟁이	
21	원세이	원숭이	
22	똥고라미	똥그라미	
23	고대로	그대로	

5. 횡성지방의 전래동요 특징

1) 횡성 전통문화의 배경

먼 옛날 辰韓의 마지막 왕이었다는 태기왕이 신라의 박혁거세에게 패해 마지막으로 역사의 종지부를 찍었던 회한의 땅 횡성은 강원도 영서 내륙에 위치한 전통적인 농경 중심 마을 들로 이루어진 곳이다.

횡성은 도내에서 가장 먼저 3·1운동의 햇불을 높이 들었던 곳으로 애국 총절의 고장으로 군민들의 자긍심이 매우 높고, 일제 침략기에는 남쪽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인 상인들이 상권형성에 실패한 곳이기도 하다.

또한 옛것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전통문화 보전에 적극적이다. 1984년 충주에서 개최된 전국 민속 예술 경연대회에서 〈회다리 소리〉로 대통령상을 수상해 강원도에서는 전무 후무의 기록을 갖고 있다.

이처럼 횡성 사람들은 다른 고장 보다 특출나게 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네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정과 한이 서리 설킨 노래 부르는 걸 잊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횡성 9개 읍·면 마을마다 골짜기 마다에는 각종 민요와 전래동요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자가 10여년 동안 채록한 102편의 횡성지방의 전래동요 편수는 아직 그 어느 고장에서도 이 규모를 넘었다는 기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만큼 횡성의 전통문화는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다.

2) 횡성 전래동요의 特徵

본 研究者가 횡성의 口傳되는 전래동요 102편과 신경림의 〈한국 전래동요집〉에 수록된 다른 지방 전래동요와 비교해 본 결과 59편이나 되는 이 지방 전래동요는 다른 고장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것들이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생활을 노래한 동요 14편중 9편이, 놀이노래 31편중 22편이 다른 지방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노래들이었으며 해학요 13편, 식물요, 노동요, 음식물요에서도 각각 6편씩의 노래가 다른 지방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것이었다.

이처럼 과반수를 넘는 많은 수의 전래동요들이 독특한 형태와 내용을 갖고 오늘날까지 전해 온다는 것은 앞서 말한 횡성 특유의 傳統文化에 대한 보존성과 전통성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庶民文學의 전통성과도 같은 맥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民謠나 傳來童謠는 어느 한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특정한 사람의 노래가 아니고 그 나라 혹은 그 고장 사람들 모두가 만든 行動詩이며 그러기에 이들 作品에는 그들의 가장 切實하고 普遍的인 느낌이 들어 있다. 우리의 歷史를 더듬어 보면 착하고 유능한 統治者보다는 용렬하고 무능한 자가 더 많아왔던 게 우리의 현실이었다.

이러한 통치자 밑에서 一般 庶民들의 삶이 고달프고 괴로웠으리라는 것은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기에 이곳 횡성 傳來童謠에는 유난히 恨이 많이 눈에 뜨인다.

문배나무 북을울려 금차댕기자느라니
산넘어서 편지가 왔네
시앗 죽었던 편지가 왔네
괴기반찬 쓰던 입이
소금에 밥도 잘도 달다

-베짜기 노래-

위 노래를 보면 시앗(소실) 때문에 품은 한 女人의 恨이 오뉴월에 서리를 내리고도 남을 만하다. 시앗 때문에 가슴을 앓던 아낙네가 恨으로 베를 짜다 어느날 그토록 미워하던 시앗이 죽었던 소식이 오자 괴기반찬을 먹어도 밥맛이 없던 그가 소금만 찍어 먹어도 밥맛이 달다는 내용의 이 노래는 恨의 極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가하면

고모네 집에 갔더니
암닭 수탁 잡아서
기름이 동동 뜨는 걸
나 한숟가락 안주더라
우리집에 와봐라
수수팔떡 안준다.

-고모네집-

草根本皮로 보릿고개를 넘던 가난했던 어린 시절 그땐 고기라야 명절 아니면 제삿날이나 돼야 얻어 먹는게 고작이었다. 얼마나 고깃국이 먹고 싶었던지 恨이 응어리진 작은 가슴은 비록 어린애였지만 자기 생일날 수수팔떡도 안준다고 했겠는가?

이밖에도 이 고장의 전래동요 곳곳에는 먹고 싶고 갖고 싶고 가고 싶은 恨의 울들이

작품 전반에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웅어리진 한을 삶의 지팡이로 삼을 줄 아는 지혜를 가졌었다.

예를 들면

남자로 태어나도 부모 있고요
여자로 태어나도 부모 있는데
어찌해서 남자는 공부시키고
어찌해서 여자는 일만 시키나
아버지 어머니 들어 보세요
술담배 먹지말고 푼돈 모아서
돈많은 대학교는 못갈지라도
돈 적은 중학교는 보내주세요

-이하 생략- (전래동요 공부시켜 주세요)에서

위 노래를 들어보면 향학열에 불타는 그 시대 중학 진학을 갈망하는 어린 소녀의 간절한 절규를 듣는 것 같아 가슴이 찡 해온다. 그 때만 해도 男尊女卑 사상이 농촌사회 전반에 팽배 해 있던 때라 웬만큼 밥술이나 먹는 집을 빼 놓고는 여자 아이들은 중학교 진학을 엄두도 내지 못했었다. 그래서 그들은 가슴에 쌓인 울분과 대처 방안을 노래에 실어 그들의 부모에게 한을 토로했다.

이처럼 우리의 전래동요들은 그 당시 그들이 삶의 모습들을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얼핏 보기에 전래동요가 체념적인 모습으로만 다가오는 듯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은 않다. 전래동요의 이면에는 낙천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여러 작품에 나타나곤 한다. 恨을 넘어 익살과 해학으로 그네들은 고단한 삶을 웃어 넘겼던 것이다. 이런 해학과 유머가 넘치는 노래들이 이 고장 전래동요에서는 여러군데서 발견되고 있다.

시골처녀가 논두렁에 앉아서

오줌을 싸는데
밑에 있는 개구리 하는 말씀이
요즈음 소나기는 왜이리 뜨거워
- 시골처녀가 -

가진 자들에게 당하고 허리 띠를 졸라매며 허기를 참으면서도 이땅의 庶民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고 먼산을 바라보고 허허 웃으며 위와 같은 해학요를 부르며 웃음을 잃지 않았다. 또한 가진 것 없이 어렵게만 삶을 꾸려가던 이 고장의 서민들은 그들의 절대적 빈곤(물질과 정신의 양면)에서 탈출하기 위해 절대자에게 매달렸다. 이 고장에는 샤머니즘적인 전래동요가 몇편 口傳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춘향이 놀이〉였다.

춘향아 춘향아 남원읍에 성춘향아
나이는 십팔세 생일은 사월 초파일
산수경치 좋은 곳에 놀러가자 놀러가자
-춘향 혼 실리는 노래- 중에서

위 노래는 겨울 밤 또래또래의 아이들이 춘향이 혼의 降神을 위해서 부르던 巫俗謠이다. 이렇듯 황성의 전래동요 곳곳에 나타난 노래말들은 전래동요의 특징인 傳統性和 庶民性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Ⅲ. 끝맺음 말

10여년 넘게 本 연구자가 採集한 황성지방의 전래동요는 모두 102편이 採錄되었다. 성인과 兒童을 직접 면담 해 얻은 동요들의 채집 상황은 成人 보다 아이들에게서 더 많은 양의 전래동요가 채집되었으며, 아이들은 주로 놀이, 해학, 인간생활에 대한 노래들을 많이 알고 즐겨 불렀으며 성인들은 비교적 동요의 역사가 긴 자장요, 해학요, 자연

요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 아무튼 이 고장에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많은 양의 동요들이 구전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횡성 전래동요의 內容은 素材面에서는 놀이, 인간생활, 동물에 대한 노래들이 많았으며 노래의 主題로는 놀이의 즐거움, 자연과의 親和, 人間愛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 고장 傳來童謠의 形式은 음수율에서는 전통적 리듬인 4·4조가 주류를 이루었고 그것을 이어받은 7·5조나 7·7조가 대부분의 노래에서 활용되었다. 반복율도 99편의 동요에서 활용되었는데 의성어와 의태어가 34편의 동요에서 쓰여져 이 고장 전래동요의 높은 음악성을 입증 해 주었다.

그리고 전래동요의 표현기교면에서는 비유법과 강조법이 69편의 동요에서 쓰여져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냈고 어휘면에서는 아동들이 이해하기 힘든 한자어나 외래어 난해어들이 다소 사용 된 것을 볼 수 있었고 많은 수의 작품에서 이 고장 특유의 토박이 말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전래동요의 발굴과 보존이 고장 특유의 토박이말 보존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연구 기간 동안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끝으로 횡성 지방의 전래동요는 다른 고장에 비해 전통문화가 비교적 잘 보존돼 오고 있는 사회적 배경에 힘 입어 타의 追從을 不許하는 많은 量의 동요와 다른 고장 노래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獨創性을 가지고 口傳되고 있었다.

채집된 102편중 69편의 전래동요는 횡성지방에서만 불리어지는 노래였다. 또한 이 고장 횡성의 전래동요는 대부분이 庶民들의 애환과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투영된 작품들로 그 당시 서민들의 情과 恨이 잘 드러나 있었다.

Ⅳ. 바라는 말

우리 조상들의 값진 문화유산인 傳來童謠는 자칫 소홀히 하면 영영 이 땅에서 소멸돼 버릴지도 모를 이 時點에서 이 분야에 관심있는 연구자들이 다수 참가 해 전래동요를 採集하고 文書化, 記錄化하여 세세토록 우리들 후손들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대

물림 해야겠다. (대학의 학부나 대학원의 논문에도 민요에 대한 연구물은 적지 않으나 전래동요의 연구물은 별로 없는 현실임)

또한 外來文物에 나날이 汚染 돼 가고 있는 이 땅의 오늘을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많은 전래동요를 접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 우리 조상들의 얼과 민족성을 일깨워 주는 일련의 일들에 우리 기성세대는 소명의식을 갖고 참여해야겠다.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전래동요의 文學的 歷史的 가치가 바르게 糾明돼야 하겠으며 각 고장의 뜻있는 사람들에 의해 고장 나뭇대로의 전래동요 모음집이 하루 속히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정재영 外 4인 공저, 〈화성의 옛터〉, 춘천, 강원일보사, 1997
- 정재영, 〈故郷〉, 횡성, 성광사, 1987
- 횡성군지편찬위원회, 〈횡성군지〉, 춘천, 강원일보사, 1986
- 황석영 外, 〈轉換期の 民族文學〉, 서울, 풀빛출판사, 1987
- 이원수, 〈兒童文學의 傳統性和 庶民性〉, 서울, 한국아동문학가협회, 1974
- 이영희, 이부영, 〈傳來童謠의 文學적 原型의 探究〉, 문학사상사, 1978
- 신경림, 〈한국 전래동요집〉, 창작과 비평사, 1984
- 신현득, 〈한국 童謠文學 研究〉,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2
- 서병하, 〈한국 童詩의 음악성에 관한 考察〉, 춘천교육대학교 석우 논문집, 17집
- 서병하, 〈兒童文學 批評考〉, 춘천교육대학교 석우 논문집, 3집, 1975
- 엄기원, 〈童詩 創作 指導 小考〉, 아동문예, 1982
- 강원도지 편찬위원회, 〈강원도지〉, 강원일보사, 단기 4292
- 백과사전부, 〈동아세계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1988
- 한영환, 이성교, 〈文學概論〉, 개문사, 1985
- 장덕순, 〈國文學史〉, 동화문화사, 1986
- 이오덕, 〈兒童詩論〉, 서울, 세종문화사, 1973
- 공재동, 〈童詩에서의 主題〉, 아동문학평론, 1985
- 이재철, 〈兒童文學 概論〉, 서울, 서문당

횡성의 傳來童謠 모음

-102편 수록- (채록:정재영)

◆ 인간생활 노래(生活謠)

고모네 집

고모네 집에 갔더니 암탉 수탁잡아서
기름이 동동뜨는걸 나한순갈 안주더라
우리집에 와보라 수수팔떡 안준다

사랑하는 언니야

사랑하는 언니야 시집가서 잘 살아
아들낳고 딸낳고 봄이되면 찾아와

엄마엄마 나 죽거든

엄마엄마 나죽거든 양지쪽에 묻어주
뒷산에다 묻지말고 앞산에다 묻어주
비가오면 덮어주고 눈이오면 쓸어주
내친구가 찾아오면 학교갔다 전해주

쫓겨가는 며느리

쫓겨가는 며느리 아들낳고 딸낳고
미역국은 좋대지 소태국은 싫대지

동무 동무 새동무

동무 동무 새동무 보리밭에 똥싸자

사랑하는 아줌마

사랑하는 아줌마 양단치마 사세요
안삽니다 안사 내일모레 오세요

엄마 생각

등강너머 콩밭에간 엄마 찾을 때
누나하고 저녁밥 지어 놓고서
들어가신 어머니 생각합니다

꼬마 신랑

옛날옛적에 꼬마신랑이 각시방에서 울었답니다
서방님 서방님 울지마세요 별아침 누룽지 굶어드릴게

사촌형님

형님형님 사촌형님 시집살이 어땠니까
맹주치마 열두폭이 눈물씻겨 다나갔네

우리 엄마

씨나씨나 일씨나야 니네엄마 어디 갔니
우리엄마 배타고 압록강에 놀러갔다

동무

동무동무 시브스로 그린동무 옥색으로 새긴동무
연못안의 연꽃은 여러가지 성할려라
울명처당 달뜨거든 객지하전 만나보세

어깨동무

어깨동무 찌개동무 제사집에 가는동무

한잔주면 눈물나고 두잔주면 웃음난다
어깨동무 개동무 미나리 반찬 개반찬

돌아가신 엄마

다북다북 다북네야 이삭머리 종종 닳고 너어디로 울며가니
니어머니 몸둔곳에 젖먹으러 나는가오
물이깊어 못간단다 산이 높아 못간단다
물이깊으면 수염치고 산높으면 기어가지
가지마라 가지마라 가지줄게 가지마라 떡사줄께 가지마라
떡도 싫고 엿도 싫고 내어머니 젖만주소
살강아래 삶은팥이 싹이나야 오마더라
북더불에 있는차돌 물러야만 오마더라
병풍속에 그린닭이 해를쳐야 오마더라
솔방울이 울어여만 네어머니 오마더라
애고애고 내어머니 삼선대와 명정대가
남산끝에 굽이굽이 잘도잘도 돌아가네

◆ 자연의 노래(自然謠)

비야 비야

비야비야 오지마라 사촌언니 시집갈때 가마꼭지 물들인다
가마꼭지 물들이면 초록저고리 얼룩지고 비단치마 아롱진다

샘물

꾸정물은 나가고 샘물은 들어가라 뚝

달아달아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놀던달아
저기저기 저달속에 계수나무 박혔으니
옥도기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간삼간 집을짓고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지고 천년만년 살고지고

해야 해야

해야해야 나오너라 김치국에 밥말아먹고 장구치고 나오너라

❖ 새 노래(動物謠)

까치야 까치야

까치야 까치야 현이 줄께 새이다오

티 꺼내기 노래

까치야 까치야 니네 새끼 물에 빠진거 꺼내줄게

내눈에 티 들어간거 끄내다와 튼

따운 따운 참새야

따운따운 참새야 너어디가니 우리엄마 산소에 젓먹으러 갈테야

신발없어 못간다 신없으면 맨발로가지

물이깊어 못간다 물깊으면 헤엄쳐가지

산높아서 못간다 산높으면 기어가지

황새야 독새야

황새야 독새야 느집에 불났다 쪽박갔다 불꺼라 위위이

떡해먹자 부엉

떡해먹자 부엉 양식없다 부엉

걱정말게 부엉 꺾다먹지 부엉

언제갚지 부엉 갈게갚지 부엉

핑핑 핑서방

핑핑 핑서방 자네집이 어딘가

거미줄발

뭇먹고 사나?

머루다래 따먹다 불알이 굵혀뻘었다

언젠가 장산가?

내일 모레 이랫날

괴꿀냉 괴꿀냉

괴꿀냉 괴꿀냉 경상도 박개여

전라감사 딸이여 괴꿀냉 괴꿀냉

◆ 짐승과 물고기 노래(動物謠)

가재와 개구리

각재 개구락지 모두모여 음악회를 열었다

각재는 춤추고 개구락진 말놀이

니나니나 니나니나 임금님 소원이다

넙넙 너구리아

넙넙 너구리아 왜우니 바람도 안부는데 왜우니
그것을 보고있던 작은 아버지 배꼽을 움켜쥐고 하하하

아가리 딱딱 벌려라

아가리 딱딱 벌려라 열무김치 들어간다

두껍아

두껍아 두껍아 혼집줄께 새집다와

쥐야 쥐야

쥐야 쥐야 어디서왔니? 부엌에서 왔다
뿔비고 왔니? 주걱비고 왔다
뿔뿔고 왔니? 행주뿔고 왔다

꿀돼지

돼지돼지 꿀돼지 무얼먹고 사니?
친구집에 찾아가 찌꺼기 먹고산다

두껍아 두껍아

두껍아 두껍아 너는 너는 무얼먹고 사니?
감자범벅만 먹고산다

❑ 벌레와 곤충의 노래(動物謠)

알날아라 꿈꿈

알날아라 꿈꿈 알날아라 꿈꿈

짬자리통 파리통
짬자리통 파리통 앓을자리 말아라

아침방아 찻라
아침방아 찻라 저녁방아 찻라

짬자리 꿈자리
짬자리 꿈자리 저리가면 죽는다 이리오면 산다
고기고기 앓아라 잡을테면 잡아봐라

◆ 일 노래 (勞動謠)

나무하러 가세
김서방 나무하러 가세 배가 아퍼서 못가
무슨 배? 자라배
무슨 자라? 엄자라
무슨 엄? 소엄
무슨 소? 탁소
무슨 탁? 비지탁
무슨 비지? 콩비지

호미질 노래
말굴레같은 은가락지 끼던손에 호메이자루 웬말인가

베짜기 노래

문배나무 복을올려 금차맹기 짜느라니
산넘어서 편지왔네 시앗죽었던 편지가왔네
괴기반찬 쓰던입이 소금에밥도 잘도달다

시집살이 노래

작은애기 짐심해라
무신쌀로 하라는가 외비참쌀로 하라므나
무순간을 하라는가? 우리오빠 낚은 괴기
작은괴기 지저놓고 굶은괴기 구어놓고

소몰이 소리(겨릿소리)

이러디여 이러디여 마라소야 들어서라 올라서지를말구
안소 우겨서라 마라소 우겨서라
어디여 돌아서라 안소 물러서라 이러디여 이러디여

소몰이 소리(호릿 소리)

이러디여 이러디여 골제로 들어서라
어디여 돌아서라 이러디여 이러디여

❖ 나무, 풀, 꽃의 노래(植物謠)

가랑잎 떠벌떠벌

가랑잎 떠벌떠벌 어디로가느냐
넓고넓은 바다로 흘러가느냐
높고높은 산으로 올라가느냐

가랑잎 때굴때굴

가랑잎 때굴때굴 어디로 굴러가요

벌거벗은 이몸이 춥고추워서

따뜻한 부강지를 찾아잡니다

할미꽃 할머니

할미꽃 할머니 고개숙이고 오늘도 무엇인가 생각하세요

고개넘어 시집간 막내딸이 잘사는지 못사는지 궁금하대요

장다리는 한철이요

장다리는 한철이요 미나리는 사철이라

때굴때굴

때굴때굴 때때굴 도토리 하나 도토리를 먹으면 약이 된다네

꽃 사세요

꽃사세요 꽃사세요 장미꽃을 사세요

냄새 좋고 향기로운 장미꽃을 사세요

◆ 놀이노래(娛樂謠)

뽕데기 노래

뽕데기뽕데기 뽕뽕 데기데기

뽕데기 일(주먹)

뽕데기 이(가위)

뽕데기 삼(보)

미니 미니 미니 뽕
췌췌췌 미니 미니 미니 뽕(주먹내기) 가야스로 갈까요(가위)
우리우리 우리는 (보) 주먹뽕(주먹) 가위뽕(가위) 보재기뽕(보)
유리항아리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남남 남대문을 열어라
열두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개미삼촌
개미삼촌 어디가?
넷가에 간다. 나도가
아이들이 많아서 못간다.

우리집에 왜왔니
우리집에 왜왔니 왜왔니 왜왔니
꽃찾으로 왔단다 왔단다
무슨꽃을 찾으로 왔느냐 왔느냐
(○○○)를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감자에 싹이나고
감자에 싹이나고 잎이나서 묵찌빠

깡통에 보리밥은
깡통에 보리밥은 누가먹었나
니가먹고 내가먹고 싸우지말자
소리가난다 도레미파솔라시도 뽕

강강 술래야

강강 술래야 누구 먼저 봤니 순이 먼저 봤다

달려라 기차

달려라 기차 칙칙 펍펍 증기기차 쏜살같이 달린다

랄랄랄라 칙칙 랄라랄라 펍펍 이기차는 쏜살같이 달린다

똥똥 말아라

똥똥 말아라 명석같이 말아라

때굴때굴 땃때굴

때굴때굴 땃때굴 도토리하나 삼년만에 이빠졌다 대머리카졌다

갈바람 술바람 불어오는데 술래잡기 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딱딱 붙어라

딱딱 붙어라 내일모레 떡해 줄게

도레미파 뽕

도레미파 뽕 냄새가난다 뽕

1누가꿨나 뽕 자네가 꿨지 뽕

똥고라미

똥고라미 똥고라미 마차에 물건을 가득싣고서

엄마랑 아빠랑 멀리간다

육육에 육육에 삼십육 맞고 육육에 백두산

췌췌췌

췌췌췌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기러기

우리선생 계실적에 엽서한장 췌주세요 구리구리 멍텅구리

꼬마야 꼬마야

현들이 현래

꼬마야 꼬마야 뒤로 돌아라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꼬마야 꼬마야 만세를 불러라 불러서 불러서 잘가거라

여우야 여우야

한고개 넘어서 두고개 넘어서

여우야 여우야 나와놀자

세수하는 중이다 멧쟁이 아니냐

밥먹는 중이다 무슨 반찬

개구리와 뱀 죽었니 살았니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전두만두 두만두 짹바리 호양군

열두탕기 열두냥 종지머리가 사리짱

엄마밥이 더 많니

엄마밥이 더 많니 아버지밥이 더 많니

오니아 오니아

오니아 오니아 너어디가니? 저 건너

뭇하러 배 따먹으러

나좀 쥐 싫어 에이 잘가거라

때때 말러라

때때 말러라 장작같이 말러라

여보 여보 당신은

여보 여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나는 복숭아 딸이랍니다

어째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나는나는 언니하고 놀러왔지요

세바퀴 돌고서 인사하세요

자동차 놀이

야바쿠 뒷바꾸 자동차 바쿠 앞에는 운전수 뒤에서 조수

달려라 달려라 서울역까지 운전수 아저씨 고맙습니다

멤돌기 노래

팽글팽글 잘두돈다 요리조리 잘두돈다

고추먹고 멤멤 담배먹고 멤멤

공치기 노래

우리집 옆집 도둑팽이가 연지끈지 바르고 눈썹 그리고

반지가 없어서 사려갈적에 사람이 많으니 얼른 감춰라

춘향이 놀이

춘향아 춘향아 남원읍에 성춘향아

나이는 십팔세 생일은 사월초파일

경치좋고 산좋은데 놀러가자 놀러가자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옷자락이 보인다

살금살금 달아나자 빨리빨리 달아나자

대문놀이 노래

어디 군사인가? 강원도 군사라네
몇천명인가? 삼천명일세
몇바퀴 돌았나? 삼백바퀴 돌았네
무슨칼을 찾나? 장도칼을 찾네
무슨신을 신었나? 가죽신을 신었네
어디로 들어가는가? 동대문으로 들어가네

수박따기 노래

할멈 문열어주 딸깍
개 쫓추 지게
수박 하나 주 이제 씨 심었수
넌모레 둥둥 넌모레 둥둥
할멈 문열어주 딸깍
개 쫓추 지게
수박 하나 주 이제 싹 났수
넌모레 둥둥 넌모레 둥둥

방멩이 점 노래

천둥지둥 하신다 태자관자 오신다

웃놀이 노래

흑발산이 산밑에 가고 석동문이 막돌아간다
웃이야 사치야 오금에 떡이나 동장가 사리사리 박실하다

◆ 놀림과 익살의 노래(諧謔, 諷刺謠)

울베이 찢베이

울베이 찢베이 닭에 똥에 밥말아먹어라

고바우 영감

고바우 영감이 고개를 넘다가 고개를 다쳐서

고약을 발랐더니 고대로 났더라

친구들

부랄없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뒷산에 낭구하러 올라갔다가

쇠똥에 미끄러져서 아이구 불알아 아이구 불알아

순이 아버지

순이 아버지 담배꼭지에 불이 붙어서

으야차차 으야차차 큰일났구나

시골 처녀가

시골처녀가 논두렁에 앉아서 오줌을 싸는데

밑에있는 개구리 하는 말씀이 요즈음 소나기는 왜이리 뜨거워

옛장사 똥구멍은

옛장사 똥구멍은 켜덕켄덕 그래도 좋다고 찢렁찢렁

앞니빠진 갈가지

앞니빠진 갈가지 우물가에 가지마라 붕어새끼 놀랄라

원세이 똥구멍은

원세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빨른진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은건 백두산

하늘천 따지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벉벉 끓어서
개죽통에 담아서 훈장님께 드리자

까까중

중중 까까중 얼마주고 깎았니 1전주고 깎았다

밀가루 반죽

중국사람 미국사람 밀가루 반죽 좋아해

에비시디 강낭콩

에비시디 강낭콩 옆집 할아버지 부랄통 한번 만지면 딱딱해
두번 만지면 물렁해 세 번 만지면 툭 터져

일러라 찢러라

일러라 찢러라 느 헬애비 콕구멍 바늘로 콕콕 찢러라

■ 자장가 및 아기 달래는 노래(자장요)

엄마 꿈

새는 새는 낭구에 자고 쥐는 쥐는 굴에 자고
어제온 색시는 사랑품에 잠을 자고
우리아가 예쁜아가 엄마품에 잠을 잔다

시상달강

시상달강 시상달강
할아버지 마당쓸다 동전한푼 주워서 밤한말을 사가지고
통노개에 삶아서 이빠진 조리로 건져서 고무다락에 치트렸더니
머리카만 새앙쥐가 들락날락 다까먹고 밤한톨을 냉긴걸 까가지고
껍데기는 헬애비주고 보물은 할미주고 알맹이는 너랑나랑
둘이먹자 시상달강 시상달강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우리애긴 잘두자고 남의애긴 못두잔다

둥개야 둥개야

둥개둥개 둥개야 먹으나 굶으나 둥개야
입으나 벗으나 둥개야

◆ 음식의 노래(生活謠)

만약에 인절미가

만약에 인절미가 시집을 간다면 콩가루에 화장을 하고
빨간쟁반위에 올라와서 간다네 간다네 예식장으로

쌈 먹고

쌈먹고 쌈먹고 쌈쌈먹고 너먹고 나먹고 옆집주고 뒷집주고
구리구리 쌈쌈 우물가에 빠진 개미 한 마리

엄마야 아빠야

엄마야 아빠야 뒷집에 돼지고기 삶더라
좀주더냐? 맛있더냐? 쿨쿨 냄새만 나더라

새 볶아 먹기 노래

오빠 오빠 어디로가? 산에 간다 새잡으러
몇마리 잡았니? 다섯마리 잡았다
나한마리 쥐 볶아먹고 지저먹고 다먹었다

장난감 기차요

장난감 기차요 장난감 기차요 장난감 기차가 칙칙 떠나간다
과자와 사탕을 싣고서 엄마방에 있는 우리아기 갖다주러 갑니다

형님 상

뒷집목기 앞집목기 닳죽달죽 달달죽이 형님상에 다올랐네
앞집대접 뒷집목기 닳죽달죽 열달죽이 형님상에 다올랐네
머리말에 장끼한마리 꺼덕꺼덕 푸득푸득 다날아갔네

공부시켜 주세요

남자로 태어나도 부모있고요 여자로 태어나도 부모있는데
어찌해서 남자는 공부시키고 어찌해서 여자는 일만시키나
아버지 아버지 들어보세요

술과 담배 먹지말고 푼돈 모아서

돈많은 대학교는 못갈지라도 돈적은 중학교는 보내주세요

까만치마 흰저고리 책보를 끼고 저기가는 저학생

나는 부러워 나는 부러워

현감 구일

관개이민 몰세불망비 고찰

채 희 승



1. 머릿글

지난 여름 황성지역의 금석문을 조사, 탁본해 달라는 심진황 황성문화원 원장님의 부탁을 받고 틈나는대로 돌아다니며 탁본하였는데 그중 마산리 논바닥 가운데 내려바 위 위에 있는 계문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다. 비문이 많이 마모되어 알아볼 수 없는 글자가 많았지만 비문의 글을 지은 사람이李端夏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의 문집인 戔齊集을 찾아보니 다행히 그속에 비문의 내용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지금까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관개시설을 해준 具鑑의 송덕비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던 것을 상세히 번역해 소개함으로써 339년전 황성현감으로 이 지역을 위해 큰일을 하셨던 具鑑의 업적과 고마움을 오늘에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 현감 구일 관개이민 물세불망지비(원문해석)

현감 具鑑이 백성을 이롭게 물을 끌어대어

이를 沒世토록 잊지말라는 碑

(덕수후인 이단하가 짓고 여양후인 진괘가 글씨를 쓰다.)

내가 횡성에 있다가 일년도 되지 않아 喪으로 떠나고 具鑑이 내대신 사무를 보게 되었는데 수리를 일으켜 앞내 개울물을 끌어다가 읍백성들의 밭 수백천 이랑에 물을 대게 하니 백성들이 지금에 이르도록 그 공을 읊는 것이 쇠하지 않으니 장차 비석을 세워 후세에 생각토록 할 것이다.

하루는 읍의 정수업이란 자가 와서 내게 銘을 요청하는데 나는 보잘것 없는 관리로 물방울만한 혜택도 백성에 미치게 한 것이 없고 일찌기 이러한 일에 뜻을 두긴 했었지만 겨루이 없었다.

재력과 민첩함으로 한번에 큰 공을 이루었는데 읍백성을 위하여 경사스럽고 다행한 일이어서 내 몸에서 나온 것 같을 뿐만 아니라 하물며 그는 나에게 重表兄이 된다.

고로 내가 그 일을 말하기를 즐겨서 序銘을 쓰노라 그는 능성인으로 자는 중경이고 임오년(1642년) 진사에 합격하고 무술(1658년) 4월 13일 횡성에 부임하고 신축(1661년) 9월초 4일 돌아가서 무과에 올라 지금은 한성부윤을 하고 있다.

그는 횡성에 있을때 관청을 잘 수리하여 불만하고 새롭게 했으니 이또한 善政의 한 단면으로 백성들이 칭송하는바 그 중요함을 특별히 실어 銘에 가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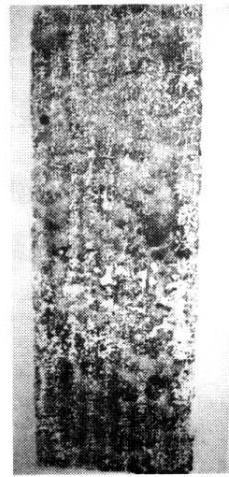
물댄밭 일만이랑에, 흐르는 은택은 천추에 길이 가도다.

검은머리 백성의 생각에, 보잘것없이 먹는것도 부끄럽다하네.

승정기원후 32년 기해(1659년) 독을 막고 51년 무오(1678년) 각을 해서 비를 세우다.

3. 원 문

橫城縣監具侯鑑灌氏田碑銘并序
 余在橫城未暮年以喪去具侯鑑代余視篆大興水利引前川灌漑邑底民田數百頃民到于今誦頌其功不衰將樹宮碑以寓沒世之思一日邑子鄭君洙業來請銘于余余官無涓滴惠澤及民顧嘗有意於斯役而亦未遑焉賴侯材力幹敏一舉而成丕續余爲邑民慶幸不啻若自吾身出况侯於余爲重表兄余故樂道其事而爲之序銘侯綾城人字重卿中壬午進士戊戌某月日莅任某年某月遊歸後登武科今爲漢城右尹侯在縣繕治縣宇觀瞻一新此又善政之一端而民之所頌特揭其重者云銘曰漑田萬畝流澤千秋黎黔之恩戶素之羞



현감구일관개이민
물세불망비문탁본

4. 마침글

지금까지 이 비에 대한 것은 개략적인 소개만 되어왔었고 비문이 많이 마모되어 내용을 알 수 없다고만 하여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하여 우리고장 문화유적들의 심도있는 조사와 발굴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각 고장마다 많은 송덕비들이 산재해 있지만 대개가 누구 누구의 송덕비라는 정도일뿐 이 비석처럼 내용을 상세히 적은 것이 드물며 게다가 토질이 좋은데도 가뭄이 오면 농사를 망치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 수백년전에 이미 어려움을 무릅쓰고 수리시설을 한 횡성현 감具鑑의 업적을 지금에 와서 다시 칭송하여도 조금도 지나치다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송덕비류의 비로 현존하는 것은 이 비가 우리나라 최초의 관개수로 송덕비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1659년 독을 막고 1678년에 비를 세운것이 밝혀져 횡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강원향토문화연구회간)에 1659년에 비를 세웠다고 한것을 바로 잡는것이 옳을것 같다.

Ⅳ. 향토문학 동호인 작품 모음

어사매 문화마당

- 隨 筆
- 詩
- 漢 詩
- 鄉土文化踏査記

去勢(돼지 불알까기)

권 용 환



정월 대보름이 지나 양지쪽 반지꽃은 보라색 얼굴을 내밀었다.
두엄 더미에 지게바쳐 놓고 담배 피우는 중 늙으니 주름살이 유난히도 세월의 흐름을 한탄하는 것 같다.
봄의 기지개가 느리지게 시작 된다.
어제는 하루 종일 돼지우리를 고쳤다.
팔뚝 만한 곧은 생소나무를 베어다가 새끼 돼지가 빠져 나가지 못하게 촘촘히 박는 것이다.
귀가 썩은 죽통도 손을 보았다.
찰랑 떨어진 긴치마에 허리가 가늘어 보이는 이집 큰 딸이 물둥이를 이고 또아리 끈을 입에 물고는 대문을 조심스레 들어서며 돼지우리 고치시는 아버지를 힐끗 보고는 부엌으로 들어선다.
여느해보다 일찍 서두시는 아버지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 졌다.
『아버지! 아직 돼지새끼 키우기가 일러요! 추워서 주렵 드려요』
『그래도 다음 장날엔 좋은 놈으로 사와야 겠다.』
아버지는 무슨 속셈인지 단단히 버르고 계신 것 같다. 며칠전 먼촌 압실사시는 아주머니가 다녀 가셨다.
그날밤 어머니는 밤 늦게까지 장농에서 혼수 감을 꺼내어 뒤저기며 한참 생각하시다가는 다시 깨어서 넣으시곤 하셨다.
그러고는 주무시는 아버지를 흔들어 깨워 놓고는

『여보! 올해는 저건너 비탈 밭에다 묵화씨를 부쳐야 해요! 내 잇을까봐 생각 난김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 밤중에 호박 판소리여! 알았어요!』

문풍지도 잠든 새벽- 뻘을 치며 숫닭이 길게 우니 - 건너마을 숫닭이 답을 한다.

오늘은 웬지 아침부터 서두시는 아버지께서 손가락 놓기가 무섭게 광으로 가서는 검정콩 한말과 어머니가 애끼던 첫물 참깨 닷되가 실하게 배자루에 넣어 지게에 엮고는 이내 장터로 향하신다.

한나절이 지나서 점심을 먹고 나니 봉당에 누웠던 복실이가 갑자기 대문을 뛰어 나가며 짚어 댄다.

멀리서 돼지 새끼 소리가 들렸다.

『굴굴! 꺽꺽! 뽕뽕!』

돼지 새끼 소리에 복실이가 놀랐던 모양이다.

지게다리를 지게 꼬리로 얼거맨 위에 자루 속에서 꿈틀대며 버둥대며 낫선 곳으로 팔려온 새끼 돼지는 귀엽고 대견하기가 여간 아니었다.

돼지우리에다 내려 놓았다.

어리둥절한 돼지 새끼는 허리가 늘씬하며 다리가 길었다.

토종 돼지가 아니었다.

젓살이 찢서 반짝 반짝 빛나고 토실 토실 함을 느꼈다.

새로 넣은 복더기에 몸을 숨기며 어미를 찾는 외로움에 죽통에 맛있는 죽을 먹을 생각을 않는다.

온 식구가 다 들여다 보며 즐겨 한다.

이집 딸 길순이도 좋아 한다.

길순이는 부엌으로 가서 진한 뜨물로 반찬 찌꺼기를 넣어 가지고 왔다.

아버지는 죽통을 뒤집어 털고는 죽을 부어 주었다.

『아마 며칠은 잘 안 먹을 거다! 젓살이 빠지고 한 열흘 고생을 해야 먹기 시작 할거

다 서두르지 마라』길순이는 이번 돼지가 더 친근 감을 느끼며 더 잘 키워야 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번 드나들었다.

진달래 살구꽃이 지던 어느날 이었다.

돼지는 주립을 떨고 하루가 다르게 커 갔다.

길순이가 돼지 죽을 들고 나가면 복더기에서 알아보고 꿀꿀거리며 반가이 다가 온다.

죽을 부어 주면 앞다리를 죽통에 들어서서는 맛있게 정신 없이 먹는다.

한참 먹다가 길순이를 쳐다 보며 무어라고 이야기 하듯이 꿀꿀- 거린다.

배가 부르면 복더기에 번듯이 누워 버린다.

긴 막대기로 등을 사타구니를 긁어 주면 여간 시원해 하는 것이 아니다.

사타구니를 긁어 주면 반눈을 뜨고 뒷다리를 번쩍들고 흐뭇해 한다.

길순이는 깜짝 놀라 긁어주던 긴 막대기를 걸어 치웠다.

공연히 얼굴이 붉어짐을 느꼈다.

누가 보지나 않았나하고 사방을 살폈다.

사타구니 옆에 돼지 불알 두쪽이 불룩히 솟아 오름을 보았다.

부엌으로 쫓겨 들어오며 생각했다.

『아버지! 돼지 불알 갈때가 됐어요!』하고 말을 해야 하나 어찌나?

아버지도 알고 계실까? 모르실까?

웬지 걱정으로 닳아오는 것은 내가 시집 갈때 잔치음식으로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 이리라.

『날이 폭해지고 더워지기 전에 불알을 까야 할텐데- 시기가 늦으면 불알이 잘 아물어 붙지 않고 덧나면 큰 낭패를 보게 될텐데-』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는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야 겠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접었다.

다음날 식전에 대추방메이(방망이) 아저씨를 모시고 오셔서 아침을 같이 하셨다.

길순이는 알고 있다.

아침을 먹고는 돼지 불알을 까는 작업이 시작 된다는 것을-

대추방메이 아저씨는 키가 짝달막하고 오동통하며 머리를 짧게 깎은 오십이 막 넘은
이로 못하는 것이 없는 기술자이고 재둥이고 손재주가 기가 막힌 재골이다.

대추방메이 아저씨는 담배를 피워 물고는 발뚱을 이리 저리 돌아 다니며 사금파리
(사기그릇 깨진 조각)를 주워 모으고 돌에다 때려 날카로운 조각을 서너개 고르시고
계셨다.

아버지께서는텐(뒗뜰) 굴뚝머리에 세워둔 호염 소금 가마니에서 서너종지 푹떠서 소
주병과 함께 돼지우리 앞에다 준비 하셨다.

모닥불도 피워 한결 분위기를 고조 시킨다.

그리고는 모닥불에다 사금파리 깨진 것을 달구어 소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전
쟁 준비에 칼을 가는 것 같은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다 준비가 되었다.

대추방메이 아저씨가 먼저 돼지우리로 들어 가셨다.

앞집 춘식이 아빠가 들어 섰다.

아버지는 헌 가마니테기를 들고 들어 스셨다.

대추방메이 아저씨가 갑자기 돼지 꼬리를 쥘싸게 잡았다.

돼지는 놀라서

『주인댁! 나 좀 도와줘요? 주인댁! 뻑- 뻑!』 하고 소리 쳤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대추방메이 아저씨는 꼬리를 잡고 뒷다리가 들리도록 들고 옆으로 틀으니 쓰러졌다.

아버지께서는 들고 있던 가마니로 푹 덮었다.

그리고는 걸터 깔고 앉았다.

춘식이 아빠는 두 뒷다리를 뱃투잡고 벌리고 있었다.

불룩한 불알 두쪽이 드러나자 아저씨는 오른쪽 불알을 꼭쥐어 압박을 가하고 불알
알맹이가 튀어 나오도록 힘을 주었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사금파리로 긁어 내려 베기
시작 했다.

근육이 으스러지며 베어져 오르라들며 피가 내비치고 얇은 불알 가죽이 구멍이 나니
뽕안 불알 알맹이가 툭 튀어 나오며 긴 오라기 끈 같은것이 끊어 졌다.

숫놈의 작은 분만 같은 고통의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느 야만 민족의 전통 행사 같은 비참한 모습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괴성을 지르던 돼지는 지쳤는지 발광이 덜해 졌다.

평알만한 불알 알맹이 두개가 피문은채 접시 위에서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 불알 알맹이가 거세된 돼지는 신이 내린 모든 권리와 숫놈의 권위와 삶의 쾌락과 삶의 의미를 삶의 고귀함을 그리고 삶의 존엄함이 모두 거세된 것이니 불알은 소중한 존재임을 새삼 크게 느껴진다.

그래서 인가? 할머니 할아버지는 귀여운 손자의 불알과 잠지를 아주 대견해 하고 믿음직 스리워하고 소중히 여겨 떼어 달라고하여 입에 넣고는 먹는 시늉을 하며 맛있다고 입맛을 다신다.

손자와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가 그리 좋은지 희색이 만연하여 웃고 즐긴다.

거세된 돼지는 육질이 연하고 국부의 노린내도 없으며 맛이 고소하고 향기가 있다는 것이다.

세상 삶의 번뇌와 고통의 진액이 사라지니 잘크고 육질도 연하게 되니 맛과 향기가 있을 수 밖에-

인간은 잔인한 존재인가?

대추방메이 아저씨는 소금을 한움큼 가져다가 불알 알맹이 나온 구멍에다 꾸겨 넣기 시작했다.

피가 생각보다는 많이 흐르지 않았다.

소금을 다넣고는-

『다 됐어요! 에이 혼났다! 며칠 고생 할게다!』

『에이- 수고 했네!』

『이놈은 성질이 순하고 살이 연해서 일이 쉬운데요!』

세 사람은 돼지우리 밖으로 나왔다.

돼지는 정신이 없는지 한참을 서서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만 껌뻍이고 복더기 속으로 들어 간다.

돼지우리 주위는 다시 조용해 졌다.

아침 햇살이 돼지죽통 주위에 앉은 파리 등에 아침 이슬을 말리고 있었다.

돼지는 이틀을 누워 알았다.

삼일이 지나서야 조금씩 죽을 먹기 시작 했다.

길순이는 음식 찌꺼기며 등거를 아끼지 않고 잘 거두웠다.

무럭 무럭 외크듯 허리가 길어 졌다.

쪼그라 붙은 불알은 흔적도 없이 민밀한 뒤 궁둥이가 노루 궁둥이처럼 소담스러 왔다.

정말 돼지처럼 먹고자고 살만 켜다.

불알이 없는 수태지는 만사가 태평이다.

성을 초월한 구도자가 아닌가?

그리워할 것도 근심할 것도 초조와 불안도 시기와 질투도 음모와 모략도 돈과 명예도 자식에 대한 걱정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삶의 애착이 무너져 절실함이 없으며 의욕과 희망이 날아간 새가 되어 무의미한 나날이 보내질 뿐이다.

구름이 흘러도 비바람이 불어도 달이 밝아도 별이 반짝이여도 낙엽이 떨어저도 눈이 와도 강물이 흘러도 의미와 뜻을 소실한채 생명 섭리의 한계점을 응시 하는 것인가?

참 이상한 일이다.

대추방메이 아저씨가 돼지의 삶의 알맹이를 빼낸 것이가? 불알 알맹이 속에 삶의 의미가 핵이 되어 정자를 생산하는 것인가?

다리가 없어도 팔이 없어도 그렇게 되지는 않거늘 -

길순이는 삶의 근원이 불알 알맹임을 새삼 느끼며 정신적 결혼준비도 하는 것이리라!

불별 더위에 보리 타작을 했다.

보리단을 큰 돌에 휘둘러 메어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안스러 왔다.

채질을 하면 곱고러운 보리짚이(보리수염) 목에 거드랑이에 허리 춤에 발가락 사이

에 안배기는 곳이 없었다.

일년 농사중 제일 힘들고 피로운 것이 밀보리 타작이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새우젓 장사 아저씨가 나타난다.

지게에다 새우젓 항아리 둘을 얹어 지고는-

『새우젓 사려! 황석어젓 사려!』

소리치며 동네 집집마다 누빈다.

보리 타작에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어머니는 겉보리 두말을 푹-퍼주고는 새우젓 세사발을 사셨다.

새우젓 장사 아저씨는 점심을 얻어 먹은 탓인가 사발이 넘치도록 후하게 주셨다.

새우젓 요리는 다양하다.

계란을 풀어 새우젓을 넣고 찌는 계란찜

애호박에 감자 파를 넣고 볶은 호박찌게

새우젓에 양념을 하여 밥술에 넣어 찌서 먹는 새우젓 찜

두부에 새우젓을 넣어 끓이는 두부찌게

신김치에 호박넣고 감자넣어 찌는 김치찌게...

바다 냄새와 바다맛은 여름 입맛을 돋구 왔다.

어머니가 길순이에게 몇번 당부를 했다.

『애야! 설것이 할때 새우젓 국물은 따로해서 버려라!

돼지죽에 들어가 돼지가 먹으면 큰일 난다! 돼지 창자가 다- 녹은 단다!』

길순이는 늘 조심을 했다.

아침에 돼지에게 죽을 주어도 복더기 속에서 나오질 않았다.

느른하니 복더기 속에 누워 길순이만 쳐다 본다.

이상하였다. 여태까지 돼지가 죽을 안먹는 일이 없었는데 병이난 것이다.

알고보니 어제 일꾼을 부치어 감자를 췌다.

앞집 춘식이 엄마가 점심을 도우러와서 같이 설것이를 하는데 새우젓 국물을 따로 안하고 돼지 뜨물에 부었다.

그것을 모르고 길순이가 돼지에게 그 뜨물을 그냥 주었다.
큰일이 났다며 약을 먹이기에 급했다.
숯을 갈아서 진흙물에 섞어 소주병에 넣어 돼지 입에다 꺼꾸로 물리어 강제로 약을 먹였다.
가위로 꼬리를 피가 나오도록 잘랐다.
귀도 피가 내비치도록 잘랐다.
길금 물도 먹였다.
한참 후에 들기름도 먹였다.
길순이와 온 식구는 근심과 걱정이 하늘에 닿았다.
배가 훌쩍한 돼지는 허리가 더 길어 보였다.
저녁때가 되어서야 억지로 일어나 죽통으로 와서는 조금 먹는척 했다.
『애야! 죽을 너무 진하게 많이 주지 마라. 요행이 새우젓 국물이 양이 적었으니 말이 지-!』
나달 고생을 했다.

아침 저녁으로 중추 적삼이 엉클어 보여 상큼함이 선득 선득 했다.
어부랑 메뚜기가 많이 보였다.
누런 들판에 풍년이 가득하다.
추석이 지난 며칠후 압실 박씨네 집에서 사주함이 왔다.
길순이는 가슴이 서먹하니 두근 거렸다.
공연히 열적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어색하며 몸둘바를 몰랐다.
어른들 끼리 정하고 모든 절차를 추진 하기에 오늘 처음 신랑될 분을 보게 되는 것이다.
궁금하고 호기심도 조금은 있었다.
앞으로 살을 붙이고 살아갈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다.
씨할 암탉도 잡고 장에서 생선도 사오셨다.
부엌에서는 음식 장만하기에 여염이 없다.

중매쟁이 신랑친구 세분을 잘대접 했다.
 길순이는 둘이서 처음 뒹돈산을 거닐 었다.
 초저녁 반달이 길순이를 더 예쁘게 만들었다.
 사랑에 불을 붙이는 말을 많이 했다.
 영화에 주인공 같았다.
 자연 섬리의 오묘함이 처음 본 사람을 신뢰하게 되었다.
 이밤에 단둘이라도 두렵거나 무섭지가 않음은 어떤 일인가?
 앞으로 사랑할 대상으로 충분함을 느꼈다.
 밤 늦게 일행은 돌아 갔다.
 어머니는 나를 부르시고는 아버지와 함께 함속에 들어 있는 사주와 예단을 꺼내보고
 만족해 하시며 금지환과 작은 손목 시계를 꺼내시었다.
 바쁜 나날 이였다.
 돼지도 백근(60kg)이 넘을 만큼 컸다.
 드디어 시월 스무하루가 사흘 앞으로 다가 왔다.
 오늘은 공들여 키운 돼지를 잡는 날이다.
 아침 일찍 대추방메이 아저씨가 오셨다.
 대여섯개 칼을 숫돌에 갈고 있었다.
 짧은 창칼 낫부러진칼 끝이 뾰죽한 식칼 등이두터운 무쇠칼 작은 손도끼 날이 짧은
 손창칼.....
 저 많은 칼이 쓰이는 곳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소죽 끓이는 사랑방 가마솥에 물을 가득 채우고는 장작을 지폈다.
 그리고 쪼토매 큰 나무토막 헌 가마니.....
 그릇으로는 큰함지박 큰오지자배기 큰두멍 양푼 사발.....
 죽음의 시간은 점점 다가 오는데- 무지한 돼지는 배가 고프다고 바싹마른 죽통을 밟
 고 고래 고래 소리를 지른다.
 평상시에는 소리만 지르면 뛰어 나오던 주인댁과 길순이가 코빼기도 안보인다.

어쩐 일인가?

돼지가 병이라도 날라치면 범석을 떨고 야단 치던 온 식구들이 오늘 아침은 본체도 않는다.

돼지는 이세상에서 제일 고맙고 감사하고 그 큰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이가 주인댁과 길순 아가씨인데 어쩐 일인가?

길순이는 부엌에서 아침 설것이를 하면서 조금은 섭섭함과 두려움이 그리고 배신감이 교차 되어 시무룩한 모습이다.

『돼지야! 미안하다! 운명은 어쩔수 없는 거야! 배신이 아니고 섭리란다!!』

이세상 만물은 다 이용 당하고 사는 거야!

인간 세상도 누가 이용을 교묘히 많이 하는냐에 따라 돈과 권력이 왔다 갔다 한단다!

나도 지금 신랑한테 이용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단다!

돼지야! 너는 사람한테 이용 당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신(神)에게 삶 전체를 이용 당하고 조물주에 의하여 살고 죽는 운명이 결정되고 있는 지도 모른단다!』

돼지우리 문이 열렸다 죽음의 문이 열린 것이다.

긴 작대기로 내몰았다.

멧 모르고 밖으로 나온 돼지는 허기가 젖는지 공연히 허둥 대는것 같았다.

대추방메이 아저씨가 꼬리를 밟으게 잡고는 뒷다리가 들리도록 잡아 당기니 돼지는 꼼짝도 못한다.

아버지는 준비된 지게꼬리로 뒷다리 둘을 꼭꼭 잡아 당기어 묶는다.

돼지는 옆으로 쓸어지고 만다.

또 앞다리도 둘다 푹푹 묶었다.

돼지는 입에서 허연 거품이 나오도록 주인댁을 불렀다.

『주인댁!? 주인댁!?!』

돼지의 비명과 애원이 마치-

『주인댁! 주인댁!』하고 부르는 소리로 들린다.

『한 백삼십근은 실하겠는데-』

대추방메이 아저씨는 겨냥해 본다.

꽁꽁 묶은 앞 뒷다리 사이로 긴 장대를 끼워 들어서 번쩍 들었다.

그리고는 짚더미 위에 올려 놓고 벼개를 비키듯 큰나무 토막을 목 밑에다 들어 댔다.

그리고는 소리지르는 입을 어금니 위쪽에다가 끈으로 꼭꼭 묶었다.

이젠 소리도 못지르고 버둥 대기만 한다.

헌 가마니때기로 몸을 덮고 양다리로 걸터 앉아 누르고 대추방메이 아저씨는 찌를 칼을 골라 뒤로 감추고 다가서더니 한쪽 손으로 돼지 눈을 가리고는 또 다른 손으로 목에 칼을 내리 꽂고는 앞뒤로 칼을 흔들어 목을 뚫다.

숫구치는 피를 양푼에다 받는다.

몇번 버둥대며 피를 튀기며 칼자국으로 숨을 내뿜더니 이내 느러지고 만다.

심장이 피를 다 밀어 냈다. 한 양푼 가득 하다.

『빨리 끓는 물 좀 퍼오너라!』

가마솥에서 펄펄 끓는 물을 퍼 부었다.

『뒤척거리며 사타구니 머리통 꺾가에다 물을 많이 부어요! 거기 털이 잘 안뽑혀요!』

아버지와 대추방메이 아저씨는 털을 뽑기 시작 했다.

긴 털은 한 움큼씩 잘 뽑혔다. 그리고 잔털은 낫 부러진 칼로 면도질을 하였다.

정말 사타구니와 꺾가에 털이 잘 안뽑혔다.

대추방메이 아저씨는 무엇이 그리 좋은지 신명나게 맘을 홀리며 일을 한다.

아저씨는 또 땀 칼을 골라 들고는 다가서더니 배를 가른다.

내장이 쏟아져 흘러 내린다.

두멍에다 걸어 올려 담는다.

『내장 터지지 않게 조심해요. 터지면 순대맛 버려요?』

김이 무럭 무럭 나는 내장이 피냄새와 비릿한 냄새를 풍기며 두멍에 그들먹 하다.

갈비 토신목 업준이 앞다리 뒷다리 각을 떼었다.

함지박에 그들먹하게 푸짐 했다.

뎨 작은 들기 좋게 새끼로 끈을 댔다.

대추방메이 아저씨는 창칼을 찾아 들고는 내장이 담긴 두멍으로 갔다.
조심스레 무엇을 찾더니 신중을 기해 애주먹만한 것을 떼어 낸다.
여으르(열) (쓸개)이다.
짚으로 상단을 꼭 묶어 사발에다 담는다.
『열은 내가 쓰겠네!』
『예 그렇게 하세유!』
『집사람이 툭하면 허리를 못써 고생을 하니 소주에 타서 먹게 해야겠네!』
아버지는 대추방메이 아저씨에게 사정을 하여 열을 얻었다.
열과 콩팥(신장)과 지라(비장)와 간은 잡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이다.
대추방메이 아저씨는 콩팥 지라 간을 찾아 떼어 내어 새끼로 묶어 울타리 허리나무
에 걸어둔다.
그리고는 창자를 부위 별로 자르고 끝을 짚으로 묶더니 묶은 끝을 다시 거꾸로 집어
넣고는 설렁 설렁 흔들더니 창자를 홀랑 뒤집어 똥을 털어 낸다.
역시 보통 사람은 못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긴 창자를 다 뒤집더니 오지 자배기에 넣고 물로 몇번을 행구어 내더니 소금을 한
바가지 부어 주물러 빨아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다.
위와 천엽도 깨끗이 빨아 손질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오줌통을 축구공처럼 마당으로
던진다.
동네 개구장이 아이들이 바람을 넣어 공 놀이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다.
고기는 광벽에 죽 걸어 간수하고 내장은 우물가에 놓여 쪼다.
일은 다 끝났다.
대추방메이 아저씨는 피문은 나무등걸 토막에 앉아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크게 한
모금 빨고는 무엇을 깊이 생각하는 한숨을 공중에서 뿜어 댄다.
『여보게! 얼마전에 머느리가 몸을 풀고 젖 양이 적어서 고생한다고 하던데 족발 둘
을 줄터이니 꼭 고아서 먹여 보게!』
『예!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말씀을 드릴 참이었습니다.』

대추방메이 아저씨는 울타리에 걸었던 콩팥 지라 간을 족발과 함께 묶어 들고 나선다.

『가겠습니다!』

『어- 수고 했네! 내일 모레도 과방일을 부탁 하네! 살피 가게-!』

재주가 많아 늘 바쁜 그는 통통 걸음으로 밭둑 길을 돌아 집으로 갔다.

빈죽통과 주인 잃은 돼지우리는 쓸쓸한 허공이 되어 허무가 가득하다.

저누리 때 밝은 햇살은 화사하게 돼지의 혼을 말리고 있었다.

약 력

-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조곡리 출생
 - 횡성 대동여자중학교 30년 근무
 - 횡성문학회 회장
-

추억 이야기

조 규 영



(1)

어린시절의 추억은 누구에게나 아련한 그리움으로 마음속깊이 남아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향을 잊지못하며 어릴때 친구들과 같이 뛰놀던 山川을 무한히 그리워한다.

그러나 나는 군대생활 3년을 빼고는 이제껏 고향을 떠나 살아본적이 없다 그렇다면 혹자는 나에게대해서 고향에 대한 애절한 감정이 뭐가 있겠느냐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내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몇십년동안을 한지역에 살면서 그 고장의 변하는 과정을 직접 보아왔기 때문일까? 이따금씩 빛바랜 사진같은 그 옛날의 정겨운 모습들을 머리속에 그려보느라면 어느새 어린시절의 아련한 추억들이 잔잔한 물결처럼 가슴에 밀려온다.

내가 태어난곳은 황성읍 읍하리의 바로 군청옆 동네이다. 이곳에서 어린시절과 학창시절 모두를 보냈고 이제 50을 훌쩍 넘어선 나이에 이르렀지만 아직까지 이곳을 떠나 다른곳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본적은 별로 없었던것 같다.

내가 어린시절을 보냈던 1950년대 중반기의 황성모습은 참으로 황량스럽고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황성시장 이래야 흙먼지가 펄펄날리는 신작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몇채의 목조2층 건물이 그나마 어린마음에 대단한 볼품거리였고 5일에 한번서는 장날이아니고는 늘 한산하기만 하였던 장터마당가로 함석지붕과 기와지붕을한 나즈막한 집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모습이 그래도 그때 어린마음에는 꽤 큰 도시처럼 생각되었다.

지금의 군청자리에는 그때도 군청이었지만 6·25전쟁의 폐허와 그 잔해가 그대로 남아있는 아주 쓸쓸년스런 모습이었다.

아마 일제때 지은것으로 기억되는 당시의 군청건물은 폭격타인지 모두 부서져 버린채 간혹 부서지다 남은 붉은 벽돌의 벽면만이 황폐한 모습으로 남아있었고 흙바닥에 널려있는 깨어진 벽돌사이로 무성하게 자란 잡초중에는 “까마중”이라고 부르던 조그만 열매가 달리는 큰키의 풀이 많이 있었는데 나는 또래친구들과 어울려 여름철에는 매일같이 가시덤불 속에서 이것을 따먹으며 뛰어놀았다.

지금 기억으로는 군청의 집무는 현재 군수관사앞 창고로 쓰고있는 자리의 허름한 목조건물에서 하였으며 그앞에 있었던 우물물맛이 유난히 차고 시원해서 우리는 가끔씩 이 우물에 물려가 빼적거리는 도르래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허기진 배를 채우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우물 앞쪽으로는 측백나무로 울타리가 되어있었는데 우리는 그 측백나무에 올라가 먹지도 못하는 측백나무 열매를 한주머니씩 따서 서로던지며 전쟁놀이로 시간을 보내었다.

그후 폐허화 되었던 지금의 군청자리에 새로히 군청을 건립하였는데 그때 어린 마음으로는 꽤 크고 웅장한 건물이었다고 느껴졌으나 지금은 그건물도 이미 없어져 버린지 오래되어 눈에 선하기만 할뿐이다.

그당시 군청에서 서쪽방향으로 경찰서가 나란히 있었는데 송판에 검은콜탈을 칠한 목조건물이었다. 우리는 몰래 경찰서에 들어가 쓰레기장에서 미농지를 주워 엽전으로 제기를 만들어 차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는 그당시 미농지가 우리들로서는 좀체 구하기가 힘든 최고급(?)화장지였으므로 우리들 사이에는 비록 쓰레기로 버려진 미농지였지만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싸움까지 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이나 그때나 경찰서쪽으로는 접근이 용이하지 못해 우리들의 놀이장소로는 적당하지 못하였던것 같다. 어쩌다 경찰서 안쪽에 들어가 놀다가 쫓겨나기가 일쑤였는데 후에 내가 어른이 되어 경찰관으로 그 건물안에서 직장생활을 하였으니 참으로 사람의 앞일은 아무도 알수없는 것임을 실감나게 한다.

군청과 경찰서 뒤쪽으로 지금의 3·1공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공원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산이었다고 느껴진다.

여름철이면 녹음이 우거져 사람이 드나들기가 쉽지 않았으며 여러종류의 새들이 상당히 많이 서식하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특히 “때까치”라고 하는 새가 유난히 많았었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나무에 잘오르는 친구들과 함께 새를 사로잡아 집에서 길러보겠다는 생각으로 새집을 찾아 해마다 벌집을 건드려 벌에 쏘이기도 하고 나무 위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치기도 하였다.

그 당시의 3·1공원은 곳곳에 6·25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여기저기 파헤쳐진 웅덩이에는 미군들이 버린 깡통, 녹슨철모, 소총탄피 등을 쉽게 볼수 있었으므로 우리는 이런것들을 주워모아 고물상에 팔기도하고 엿을 바퀴먹는 짹짹(?) 재미때문에 수없이 공원을 쏘다니었다.

한번은 이런일도 있었다.

겨울이가고 따뜻한 봄날인 어느날 나는 그날도 늘 함께 어울리는 또래친구들과 공원 에서 놀고 있었다. 그런데 친구하나가 숲속 흙더미에서 꽤큰 폭탄한개를 발견하게되어 우리는 이것을 고물상에 파느냐 마느냐를 놓고 고심하다가 결국은 터질지도 모르니 이 폭탄을 한번 던져보자는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 위치는 지금의 태풍루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계단 근처로 기억된다.

지금은 그곳이 계단으로 잘정리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그곳이 사태가 저 급경사의 황토흙이었고 그 아래쪽은 편편한 풀밭이었다.

결국 “진철”이라는 친구가 그 폭탄을 발로 밀어 경사진 아래쪽으로 굴러버렸는데 그 폭탄이 아래풀밭에 굴러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쾅”하는 큰폭발음을 내며 그만 터져버린 것이다. 마침 아래풀밭에는 우리와 같은 동네에 살고있는 여자애들이 나물을 캔다고 나와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격이다

우리는 폭발음에 놀라 기겁을 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만 이사고로 여자동창생 한 명이 얼굴에 중상을 입고 큰병원으로 후송되어 꽤 오랫동안 고생한 것으로 기억되며 그 여자아이는 초등학교 졸업때까지도 얼굴에 흉터가 남아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그당시 내가 살고있는 마을에서는 지금의 3·1공원을 뒗동산이라고 불렀다. 물론 우리집에서보면 분명히 뒗쪽의 동편에 있는 산이었으니까 뒗동산이라고 부른것은 틀림없이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그 뒗동산자락인 우리동네에는 “예수물”이라고 부르는 공동우물이 있었다. 이 우물은 그당시 물맛좋기로 황성장안에서 제일로 알아주는 유명한 물이었으므로 매일같이 아침저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곤 하였다.

이 “예수물”에서 뒗동산쪽으로 약 20m정도 떨어진곳의 언덕에 “호래이바우”(호랑이바위)라는 검은 바위가 있다. 옛날에 호랑이가 밤마다 나타나 이바위 위에 올라앉아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우리는 가끔씩 이 바위에 올라가 마을을 내려다보며 무슨 개신장군이라도 된것처럼 우쭐대기도 하였다.

(Ⅱ)

우리집에서 내가다니던 황성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10분이내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였다.

집을나서 사거리 하나를 건너면 바로 학교가 바라다 보이는 똑바르게 뻗어나간 학교길과 마주하게 된다.

학교길 양옆으로 높다랗게 자란 미류나무는 우리에게 봄철이 되면 물오른 가지를 꺾어 피리를 만들어 불게하였고 여름에는 학교길의 나른함과 뜨거운 피약별을 피해 그늘아래 주저앉아 땅바닥에 금을 긋고하는 “끈질이”라는 놀이를 무수히 많이하게 하였다.

가을철의 학교길옆 황금벌판은 유난스레 넓어보여 그당시 바다를 본적이 없는 나로서는 바다가 이앞뜰보다 얼마나 더 넓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추수가 끝난 겨울에는 동네에서 가까웠던 학교앞뜰이 우리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은 어찌면 너무나도 당연하였던것 같다.

주로 “찢빵”이라고 하는 지금의 야구와 같은 놀이를 많이 하였는데 추수가 끝나 시커먼 흙을 드러낸 논바닥에서 서너너댓살 위의 형들과 같이 편을 갈라 해가지몰어 어두워질때까지 “호무랑”(흙런)을 소리지르며 뛰놀던 기억이 새롭다.

학교 뒷편쪽으로는 넓은 소나무숲이 있었는데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숲은 하늘이 안보일 정도로 아름답고 소나무가 울창하였고 숲속엔 이름모를 풀들이 많이 있었다.

교실이 부족하였던 그때 당시 가끔씩 우리는 소나무밑 풀밭에 줄을 맞춰앉아 선생님의 하모니카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불렀으며 숲속에 들어가 풀벌레를 잡기도 하고 네잎클로버를 찾아 헤매기도 하였다.

지금도 황성초등학교 뒷마울(現 읍하3리)을 “숲바께”(숲밖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숲이 그만큼 울창하여 유명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나이가 드신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6·25 전만해도 밤이면 뒷내개를 건너산에서 호랑이가 물을 건너 이숲속까지 왔다가 새벽이면 돌아가곤 했다고 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숲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부터 서서히 숲의 명분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그후 더욱 많은 군인들이 이곳에 오게되어 철조망을 설치하기까지 이르렀는데 그로인해 나에게 즐거움이 생겼다면 그것은 학교공부가 끝나기 무섭게 몇몇애들과 어울려 군부대안의 쓰레기장을 뒤지는 일이었다.

물론 군부대만큼 철조망도 총총히 쳐져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경계초병도 여기저기 있었던것으로 기억되지만 철없는 우리는 겁도없이 부대안의 줌도둑(?)이 되어버린 셈이다.

그때 나와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중에는 어린나이였지만 또래들중에는 비교적 힘도세고 배짱도 제법 있었던것 같다.

제일 겁이 많았던 내가 철조망을 힘껏 들어올리면 친구들은 다람쥐처럼 재빨리 부대안으로 들어가 쓰레기장에 버려진 빈병이며 고철(자동차 부품인 베어링, 스프링 또는 탄피통등) 따위를 철조망밖으로 던지고 나는 이것들을 주워 자루에 담은 몫을 하였다.

이렇게 모아진 고물들은 그날 그날 땀을 뻘뻘흘려가며 당시 구리고개 넘어에 있었던 고물상까지 운반하여 몇가락의 옛 아니면 보잘것없는 몇푼의 돈으로 바꾸는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당시에 돈경조차 하기 힘들었던 우리들의 처지로서 이것은 큰 즐거움이 아닐수 없었다.

(Ⅲ)

내가 어렸을때의(1950年代) 황성 뒷내개울물은 그냥 떠마서도 좋을만큼 맑고 깨끗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당시의 뒷내개울은 물도 깨끗하였지만 개울가로 펼쳐진 형형색색의 크고작은 돌들과 모래밭, 그리고 듅성듅성 저절로 생겨난 풀밭과 바위들이 잘 조화되어 한폭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생각된다.

그 뒷내개울과 우리집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였다. 지금은 4차선의 포장도로로 번듯하게 변해 있지만 그때 당시는 자동차라도 한대 지나가면 흙먼지가 뿌옇게 피어오르는 자갈길의 좁은 신작로였는데 그길을 따라 구리고개를 넘어서면 바로 뒷내개울과 만나게 되는 거리였었다.

그때 당시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그랬겠지만 여름철이면 특별나게 시간보내며 놀만한 곳이 없었던 나는 거의 매일같이 개울가에서 동네친구들과 어울려 많은 시간을 보낼수 밖에 없었던것 같다.

지금은 수영복을 비롯한 여러가지의 물놀이 기구가 흔하지만 그당시에는 그러한 것들을 알지도 못하는 시절이었으므로 우리는 모두가 알몸이 되어 물속에서 텀벙거리며 시간을 보내는것이 여름철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그때 우리들이 물속에서 주로 즐겼던 놀이로 생각나는것은 모양이 좀 색다른 돌 하나를 여럿이서 정한후 이들을 물속에 던져놓고 이것을 누가먼저 찾아내느냐의 이를테면 일종의 보물찾기식 시험놀이인데 이놀이는 인원수가 많던 적던간에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함께 어울려 놀기가 좋아 유독 이놀이를 많이하였던 기억이 난다.

먼저 귀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속에 침을넣어 바른후 자맥질을 해 물속으로 들어가면 대번에 코속으로 물이들어와 코와 눈언저리가 찢해온다.

그러나 이를참고 눈을 크게 뜬채로 물속바닥에서 돌을 찾기위해 안간힘을 쓰며 허우적 대다보면 시간은 왜 그렇게도 빠른지 긴하루해가 짧게 느껴질 정도로 재미가 있었다.

몇시간을 반복해서 그것을 하다보면 눈동자가 샛빨강게 충혈이 되고 입술이 파랗게 변색이 되는데 그때쯤되면 우리는 하나, 둘씩 물밖으로 나와 돌자갈밭에 모여앉아 햇볕

에 몸을 말리며 “돌싸움” 놀이를 하였다.

“돌싸움”이란 개울가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조약돌중에서 만만한 돌을 골라 이것을 크고 단단한 돌에 부딪쳐 깎아낸 부분의 침을 발라 다시 원상태로 붙인후 서로 부딪치게 하여 먼저 떨어지는것이 패하는 놀이인데 주로 먹을 실컷 감은후 개울가에 나와앉아 컵속에 들어간 물을 빼기도하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는 놀이였다.

그때 우리가 즐겨놀던 뒷내개울에는 “잠뿌바위”와 “굴바위”라고 불렀던 바위가 있었다. “잠뿌바위”는 주변에 고운모래가 깔려있어 바위 위에 올라가 물속으로 뛰어내리기가 좋아 이 바위를 무척 많이 찾았고 “굴바위”는 물속에 잠겨있는 조그만 바위였는데 바위사이로 나있는 틈이 마치 굴처럼 되어있어 물속으로 들어가 이곳을 빠져나가는 재미로 우리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아마 지금도 그 바위는 옛날과 변함없이 그대로 있겠지만 그때 같이놀던 친구들은 모두 흩어져버려 가끔씩 얼굴이 그리워 진다.

조금 나이가 들어 초등학교 5~6학년쯤 되어서부터 내가 즐겨 여름을 보냈던곳은 역시 같은 뒷내개울이었지만 집에서 조금 떨어진곳에 있었던 “한디기”라고 부르던 곳이다. 이곳은 대동여자중학교 앞에서 논길을 따라 한참 개울아래쪽으로 가야하는곳인데 큰바위를 뒤로하고 그앞으로 커다란 웅덩이처럼 물이깊어 익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한 장소였다.

한해 여름이면 보통 한두명 정도는 꼭 이물에 빠져 목숨을 잃는 곳이었으므로 그당시 부모님들은 우리가 이곳에 가는것을 한결같이 못마땅해 하셨다. 그러나 헤엄치는것에 제법 익숙해진 우리는 한길깊이도 안되는 얇은물에서 노는것에 대해 싫증을 느끼게 된 것이다.

부모님에게는 절대로 “한디기”에 가지않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틈만나면 이곳으로 떼를지어 자주 몰려갔는데 “한디기”는 항상 바닥이 안보일정도로 깊고 시퍼런물이 소용돌이를 치는곳이어서 선뜻 물속으로 들어가기에는 겁부터났지만 우리는 용감한척 서로 우쭐대며 그 시퍼런물을 가로질러 헤엄쳐나가 바위에 기어올라 얇팍한 수영실력(?)을

은근히 뿔내기도 하였다.

그당시 “한디기”는 나와같은 초등학생들은 많지 않았고 대개는 중·고등학생 이상의 청년들과 일반어른들이 많이 모이던 곳이다.

그만큼 그곳은 물깊이가 그당시 우리들의 키 5~6배 이상정도로 (그때 우리는 물깊이를 재기위하여 물속에 들어가 대여섯명이 무릎을 타는 식으로 물깊이를 측정하였음) 깊어 항상 익사위험이 따르던 곳이었는데 때로는 물놀이에 익숙치 못한 외지에서온 학생이나 군인들이 목숨을 잃는것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유명하였던 “한디기”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바위도 없어져 버리고(갈풍리 쪽 도로확장에 따른 발파로 없어져 버렸는지 아니면 장마홍수에 의한 물구비 변화로 하천바닥에 묻혀 버렸는지 알 수 없음) 그시퍼렇게 소용돌이치던 물도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게 되어 마치 아득한 옛날의 전설처럼 느껴져 더욱 “한디기”의 검푸른 물빛과 바위가 눈에 그리워진다.

약 력

-
- 璽成喩 읍하리 318번지 出生
 - 璽成 초·중·고교 卒業
 - 前 한나라당 璽成군 연락소장
 - 現 璽成喩 읍하리 456-1번지 居住
-

여름을 보내며...

장 정 숙

폭염과 함께 시작되었던 올 여름은 우리 가족에게도 많은 변화와 함께 지나갔다.

삼년여 중풍으로 누워계시며 수발을 받으시던 시아버님을 뒤로하시고, 아흔의 연세 이셨지만 건강 하시던 시어머니께서 속이 편치 않으시다며 자주 약을 청하시고 식사를 거르시는 일이 잦아지길 보름쯤이나 되었을까, 임종조차 못받으신채 홀연히 숨을 거두셨다.

오래도록 병상에 계신 아버님의 그늘에 가려 시름시름 하시면서도 환자 대접조차 제대로 못 받으신채, 그렇게 쉽사리 가신것을 모두들 안타까워 하였지만 칠십년이 넘도록 해로하시던 분을 하루 아침에 떠나 보내시고, 가장 상심이 크셨던 시아버님께서는 무척이나 쓸쓸해 하시더니 채 한달이 못되어 어머니뉘를 따라 가셨다.

우리 부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형제들은 모두들 타향에 자리잡아 사시고 큰댁과 막내인 우리만이 고향인 이곳에 이웃해 있었고, 홀로 부모님을 모시는 만형님의 입장도 있었기에 웬만한일은 내 성의껏 해 보겠다고, 병수발에 적극 참여하였던터라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을 차츰 실감하며 나 역시 내심 지쳐있었다.

시아버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신후 거둬되던 입원과 퇴원,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나 생리적인것조차 우리들의 손을 빌려야 해결되는등...

이렇게 일 이년이 넘도록 거둬되는 곳은일들이 차츰 부담이되고 짜증스럽기도 했었다.

어느때든 부르시면 다른일 접어두고 달려가던 마음도 점차 느긋해지고, 이것저것 청하는것도 우리의 판단에 따라 행동 하였으니, 온전히 자식들 의지해 연명하시는 그분께서는 야속한 일도 한 두가지 아니었을 것이다.

언제까지나 계속될 일인듯 무겁게 여겨지던 상황들이 어느날 문득 끝나버리자, 내 마음을 가득채운 것은 홀가분한 해방감이 아니라 뭔가 다 하지 못한 죄스러움과 허전함이었다.

살아가실 당시에는 이만큼하면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 했었는데 막상 돌이켜보니 그것이 아니었다.

중풍으로 쓰러지기 전에는 정정하시고 부지런하시며 매사에 적극적하시고 자식들 앞에서도 당당하던 분이셨는데, 더할나위 없이 무기력하게 되시어 모든것을 남에게 의탁하게 되시고 더욱이 머느리 손을 빌리고 싶지않은 수치스러우셨을 일조차 도움을 필요로했던 그분의 괴로운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었다.

그저 내가 하는일이 만만치 않다는 것만이 가장 집하기 쉬운 나의 감정이었다.

사노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괴로움이나 어려운 고비들도, 순리를 따르다보면 머지않아 지나가는 인생의 한 과정인데 막상 그 자리에 서게되면 긴 안목으로 풀어나가는 지혜로움이 부족해 후회없는 모습으로 가꾸어가기는 어려운것 같다.

인간의 일생을 통해 남는것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것이 아니라 남에게 준것뿐 이라는 말이 새삼스럽다.

어려울때 타인에게서 받은 따뜻한 말한마디, 성의있는 도움 한가지가 가슴속에 두고두고 남는것은 인간들만이 누릴수 있는 특별한 기쁨인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경쟁과 개인주의의 분위기에 자연스레 동화되어 가고있으니 나누는 삶의 풍요로움은 옛 이야기가 되어버릴지도 모르겠다.

우리들 세대가 상노인이 될때까지 아니 우리의 아이들 또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다시 노인이 되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고 자식은 늙은 부모를 성심껏 섬길수 있기를 소망해야 할것같다.

시부모님의 빈 자리를 새삼느끼며 그렇게 한세대가 단절되어 떠나가는 경험을 하며 우리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진솔하게 풀어나가야할 숙제처럼 여겨진다.

큰일을 두번씩 치루어낸 올 여름은 어느사이 한결 높아진 하늘과 함께 저만큼 그 끝을 보이고 있다.

言 語



박 현 숙 (횡성읍 북천리)

희뿌연 안개 넘어
애잔한 삶이 피어나는
이 땅에 초대된 사랑의 인연으로
산길 따라 물망초의 향연은
삶의 강에서 들리는 세미한 음성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고귀한言語
따뜻한 사랑입니다.

안개속에 묻어낸 그리움의言語는
못다이룬 이야기를 태고적부터 키워낸
이름 없는 소망...

새들을 그려 넣고
바닷물을 떨어뜨려
바람을 모아두는

숨막히도록 우리를 그림계하는
눈물이 날만큼 시름해진
영혼의 눈 가장자리

戒 雜 技



厚堂 宋演錫

莫謂當初消日資	막 위 당 초 소 일 자
傾家敗產幾人知	경 가 패 산 기 인 지
尺分賭大千金盡	척 분 도 대 천 금 진
一得味滋十失爲	일 득 미 자 십 실 위
親朋或有欺情處	친 붕 혹 유 기 정 처
族戚豈無輩面時	족 척 기 무 배 면 시
親朋族戚皆如此	친 붕 족 척 개 여 차
天地外他更信誰	천 지 외 타 갱 신 수

당초에 소일한다고 방자히 하지 말라
 집과 재산의 실패를 몇사람이나 알겠느냐
 씹씹이가 커져서 천금을 탕진하고
 한번 맛들인 재미가 열번인듯 못하라
 친한벗도 혹시 이런곳에 정을 쏟는다면
 일가친척이라도 얼굴을 마주할 수 없도다
 친한벗과 일가친척이 다 이와 같으니
 하늘과 땅외에 누구인들 믿을 수 있겠느냐

厚堂 宋演錫 / 橫城郡 屯內面 永浪里

향토문화답사

엄 수 희 (대동여자중학교 2학년)

선생님께서 나에게 향토 문화 답사를 가겠냐고 물어 보셨다. 나는 망설이다가 가겠다고 했다.

드디어 8월 1일 향토 문화 답사를 가는 날이었다. 망설이면서 설레었다. 우리는 약속 장소인 횡성 문화관으로 출발 하였다. 가는 도중에 향토 문화 답사를 가는 아이들을 많이 보았다. 우리는 횡성문화관에 가보니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았다. 조금 기다리니 서영희 선생님과 김형중 선생님께서 택시를 타시고 횡성 문화원으로 오신 것이었다.

우리는 정부에서 내준 차를 타고 금대리 의병총을 향했다. 금대리 의병총은 일본이 우리 나라를 침략하면서 1907년 조선군을 강제 해산하고 고종황제를 폐위한 만행에 분노를 금치 못하여 의병으로 봉기한 분들 중 이 지역 전투에서 순국하신 세분의 무연고 의병을 모신 묘역이다.

1907년 11월에서 12월 까지 이 곳. 서원면에는 700여명의 의병이 대부대를 이루고, 일본군 보병 제51연대와 대치하던 강원, 경기, 충청도 의병의 거점으로 연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이 전투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장렬히 전사하신 의병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길이 후손에 전하고자 묘역을 정비하고 비를 세웠다.

이 곳을 가보니 묘가 아주 웅장 했다. 그 웅장함에서도 업적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금대리 의병총을 본 후 우리 횡성의 상징 동물인 백로(왜가리)의 서식지를 찾아 갔다.

백로는 서원초교 압곡분교 맞은편 앞산에 무리지어 살고 있는 백로는 천연기념물 제248호로 지정 보호 되고 있다. 매년 3월 중순경 이곳을 찾아와 10월 중순이면 남지나 쪽으로 이곳을 떠난다고 하였다.

백로는 우리 고장의 상징이지만 자연에는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백로의 배설물이 나무에 닿으면 나무가 죽는다고 한다. 그러니, 백로는 우리에게 좋은 동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백로를 보고는 공근면 상동리 406번 지방도로 옆에 상동리 석불좌상이 있다.

불상이 있는 주변은 1993년 농경지 정리 사업과 도로 개설로 인해 많이 달라졌으며 원래 불상좌측의 논둑에는 광배편이 있었으나 지금은 찾아 볼 수 없다.

현재의 머리 조각은 1989년 10월 도난을 당한 후 새로 만들어 놓았으나 원형의 불상과는 상이한 모습이었다.

상동리 석불좌상 옆에는 상동리 3층석탑이 있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석탑은 아니었으나 역사가 깊은 석탑 같아 보였다. 상동리에서 떠나 풍수원교회를 갔다. 교회의 건축 양식은 고딕 양식이었다. 강원도에서는 가장 오래된 성당이라고 하여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풍수원교회는 1801년 신유박해 이후 1802년 혹은 1803년경 경기도 용인에서 신태보를 중심으로 하여 40여명의 신자들이 피난처를 찾아 해마다 정착한 곳이 풍수원으로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앙촌이다. 성직자 없이 신앙 생활을 하다 1988년에 불란서 성직자 로메르신부를 맞이하여 도내 최초의 전국에서는 4번째 세운 성지라고 한다.

우리는 풍수원교회를 답사한 후 갑천면으로 간다고 하였다. 가다 보니 외가집이 보였다.

나는 이 차에서 빨리 내려서 물장구를 치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곳에 놀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에서 나갈수 없었다.

우리는 봉복사와 신대리 3층 석탑을 보고 횡성으로 출발하였다.

오늘은 내가 몰랐던 횡성 문화재에 대해 배우고 익혀 아주 보람찬 하루였다.

기행문

최 봉 주 (대동여자중학교 2학년)

8월 1일. 토요일. 날씨가 맑음

오늘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고장

횡성의 문화유산에 대해 보고 듣고 공부하러 가는 날이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게 될까봐 전날밤에 한 재미있는 영화도 보지 않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선화와 만나 횡성 문화관으로 갔다.

그 곳에는 서영희 선생님과 선생님의 아들 또 김형중 선생님과 다른 몇몇 아이들이 있었다.

기다리다 보니 몇 분후에 버스가 횡성문화관 앞에 도착했다.

친구들과 함께 버스에 올라 '횡성의 문화유산'이란 책을 받고 횡성문화원 원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금대리 의병총이었다.

이 곳은 일본군들과 맞서 싸우다 순국하신 세분의 무연고 의병을 모신 곳이라고 한다.

우리 모두는 그곳에서 비석의 글을 읽어 보기도 하고 잡초를 뽑으며 봉사 활동을 했다.

우리가 두번째로 본 것은 압곡2리에 있는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였다.

차 안에서 지나가면서 봐서 그런지 새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백로 및 왜가리의 분비물 때문에 죽어있는 나무들은 푹푹히 볼 수가 있었다.

백로와 왜가리의 분비물에는 산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백로와 왜가리들을 죽이기도 한다고 한다.
버스를 타고가며 세번째로 본 것은 근처에 매봉산이 있기 때문에 이름 붙여진 매봉서원이었다.

네번째로 우리가 도착한 곳은 풍수원성당이였다.
이것은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에 자리 잡고 있다.
풍수원 천주교회라고도 불리는 이 풍수원 성당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69호이고 도에서 처음으로 세운 고딕양식의 천주교성당이라고 한다.
먼저 수도가에서 물을 마신 뒤에 성당 주위를 한바퀴 쭉 돌아 보았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고 성당안에서 기도하고 계신 수녀님도 보았다.

다음 다섯번째 견학장소는 장송모님의 도자기 연구원이었다.
그 곳 전시장에서는 여러가지 멋있는 도자기랑 작고 귀여운 찻잔이나 밥그릇 손가락 받침들을 많이 보았다.
도자기 만드는 것을 배우는 장소에서 장송모님께 횡성의 도자기 연구원이 더욱 발전하게 된다는 등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

그 곳에서 도시락으로 김밥과 빵과 음료수도 먹었다.
다음 여섯번째 본 것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20,21호인 상동리의 석불좌상 및 삼층석탑이었다.
석불좌상은 머리부분이 없어져 새로 만들어 놓았는데 색깔도 서로 어울리지 않고 원래의 모양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라서 보기에다 나쁘고 좋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일곱번째 견학장소인 청일면 신대리의 봉복사로 가기전에 횡성댐 공사 현장에 들렀다.

댐을 짓는 첫번째 이유는 전력생산을 위해서이고 두번째 이유는 원주와 횡성에 물공급을 하기 위해서라고 선생님께 들었다.
봉복사에서는 떡판과 맷돌 수로등을 보았다.

떡판은 올라가서 봐야했으나 올라가지 못해 보지 못했고 수로는 풀에 가려져 있어서 잘 보지 못했다.

그래서 아쉬웠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도무형문화재 제4호인 회다지소리를 하는 곳을 갔었다.

하지만 관계자가 없어 그냥 돌아와야 했다.

회다지 소리를 하는 곳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견학을 마쳐야했다.

여러군데 버스를 타고 돌아다녀야 했고 봉복사에 가느라 산에 올라가고 해서 피곤하긴 했지만 황성의 문화유산에 대해 깊이 알게 된 계기가 되어 기쁜 하루였다.



향토 문화 답사를 다녀와서

원 선 영 (대동여자중학교 2학년)

“따르릉!”

시계가 울렸다. 언뜻보니 7시 30분 이었다.

‘이크, 늦었다.’

잠이 확 달아났다.

오늘은 학교에서 마련한 향토답사를 가는 날이다. 출발시간은 9시였지만 집에서 나가는 버스가 8시 15분이어서 할 수 없이 일찍 일어나게 된 것이다.

“미영아!”

문화관에 가까스로 도착해보니 미영이와 효인이가 먼저 와 있었다. 한참을 모여서 방학동안 쌓인 수다를 떠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갑자기 관광버스가 왔다.

나는 얼른 그 버스에 아이들과 함께 올라탔다. 좌석버스를 타면 멀미를 하는 나였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아무렇지도 않았다. 거의 30분쯤 지났을까. 우리와 동행하시던 문화원 원장님의 설명이 이어졌다. 따분한 문화재 이야기였지만 난 책자를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화원원장님의 말씀대로 맨 처음 도착한 곳은 ‘금대리 의병총’이었다. 금대리 의병총에 들려보니 잡초가 많았다. 일본이 우리 나라를 침략했을 때 조국을 지키려다 전사하신 분들의 묘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뻘뻘했다.

그래서인지 잡초 뽑는 일이 싫지가 않았다. 금대리 의병총을 보고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탔다. 다른 곳을 둘러보기 위해서였다.

다음 답사는 원래 취석정이었지만 쏟아지는 비 때문에 취소되었다. 아쉬운 발길

을 돌리며 우리는 백로 왜가리 서식지에 다다랐다.

하얗게 떼 지어있는 백로 왜가리를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같았고 신비스러움까지 느낄수 있었다. 좀 더 구경하고 싶었지만 다음 답사지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잠시후 우리는 매봉서원에 잠깐 들린 뒤 말로만 듣던 풍수원 성당으로 향했다.

전국에서 4번째로 오래된 건물이라고 나와 있는 책자를 보며 기대감과 설렘이 동시에 전해져 왔다. 차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 올라가니 풍수원 성당이라고 쓰여져 있는 팻말이 나왔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마당에는 큰 나무 한그루와 수돗가가 자리잡고 있었다. 끝이 어 가장 앞에 자리잡고 있는 건물이 중세시대 가장 대표적인 건축양식이었던 고딕 양식이란 선생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성당을 한번 둘러보고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며 다음 목적지인 장송모 도자 연구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잠시 구경을 한뒤, 점심을 먹었다. 야외에 나와서 먹으니 더욱 맛있었다.

지친 몸을 달래며 휴식겸 식사를 마친 우리는 1시경이 다 되어서야 상동리 석불좌상과 삼층석탑을 보러 향했다.

도착해 보니 석불좌상이 머리만 복원 돼 있어서 형태가 이상해 보였다. 예전에 머리부분만 도둑 맞아서 다시 복원 했다는데…….

귀중한 문화재를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아쉬웠다. 문화재를 보호하기는 커녕 훔쳐가다니…….

좀 더 문화재 보호에 신경쓰고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다음은 청원각과 육절여를 차안에서 본 후 황성댐 건설현장으로 갔다. 원주권 내의 생명수가 될거라는 황성댐. 아까의 어두웠던 내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봉복사였다.

봉복사는 대웅전이 있었던 절터라고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또 맷돌, 수로, 떡판 등 요즘에는 쓰지 않는 여러가지 옛물건들을 보니 신기하기도 했다.

드디어 모든 답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역시 문화재는 귀중한 것이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우리 고장인 횡성에 이렇게 많은 문화재가 있는지 미처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빌어 알게 되어서 참으로 기뻐다.

'앞으로 문화재를 보호해야지'

하고 다짐하며 집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가볍게만 느껴졌다.



향토문화재 답사

변 윤 섭 (횡성고등학교 2학년)

'98년 7월 16일 잔뜩 흐린 날씨속에 답사의 날이 밝았다. 우리 횡성 지역의 역사 문화재를 답사하는 날이라 하늘도 비는 뿌리지 않고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았다. 답사 일행 40명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간단한 주의 사항과 답사 자료집을 받아 문화원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원 관계자 두 분이 나와 계셨다. 간단히 인사 소개를 마치고 서둘러 버스에 올랐다. 대체로 시간 계획대로 출발하여 첫 답사지역인 횡성읍 정암리로 향했다.

이곳은 횡성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인물인 고려때 조충과 그 아버지 조영인, 아들인 조계순이 모셔져 있는 세덕사가 있고, 조충 묘가 위치한 곳이다. 비포장 도로는 심하게 차를 요동시켰고 덩달아 우리들도 첫 답사 기행이라 설레는 마음을 안은 채 뒤뚱 거렸다. 막상 와보니 예전에 소풍을 온 적이 있는 레포츠 공원이었다. 약간 걸어 올라가 입구에서 원장님과 선생님의 소상한 설명을 들은 후 세덕사를 한번 둘러 보고 기념 촬영으로 이곳에서의 답사를 마쳤다.

조충 묘는 조금 떨어진 야산에 위치하여 대충 눈으로 위치를 확인했을 뿐(기상도 좋지 않고) 답사를 가지 못하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음 답사지인 강림 태종대로 향했다. 그곳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라 마음이 설레었고 한 시간 가량 소요되어 강림 태종대에 도착했다.

맑은 물이 흐르고 매우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임을 금방 느낄 수 있었다. 하물며 500년 전에는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가든이 부근에 위치해 있어서 마음이 불편은 했다) 태종대로 가는 입구까지만 포장되어 걸어서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입구에서 사연이 깃든 한곳 한곳을 확인하면서 원장님과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난 후 태종대 누각으로 우리 일행은 걸었다. 걸어 올라 가면서 나는 태종, 운곡, 노구소, 횡지암, 변암 등 당시 관련된 역사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역사의 시간속으로 빠졌고, 많은 것을 이것 저것 생각해 보았다.

가을에 선생님을 졸라 한번 더 와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역사의 시간과 물소리, 매미 소리를 뒤로 한 채 강림중학교 부근에 있는 의병총을 잠깐 답사하고 다음 지역인 청일 봉복사로 몸을 실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는가 싶어 매우 불안했는데 이내 그치고 우리편이 되었다. 천 년 고찰 지역으로 가는 마을 마을 곳곳은 깨끗하고, 싱그러웠다.

한 시간 남짓하여 사찰 입구에 도착 했고, 그곳에서 문화원이 준비한 도시락과 빵으로 점심을 먹었다. 그야말로 꿀맛이었다. 부도가 있고 수백년 된직한 고목이 있는 곳은 한마디로 한폭의 그림이었다.(허나 역시 가든과 취사 흔적은 우리들을 슬프게 했다)

이곳 봉복사는 신라때 자장이 창건한 사찰로 우리 지역에서 가장 유서 깊고 유명하다. 막상 경내에 들어서면 초라한 건물 모습에 실망하기 십상이지만 현재 복원공사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복원공사가 잘 추진되어 옛 모습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우리 지역의 제일가는 역사 문화 현장으로 거듭 태어 나길 바랄뿐이다. 그 바램을 합장으로 대신하고 기대가 제일 큰 중금리 3층 석탑으로 가기 위해 몸을 실었던만 이게 웬 날벼락인가?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장마로 인해 도로 사정이 나빠 가지 못하고, 부근에 있는 횡성댐 공사 현장을 견학한 후 시간이 충분해 공근 상동리로 간다는 것이었다. 제일 아쉽긴 했지만 봄때 향토 역사 연구반 답사를 갔다 온 것으로 대신 만족 해야 했다.

사실 탐 앞에서 답사 동료들에게 준비한 것을 멋지게 발표하려고 했었는데(?). 여하튼 계획이 빗나가긴 했지만 횡성댐을 견학하고 공근 상동리에 있는 불상과 탑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한 시간 조금 더 걸려 도착하여 보니, 도로 옆에 너무 초라하게 모양과 비례 그리고 설명이 반듯하지 않은(선생님 설명에 의하면) 채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다. 선생님의

마지막 설명을 듣고 단체 기념 촬영도 하고, 수천만원을 지원 받아 현재 보수 및 누각을 짓는 공사가 진행중이라는 문화원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며, 조금은 피곤한 몸을 차에 싣고 문화원으로 향했다.

처음으로 우리고장 답사 여행을 해 본 나로서는 이번 시간이 소중한 경험이었고, 행운이었다.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신 문화원장님과 두 분, 그리고 우리를 지도해 주신 변창수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

바람이 있다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가 많이 주어지길 기원하고 나 또한 더욱 우리 고장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리라 다짐한다. 마지막으로 홀로 외침이 아니길 바라면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외치고 싶다.

우리 모두 “어사매(횡성의 가장 오랜 명칭)”를 사랑하자고.



V. 문예백일장 입선작품 모음

향토문화행사

■ 제14회 태풍문화제

- 초 등 부
- 중 등 부
- 여성백일장

■ 제12회 태기문화제

- 초 등 부
- 중 등 부

■ 이연승시비건립

1주년기념 학생백일장

- 동시부문
- 산문부문

반가운 편지

임 이 슬 (우천초등학교 3-1)

지난 봄에 전학간 친구에게서
빠알간 단풍잎 편지 왔어요.

친구의 예쁜 마음처럼
단풍잎이 더욱 더 빨개보여요.

우리의 고운 마음 변치말라고
단풍잎도 빠알강게 물들었나봐요.

지난 봄에 전근가신 선생님께서
포근한 사랑담은 편지 보내셨어요.

노란 은행잎같은 꿈을 간직하라던
선생님 모습이 눈 앞에 떠올라요.

노란 은행잎 한 장 주워
감사의 편지 보내야겠어요.

친구의 모습

박 미 영 (덕성초등학교 6-1)

지금
어디서 무얼할까?

참 해 맑던
그 눈빛
예전 그대로 일까?

환히 웃는 얼굴
함박꽃처럼
아름답겠지.

뒷 등산에 올라
고운 단풍잎
책 갈피에 고이 꽃아
자랑하던 그 친구
풀밭에
팔 베게하며
저녁 노을 보던
그리운 친구

아직도
아른거리는
친구의 모습.

어릴적 이야기

이 형 민 (강림초등학교 6학년)

내가 어릴적의 이야기다. 내 고향이라... 내가 어릴적 살던 곳은 여기 황성이 아닌 경기도 남양주시 한 작은 마을이다. 그곳은 여기만큼이나 아름다운 곳이었다. 마을 길을 중심으로 앞에는 한강 물이 흐르며 섬도 있었고, 뒤에는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지나갔다. 이 마을에는 내 친구가 살고 있었다.

내가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옆집에 살던 나와 같은 나이의 친구는 내 첫 친구가 되었다. 그가 나와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은 더 후의 일이었다.

몇년 후 나와 내 첫 친구인 은석이는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뛰어 놀게 되었다.

봄이면, 새싹이 돋는 것을 보고 신기한 듯 지켜보았고, 여름이면 강가에서 물놀이도 하고, 아이스크림을 훔아 먹곤했다.

또, 가을이면 메뚜기를 잡으려고 몸을 숙이고 쫓아 다녔고, 잠자리를 잡으려고 잠자리채를 들고 잠자리를 따라 다니다가 엎어지곤했다.

신나는 겨울이 오면, 눈사람도 만들고, 눈을 뭉쳐 눈싸움도 했다.

우리는 이런 꿈 같은 나날을 보내며 즐겁게 지냈다.

밤이면 가로등 밑에 모여서 형들이 들려주던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잠을 못 이루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은석이와 내가 친하듯이 은석이네 식구와 우리 식구도 매우 친했다. 뚜렷히 생각은 나지 않지만 엄마 손을 잡고 은석이네 집에 놀러가던 기억이 어렴풋이 생각난다.

그러나, 은석이와의 즐거운 나날도 이제 끝이 난 듯했다. 엄마와 아빠가 나를 데리고 산이 많은 낯선 곳으로 갔다와서 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셨다.

나는 생전 처음 정과 이별을 알게 되었다.

이사 가는 날, 은석이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배웅을 나왔다. 그리고는 슬픈듯이 말했다.

“꼭, 다시 와야해!”

“응, 꼭 다시 올게!”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고는 나는 정든 마을과 친구를 떠났다.

낯선, 이 곳에서의 생활은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낯선 이 횡성 강림면에서 나는 유치원을 다니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어느덧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다.

늦 가을쯤의 일이었다. 우리집으로 은석이네 엄마가 전화를 해왔고 이 곳으로 이사를 온다고하였다.

나는 정말 기뻐다. 마치 내 첫사랑이 내 곁으로 온듯한 기분이었다.

그 후, 은석이도 이 곳에서 새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나와 같이 학원도 다녔다.

지금은 이곳 3·1공원에서 은석이는 그림을 그리고 나는 글짓기를 쓰고 있다. 어쩌면 이 글짓기가 내 초등학교 생활에서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다.

은석이와 나와서 우정이 깨지기 않기를 이곳 3·1 공원에서 간절히 바란다.

“형민아, 나도 그러길 바래!”라고 속삭이는 은석이의 모습을 가을 하늘에 그려본다.



슬픈 나만의 기억

전 미 경 (대동여자중학교 2-3)

비가 누렇게 익어 황금 물결을 이루고 단풍잎이 노랗고 빨갛게 물든 이 무렵 난 아버지
지와 들녘에 나가 벼단을 쌓으며 장난을 쳐야 하는데…….

지금 나를 야단쳐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할 아버지는 지금 내 옆에 계시지 않는다. 그
러한 사실이 현실 속에서 입증되는 일이 가끔씩 생기게 되면 어느새 내 눈에서는 뜨거
운 무언가가 흘러 내리곤 한다. 아버지 살아계실 땐 웬지 거리감 느껴지고 무서웠던 일
이 많았기 때문에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해 본 적이 없다는게 날 더 후회하게 만드는
지도 모른다.

아버지 병환을 알게 되어 입원하셨을때 집안 사정으로 병원에서 아버지 옆에 있게
되었다. 아버지 나날이 방사선 치료에 야위어 가셨지만 내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시
려는 아버지 모습을 지켜 볼 때마다 더욱 슬퍼졌다.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신지 2
달쯤된 어느날 아버지께서 내게

“미경아, 네 동생들이 보고 싶구나.” 하시며 말씀하셨을때 ‘피, 내가 여기에 이렇게
힘들게 간호하는데 동생들이 오면 시끄럽기만할텐데…….’

하고 엉뚱한 생각만 했다. 약 두달가량 가족들을 보지 못했으니 아버지로선 그런 생
각을 하시는 것도 당연한 것을 그런 걸 그땐 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또 몇일이 지난 어느날은 “미경아, 아무래도 내가 집에 갔다와야 할 것 같
은데 불가능할 것 같다. 이 번호는 통장 비밀번호니까 잘 알아둬.”하고 하얗게 말라버
린 입술로 말씀하실때 하마터면 눈물을 흘릴뻔 했다.

“아버진, 집에 다 나아서 가져야지 그리고 우리 가족 생일 날짜도 제대로 못 외우는

내가 어떻게 그걸 외우고 있어요?” 하며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도 얼마나 메어지고 있었을까!

그 후로 아버지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아버지와의 헤어짐의 날이 왔을때 끝까지 우릴 걱정하셨던지 끝내 두 눈을 감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 지금 그 때의 길지 않았던 대화지만 내 기억속 한 곳에 자리잡고 있음은 아버지의 솔직한 마음 아니 사랑이 전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 때 장녀로써 두 달동안이긴 하지만 아버지 곁에 있을 수 있던 그 시간이 고맙게 느껴지고 그 전부터 아버지께 하고픈 말을 여기에 적어본다.

“아버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가을 그리고 낙엽

정 현 옥 (공근중학교 1-2)

가을이 깊어간다. 오늘도 나는 벤치에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본다. 그리고 떨어지는 낙엽을 센다. 하나, 둘, 셋…….

비록 이제는 늙어서 그 옛날의 밝은 빛은 뺏어내지는 못하지만 뭔지 모르는 신비감을 심어준다. 봄에는 아기처럼 산뜻한 모습으로 여름에는 녹색의 빛깔로 세상을 밝히는 모습으로 그리고 가을에는 밝진 않지만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의 가슴으로 스며드는 낙엽. 그들은 이제 아버지의 모습으로 가득 이 거리를 채운다.

언젠가의 일이었다. 아버지와 함께 가을을 맞아 낙엽이 쌓인 산으로 등산을 가게 되었다. 어릴때 인지라 나의 작은 가슴은 기대와 기쁨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리고 산을 오르던 나에게 보인 것은(?) 산짐승 같은 것들이 아니었다.

평상시 아무렇지도 않던 작은 낙엽들이었다. 그들이 쌓인 길을 거닐고 있으려니 웬지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런걸 낙엽의 신비감이라고나 할까?

정말 그들은 어디에나 쌓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다.

산의 정상에도 낙엽은 쌓여있었다. 가만히 그들을 보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그런 나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저 작은 낙엽들도 한때는 밝은 빛을 뽐으며 자기 할 일을 했단다. 이제는 묵묵히 말없이 늙어 이 땅을 덮어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거란다.”

그 때는 어릴 때의 일이라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아버지의 말씀은 지금까지 내 머리 속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낙엽들을 보고 있으려니 아버지의 말씀이 점점 이해

가 가기 시작했다. 작은 모습으로 끝까지 자기의 일을 하는 낙엽, 그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내 머리 속으로 밀려 들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낙엽은 곧 사람들의 손에 의해 치워질 것이다. 그리고 거울에 의해 조금씩 그 모습을 잃어갈 것이다. 하지만 낙엽은 언제나 가을과 함께 우리들의 곁으로 돌아올 것이고 우리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첫사랑과 생인손

김 미 애 (횡성을 복천리)

철이 들기 전까지 난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늘 상 감추고 다녔다.

사람들이 훑고 보기 싫게 생긴 내 손을 보면 왜그러냐고 할 때마다 초등학교때 장난이 너무 심해서 그런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아이 때문이었다.

3학년이 되면서 나는 다시 부반장이 되었고 그 아이는 반장이었는데 학급일지를 서로가 쓰기 싫다며 던지고 주고 받다가 문 뒤에 숨어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아이가 순간적으로 문을 너무 세게 밀어 닫았다. 뿡하는 순간 나는 소리를 지르며 손이 아프다고 울었고 문틈에 내손이 끼어 있는지 정말 몰랐다며 그 아이는 나보다 더 놀라는 것이다.

피가 나고 손톱이 눌렸지만 물만 안 닿으면 괜찮을거라던 양호 선생님의 말씀을 뒤로 한채 집으로 오는 길에 그 아이는 손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그날부터 내 책가방을 들고 다녔다.

그 아이의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이 서로 오가시더니 애들이 장난치다가 그런것인데 서로가 미안하시다며 헤어지셨다.

유난히 눈망울이 크고 고집도 있지만 한없이 여러 보이던 그 아이는 그때부터 나의 그림자였다.

학급 신문 만드는 일로 바빠서 늦게까지 학교에 있으면 텅비어 가는 운동장 한쪽에 서 그네를 흔들며 나를 기다려 주던 아이, 비오는 날 내 손가락에 물이 묻으면 안된다 고 그 아이의 엄마가 주셨다던 우비와 우산 내가방이 젖을까봐 또르르 또르르 머리 위로 빗방울이 굴러가도 작은 가슴에 꼭 끌어 안고 비속을 걸어가던 그 아이, 그런 그 아

이와 나와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은 나이 답지 않게 진한 농담을 했다. 그 때마다 그 아이는 얼굴이 붉어졌고 나도 그랬다. 그러면서 난 그애가 왠지 좋았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라서 집에 일찍왔다.

엄마는 도배를 하고 계셨다. 군인인 아버지를 따라 우리는 이사를 자주가는데 왜 도배를 하느냐고 했지만 엄마는 나의 질문과 상관없이 엄마 일을 도와 달라고 하셨다.

선생님께서 손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지만 엄마 일을 도울 사람은 맏딸인 나밖에 없었기에 옷소매를 걷어 부치고 설거지를 했는데…….

그날 밤부터 난 악몽이 시작되었다.

육신거리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쭈시는데 가려움과 간지러움 중간의 상태로 날 괴롭혔다. 밤새도록 뚱뚱 부어 오른 손가락을 흔들며 정말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고 다음날 교회에 같이 가자고 찾아 온 그아이에게 난 화를 냈다.

“이거 다 너 때문이야 학습일지 쓰는거 뭐가 힘들다고 나한테 하라고 하니, 난 학습신문 만들어야 하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니가 책임져”하면서 풍선만하게 부운 손가락을 내밀며 화를 막냈다.

눈이 커서 그런지 눈물도 참 많은 아이, 수정같은 맑은 이슬 방울 액체가 떨어졌다. 힘없는 목소리로 “알았어 우리 엄마한테 얘기할게” 하면서 돌아서 갔다.

그 아이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라며 꾸중하시는 엄마의 말씀에 난 조금 미안했다.

손이 얼마나 아픈지 학교에서 조퇴를 하고 왔다. 그 아이는 내가방을 갖다준다고 했기에 집에서 가방을 기다렸다.

그리고 숙제를 하려고 가방을 열어보니 가방 안에는 라면 땅 과자하고 건빵 한 봉지하고 울통 불통 떨리는 글씨로 메모가 되어있었다.

“미애야 미안해 너 손 영원히 안 나으면 내가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서 어른이 되면 너하고 결혼한다고 얘기할게.”

그 아이가 준 과자를 먹으면서 난 까르르 웃었다. 그리고 불안했다.

정말 내 손이 정상이 안되고, 난 그 아이하고 결혼하면 어쩌나 하고, 그때 때마다침 우린 군인이신 아버지를 따라 이사를 가야했다.

긴 여름 동안 내 손은 살이 썩어서 손톱이 빠지고 흉하게 생긴 내손을 보면 그 아이는 무어라 할까?

이사하던 날 손을 주머니 속에 감추고 작별 인사를 했다.

내가 너를 좋아 하게 된 동기는 이 손가락 때문인데, 괜찮아 다음에 만나자던 인사가 20년의 세월을 끌어내렸다.

아주 가끔은 첫사랑이었다고 생인손을 바라보면서 웃어본다.



첫 사 랑

이 희 경 (둔내면 자포1리)

흔히들 첫사랑은 이룰 수 없다고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것인지도 모른다.

"낙엽이 지는 가을 하늘은 높고 파랗기만 했다. 차창밖으로 내다보는 들녘은 매우 한가롭고 고요하기만 하다.

그래! 이런 가을날이었지. 그날도 가을은 어김없이 우릴 반기고 달리는 가을속으로 우리의 꿈과 사랑도 마냥 달리고만 있었다.

"우리의 만남은 어쩔지 않은 장난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을과 함께 무르익어 갔다. 눈빛만 마주쳐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만큼 그는 내게 헌신적이었다.

나는 그의 헌신에 익숙해져 갔고 그도 내게 익숙해져 세상은 온통 빛나고 아름다움에 눈이 부셨다.

우리는 주말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는 먼 곳에서 직장생활과 야간대학을 다녀야했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커져만 가고 그리움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속에 풍성하기만 했다.

그러나 신은 우리를 질투하여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다.

부모님들이 서로 종교가 맞지 않아 반대를 하시고 급기야는 헤어지는 아픔을 맞이해야만 했다.

누군가 "아픈만큼 성숙해진다"고 했던가!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지금 한 남자의 아내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

생각해보면 사랑은 파도와 같아서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듯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아도 나는 또 다른 사랑을 선택하여 아내라는 이름의 여자로 이 자리에 있으며 만족한다.

“흔히 남자는 꿈을 먹고 살고 여자는 추억을 먹고 산다고들 한다.”

지나간 첫사랑은 아름답고 가슴 아팠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지금 다시 첫사랑을 만나겠냐고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나는 노(no.)라고 말하겠다.

지나간 추억은 아름답고, 우리는 젊었으며 건강했기에 추억은 단지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싶다.

그리하여 누구나 한가지쯤의 비밀을 간직한채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과 진한 향기를 만끽하고 싶다.

어쩔 남편도 한가지쯤의 비밀도 있겠지만 난 그의 비밀을 존중하고 싶다.

나의 첫사랑 또한 존중받고 싶으니까…….

이제 다시 나는 추억의 페이지를 덮으며 남편을 위해 저녁을 준비해야겠다.



하늘나라에 계시는 아버지께...

조 영 은 (유현 금대분교 3-1)

제 작은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 큰 슬픔이 있습니다. 벌써 1년이 훌쩍 바랍처럼 지나갔습니다.

"아빠는 뭐가 되고 싶어."

"응 하늘 나라를 지키는 병정이 되고 싶어." "그래? 나는 그냥 들어 가도 되겠지?"
글쎄... 이쁜짓 해야 보내주지."

"쳇 아빠 미워."

저 때문에 출근 못하신 아빠께서 공사장으로 가십니다. 학교를 갔다온 후, 방문을 열어보니 눈물 바다가 되어있었습니다.

"엄마, 언니, 왜 울어?"

"글쎄 아빠께서 글쎄..."

"왜 울어? 아휴 답답해."

"아빠께서 공사장에서 떨어지셨대."

"거짓말이지, 나 놀려 줄라고 그렇지."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입원하여 계시는 입원실로 달려갔어요.

'아빠 많이 아파 빨리 낫아.'

아빠를 보니 울음이 왈칵 쏟아졌어요.

의사선생님께서 식물인간과도 같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전 그렇게 심하게 다치셨을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어떻게 우리 아빠께서...'

전 종교에 없던 예수님을 불러 보았어요. '예수님 우리 아빠께서 빨리 낳게 해주세요. 그럼 착한 일 많이 하고 반찬 투정 안할게요.' 마음 속으로 기도를 해보았어요. '정말 다 낳으실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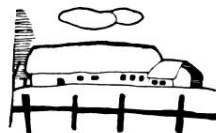
얼마후 의식을 잃으시고 돌아 가시고 말으셨어요. '아빠께서는 소원을 이루셨어. 아빤 좋으시겠지.'

눈물을 흘리면서 종이 배를 접었어요. 기쁜 일 슬픈 일을 적어 매일 강물에 띄어 보내곤 했어요. 친구들이 그러는데, 하늘 나라에는 보석으로 집을 지었고, 금,은으로 꽃예쁜 나무로 되어 있데요. 아빤 돈에 욕심이 많으신데, 아빤 오히려 더 좋으실거예요. 은 침대에서 주무시고, 금 접시에 진지를 드시고, 또 하늘 나라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었잖아요. '아빠 좀 놀러 오세요.'

별을 보며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빤 몸 건강하세요? 전 아빠생각에 잠을 설쳤어요.'

'아빠 이번주엔 시간 있으세요?'

이렇게 말을 주고 받았어요. 상상으로요. 아빠가 보고 싶을땐 꿈 속에서 아빠와 만나 언제나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며 가위바위보 놀이도 한답니다.



뒷 동 산

김 남 진 (덕성초등학교 5-1)

뒷동산 언덕
파릇파릇
돋아난 새싹

얼굴을 내밀며
인사하네요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
꽃을 찾아 여행을 가네

개나리꽃
노랗게 피어나고
버들강아지
보송보송
피어 오르네

뒷동산은
천국

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희망을 담은 백번째 편지

조 은 영 (성북초등학교 5학년)

‘썩썩썩.’ 아침 햇살이 창가에서 반짝반짝 흐르고 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나를 향해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나는 집으로 향하던 도중 뭘지 모르게 빨간 담너머 파란지붕의 어느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무얼까? 웬지 모르게 나를 끌어당기는 이 느낌은. 나를 슬프게 하는 이 느낌은…….’

창 속의 모습은 작고, 귀여운 한 소녀.

하지만 창백해 보이는 그 모습.

“야!” 났을 땀을 흘리고 있는 나를 친구인 미연이가 불렀다. 미연이는 내가 새로 전학 온 학교의 짝이다. 미연이는 내가 저 아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것을 금새 눈치채고, 저 아이의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가르쳐 주었다.

저 아이는 교통사고로 학교를 못 다닌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TV에서만 나오는 그런 것 인줄 알았지만, 현재 직접 당한 사람을 본 것이 정말 안타까웠다. 하지만 내 자리는 그 아이의 자리라니. 웬지 걱정도 되고 무서웠다. 지금 저 아이는 희망을 잃었다고 한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다보니, 금새 해가 지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아이 생각에 어머니의 잔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잠자리를 피고 고요히 꿈속 기차를 잡아 탔다. 꿈속에서 그 아이는 나를 보고, 죽기 싫다며,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그 다음날 하늘도 슬프다는 듯 비를 내렸다. 공부 도중 편지에 대해 배웠다. 나는 그 즉시 행복한 미소를 크게 띄우고 그 즉시 학교에서 뛰쳐나와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수지, 희망을 버리지마. 너어겐 우리들이 있잖니? 우리가 너를 도와줄께.

넌 너에게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아.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을께.

희망을 버리지마.-

이렇게 난 매일매일 희망을 가득 담아 창틀에 편지를 끼워놓고 왔다. 드디어, 백일째 되던 날. 편지를 쫓으러 가보니, 새 하얀 종이가 먼저 꽂혀 있는 것이다. 활짝 펴 보니, 꽃과 하트로 둘러싸여 있는 종이에 그 소녀의 편지글이 있었다. 이제는 수술하겠다는 내용과 고맙다는 내용이었다. 흐뭇한 표정을 하면서 100번째 편지를 쫓고, 돌아서려는 순간, "고마워"라는 가련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서 보니 창백하던 소녀가 아니, 수지가 웃고 있는 것이다. 수지는 살며시 다가와 손을 꼭 잡고는 자기 소개를 하고, 친구가 되자고 했다.

어느새 수술 날짜가 받아지고 그날이 되었다. 심술장이 구름은 사라지고, 햇님이 방글 방글 웃었다. 병원 앞에 들어서는 순간, 수지는 떨기 시작했다.

나는 두손으로 살며시 손을 잡아 주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고, 수지는 다시 학교에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아빠께서 다른 일자리로 옮겨가시게 됐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하지만, 눈물이 글썽거리서 할 수 없었다. 그 대신 편지에 '안녕'이란 두 글자만 써서 친구를 통해 수지에게 전해줬다. 수지는 나의 뒷 모습만 보고 나를 떠나 보냈다.

지금 나는 그 아이가 사는 행성에 놀러 가 보고 싶다. 맑은 강이 흐르고, 푸른산이 숨쉬며 그 소녀가 사는 행성에...



소중한 우리의 멋

서 영 주 (대동여자중학교 3-4)

"어서 오세요. 이모."

1년 동안 보지 못한 이모가 오셨다.

"반가워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응, 여기서 문화제 열리지? 그것 좀 보려고."

이모는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전통 문화 자료도 많으시고 모으는 것이 취미이시다.

"이모, 우리 전통 문화에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것이면 돼. 예를 들어 볼께. 한복 소매에서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멋, 바로 둥근 선을 느낄 수 있어. 그리고 이걸 너도 알거야 미술 시간에 배웠을 텐데.

한국화의 특징."

"선과 여백이요."

"우리 나라는 옛날부터 선을 중시 했단다 여백은 많이 남김으로써 자유로움을 나타내지. 선비들의 사상이 많이 담겨있단다. 기와장도 끝을 둥글게 하여 멋을 나타내었지. 지금 나와 함께 문화제 구경하러 가자 이모가 설명해줄께."

문화제 장소에 도착하니 사물놀이 소리가 들렸다.

"이모, 사물놀이도 우리의 멋이예요?"

"물론이지 우리의 멋 중 소리인 사물놀이 어떻게 보면 소란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아니야. 장구, 팽파리, 북, 징 등 민족 고유의 악기가 모여 만들어 내는, 우리

민족을 대표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소리야.”

“나도 사실은 조금 소란스럽다고 생각 했는데 이제는 귀 기울여서 들어봐야겠어요.”

그 때 옆으로 결혼할 때 입는 한복을 입은 사람이 지나갔다.

“이모, 우리 나라의 전통 결혼식도 우리의 멋에 속하나요?”

“당연하지 우리 전통 결혼 풍습은 앞으로도 계속 보존해 나가야 할 풍습이야 우리의 멋중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지.”

“이모, 놀이로는 없어요?”

“저기를 봐 연을 날리고 있지? 연날리기도 우리의 멋 중의 하나야 제기차기, 설날에 하는 윷놀이, 단오날하는 그네뛰기, 씨름, 창포물에 머리감기, 정월대보름날하는 부스럼 깨물기도 다 여기에 속한단다.”

“우와 우리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주 많네요.”

“우리의 멋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활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단다.”

이모와 문화제 구경을 하면서 처음에는 생소하게만 느껴졌던 우리의 멋이 한층 더 가깝게 느껴졌다. 앞으로 우리의 멋이 잊혀지지 않게 연구하고 보존하여 모든 사람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멋이 되어야겠다.



우리집을 그립니다.

박 향 미 (대동여자중학교 3-3)

그림을 그립니다.

흰 도화지 위에 그립니다.

1층위에 2층이 올려있는

예쁜 2층 양옥집입니다.

그 집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너무커서

슬픔이라는 단어가 안보입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자아이 둘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손을 잡고

놀고 있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런데 비가 옵니다.

마당에 있던 가족들이
모두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십니다.
머리가 아프시다며...

그 집에서
불행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불행이라는 단어가 너무 커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자아이 둘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사진속의 아버지를
보고 있는 모습을 그립니다.

우리집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행복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하지만 우리집은 행복합니다.
서로를 아껴주고 위해주는
이들이 언제나 곁에 있기에

우리집은
다시 행복을 가꾸어 갑니다.

아버지와
행복을 다시 가꾸어 갑니다.



이연승시비건립 1주년기념
동시부문 최우수

저 녀 노 을

홍 성 현 (상창초등학교 6-1)

빠아알강게 익은 흥시처럼
해도 빠아알강게 익었다
넓고 푸른 바다 위에서...

구름은 해를시고 희망시고
바다 건너
먼 나라로 배달 나간다

한 고개 두 고개를 넘으면
서쪽 하늘은
어느 새
붉게 타오르고 있다

- 이연승 동시비 앞에서 -

거 울

권 희 란 (덕고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친구가
나에게 말한다
“울지마.”

친구가 친구가
나에게 말한다
“참아봐.”

친구가 친구가
나에게 말한다
“웃어봐.”

친구가 친구가
나에게 말한다
“가슴을 펴봐,
화알짜.”

마법같은 거울

태 원 준 (성북초등학교 6학년)

거울 앞에만
서면은 마법사가 되는 나
'뽕' 하면
쌍둥이가
생기고
'뽕' 하면
나를 따라하는
동생도 생긴다

내가 춤을
출때는
같이 추고

내가 노래를
부르면
따라 부른다

낮에도
밤에도
거울 앞에만 서면

친구처럼
다정한
거울

낮에도
밤에도
거울 앞에만 서면

거짓말 할 수 없는
진실된
거울

낮에도
밤에도
거울 앞에만 서면

엄마처럼
부드러운
거울

거울은
거울은
마법사

거울은
거울은
요술쟁이

선생님께 드린 존지

심 명 원 (둔내초등학교 6학년)

“며칠 있으면 스승의 날 입니다. 모두들 선생님들께, 또는 평소에 자신을 잘 이끌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하세요.

그럼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세요.”

“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 우리들은 합창하듯 인사를 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며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정말 스승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살 것도 마땅치 않고……, 어휴! 손수건, 꽃…….’

하지만 이런것들은 너무 흔한 선물이었다. 또 무언가 독특한걸 드리고 싶었지만 쉽사리 생각이 나지 않아 답답하기까지 하였다.

생각끝에 나는 재작년에 껍수범 선생님께 드렸던것 처럼 이번 스승의 날도 전화카드를 해드리기로 하였다.

재작년 이맘때 나는 스승의 날 때문에 아버지와 의논을 하였었다. 내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을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아! 그래 맞아! 전화카드가 어떨까?”

“전화카드?”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차츰차츰 정말 멋진 선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태까지도 전화카드를 선물로 하는 아이들은 나밖에 없었고, 손수건, 꽃보다 더 실용적이었다.

나는 전화카드를 편지와 함께 드리기로 하였다.

집에 돌아와 심심하여 오늘은 신문을 뒤지다 보니 '이런 선물 어떨까요?' 하고 써여진 글을 보았다. 신문에는 편지를 쓴뒤 봉투에 "촌지" 라고 써서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또 촌지는 원래 작은 정성이라고도 써어져 있었다.

나는 곧바로 방에 들어가 편지와 전화카드를 봉투에 넣고 '촌지' 라고 썼다.

내 편지를 받은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니 너무 신이 났다.

드디어 스승의 날이 되었다.

나의 예상대로 꽃을 선물로 드린 아이들은 정말 많았다. 나는 선생님께 편지를 드렸다. 선생님께서는 조금 놀라는듯 하셨으나 곧 웃음을 터뜨리셨다. 점심시간 선생님께서 나에게 오시더니 "놀랐잖아?" 하시며 꿀밤을 주셨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즐거운신 모양이었다. 올해 내가 선생님께 드린 촌지는 선생님의 지갑속에서 선생님을 즐겁게 해드릴 것이다.



꿈을 안겨주시는 선생님

안 지 아 (서원초등학교 6-1)

추억속에 남아 있는 우리 선생님은 노래를 잘하시는 선생님이시다.
기억속에 남아있는 우리 선생님은 피아노를 잘 치시는 선생님이시다.
선생님들을 기쁘게 해 드리는 날 5월 15일이 우리들에게는 분주한 하루였다.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들을 위해 선생님이 되신 우리 선생님을 위
해.....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공부를 하셨다.
또 선생님이 되신 후에도 공부를 하시고 계신다.
우리들은 이런 선생님을 위해 '스승의 날' 만 기념으로 선생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들에게 꿈을 안겨주시는 선생님이 많이 계신다.
그 모든 선생님께 선물을 안겨 드릴 수는 없지만 마음 속으로 감사 드릴 수는 있을
것이다.
이연승 선생님처럼 훌륭한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 좋을 것이다.
직접 뵙지는 못하였지만, 우리들은 이연승 선생님을 사진으로 뵈었고, 마음 속으로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일찍이 부터 어린이 교육에 뜻을 품고 동시를 쓰신 선생님, 바
로 이연승 선생님이시다.
그 모든 선생님이 모두 동시를 쓰시진 않지만 어린이들을 위해 다른 문학을 쓰고 계
실 것이다.

밝고, 투명하게 자라나길 바라시는 선생님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을 밝고, 투명하게 가르치시려고 노력하고 계실 것이다.

이연승 선생님께서 만약 나의 옆에 계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출고, 배고프던 시절에 연필한자루와 종이 한 장으로 공부하고, 좋은 학교에서 배우지는 못하였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다고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께 공부를 배우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배우지 못하였다.

이연승 선생님이 태어나신 1940년대에는 정말 연필 한자루와 종이 한장으로 공부하셨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연승 선생님은 우리를 위해 동시를 쓰셨다.

우리들도 이연승 선생님 처럼 훌륭하게 되지는 못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서 장래 희망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장래 희망을 이루어 우리 나라의 다른 한쪽 팔이 되어 우리 나라가 빨리 큰 나라로 발전하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큰 기둥이 되었으면 한다.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 마음

조 은 영 (성북초등학교 5학년)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하지만 오늘 따라 웬일인지, 발걸음이 무겁다. 한발씩 나아가며 가는데,

‘쌔앵.’

무언가 지나가는 것이다. 자세히 보니 희림이 었다.

“야! 너 지금 여기서 뭐해? 지금 9시야! 그럼 나 먼저 간다.”

“야!”

말을 끝내기도 전에 희림이는 내 앞에 있지 않았다. 그 후, 열심히 뛰었지만, 지각을 하고 말았다. 아이들 앞에 쟁피를 당하면서 나는 생각했다.

‘이것은 모두 아버지 때문이다. 어머니가 안 계셔서, 내가 도와 드리는데도, 매일 가난하고……, 하지만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시계 살 돈이 어딴어? 야단 치시기나 하고……’ 선생님도 원망하고, 아버지도 원망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호수같은 나의 눈에 이슬이 맺혀 있는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 따라 아버지는 입술에 함박웃음을 머금고 계셨다.

“어휴~, 우리 공주님, 왜 그러시나? 아, 아버지 일자리가 우리 공주님 학교 앞으로 옮겨 졌어요. 기쁘죠?”

나는 그 순간, 가슴이 덜컥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답도 해 드릴 수 없었다. 이 이후로 나도 모르게 뒷길로 다니게 됐다.

그러던 어느날, 선생님께선

“오늘은 가족소개를 하는 시간 이예요. 멋지게 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는요, 훌륭한 경찰이세요.

또 어머니께선 디자인실 팀장님이세요.”

“이재은!”

“은유림!”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김은주!”

“네? 네…….”

나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

“저희 아버지는요, 회사 상무님이시고요, 어머니는 보험회사에 다니세요.”

이 말을 하고 난후, 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나의 아버지진 청소부 신데……. 어머니는 안 계신데…….’

그 후로 꿈속에서 나는 친구들의 따돌림을 당했다. 그러던 어느날, 길을 가다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였다. 하지만 아버지께선 나를 알아 채시고,

“은주야!”

하고 부르셨다.

“야, 너 부르시는 것 아니야?”

“아니야.”

난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다.

“은주야! 아빠 여기있어!”

“은주야, 어떻게 된거야?”

“몰라!”

나는 괜히 화가 났다. 또 뒤에서 아버지께서 따라 오시는 것만 같았다. 이렇게 구슬픈 하루하루가 지나고, 5월5일 어린이 날이 되었다. 우리 아버지진 5월5일만 되면 꼭 늦게 들어오신다.

그리고 선물도 바라지 못한다…….

그 점이 난 싫다. 오늘은 아버지를 기다리고 싶었다. 그렇지만 심심하던 참에 라디오를 틀기로 했다.

“이 분은 매일매일 적은돈을 모아서 불우이웃을 도우시고, 고아원과 양로원에 자주 들르시면서 봉사활동을 하신분이 십니다. 그것도 아무도 몰래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도리로써, 당연히 해야죠.”

이 목소리는 아버지? 난 설마했다.

“김은식씨, 아이들이 모두 존경한답니다. 자, 그럼 라디오라디오, 끝.”

“이 성함은 아버지?”

“덜컹.”

문여는 소리가 들리자,

“아니, 은주야! 아직도 안 잤어?”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마음은 헤아릴 수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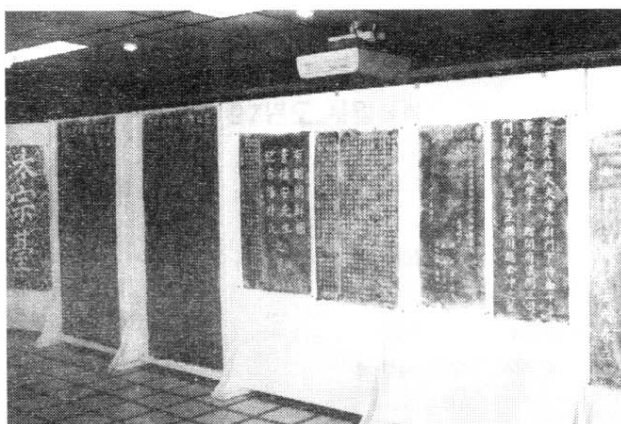
그 후로, 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부끄러워 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어사매 (제13호)

Ⅵ. '97년도 문화원 사업실적

문화원 소식



문화원소식



▣ '97년도 사업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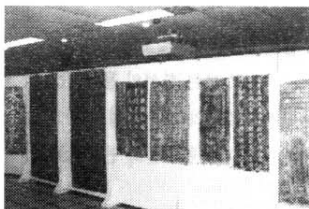
- | | |
|--|--|
| <p>▶ 지역사회 교육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회 • 음악회 • 전통예술공연 • 전통농악놀이 강습회 • 청소년 교양강좌 <p>▶ 향토문화교육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문화학교 운영 • 문화유적지 순례 <p>▶ 향토문화보존 전승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제 | <p>▶ 경로효친 선양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집 발간 <p>▶ 애항활동전개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애항지 및 문학지발간 • 故 이연승선생 동시비건립 <p>▶ 향토사료발굴조사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석문탁본 • 사진으로 보는 황성의 문화유산 발간 • 구전으로 전래되는 황성의 동요 • 제12회 전국향토문화 연구발표회 |
|--|--|

◆ '97년도 사업실적

----- 지역사회교육사업 -----

전 시 회

본 문화원에서는 '97년도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우리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소중한 문화 유산들을 사진으로 담아 한자리에서 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향토 문화재 사진전" (12/27~12/31)과 금석문 탁본 전시전 (11/22~11/28)을 개최하였고 이밖에도 사회복지봉사회의 서화전 (5/17~5/23) 백합영상회의 회원사진전 (11/22~11/28) 연목회의 회원서화전 (12/5~12/7) 횡성초교미술연구회의 그림샘회원 작품전 (12/19~12/21)등 문화단체주관의 전시회 후원을 통한 고장의 향토 문화유산을 계승 보존시키는 등 지역사회 교육사업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음 악 회

밝고 건전한 음악을 바탕으로한 "제1회 청소년 가요제" (11월 30일)를 개최, 청소년들에게 우정과 화합 그리고 젊음을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도록 문화의 장을 열어주었으며 음악예술활동단체인 "은나래 합창단"을 후원하는 등 지역의 음악문화 발전과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본 문화원은 기여했다.



전통국악예술공연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우리 민족의 전통 음악인 국악을 활성화시키고자 국내 유수의 국악인들을 지난 12월 27일 횡성문화관으로 초청 약 450명의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국악 예술공연행사를 개최했다.



전통농악놀이 강습회

단절되어가는 우리고장의 전통 농악놀이의 맥을 이어가고 전통문화 발전과 향토문화를 후손들에게 전승시키고자 12월 1일부터 '98년 2월말까지 3개월간 지도자를 초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한 정금민속보존회와 전통농악놀이 강습회를 공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관심사업으로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청소년 교양강좌

문화교양강좌의 일환으로 심진황문화원장은 12월 22일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원 강의실에서 "황성의 연혁과 문화유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 교양강좌를 실시하였다.



~~~~~ 향토문화 교육사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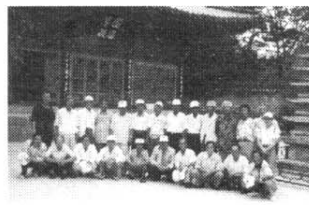
향토문화학교운영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적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주2회(화,목) 서예교실, 외국어교실 주1회(토) 2시간씩 사진교실을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향토문화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할 계획이다.



문화유적지 순례

본 문화원에서는 향토문화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관내·외 문화유적지 답사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6월 20일 45명의 회원들이 강원도 양양군 일원의 낙산사등 문화유적지를 답사, 선인들의 순결한 문화정신과 고귀한 문화유산을 관찰 연구하였다.



----- 향토문화 보존전승사업 -----

문 화 제

“제14회 태풍문화제 행사중 전통민속놀이 (제기차기, 새끼꼬기, 짚신삼기 등)와 학생백일장 사생대회등을 본 문화원에서 주관 하였고 또한 우리지역 고유의 전통민속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제11회 태기문화제”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 향토문화의 발전과 전통민속문화를 보존·전승시켜 나가는데 본 문화원은 주력하고 있다.



향토문화기록촬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유 무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기념물, 국난극복, 효열유적 기타 향토문화 유적등을 슬라이드 필름으로 제작 후손들에게 향토문화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향토문화 유산을 길이 보존하는데 기하고자 기타 문화제 행사를 촬영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다.

----- 경로효친 선양사업 -----

한시집 발간

제13회 태풍문화제 행사때 전국의 많은 한시인들이 투고한 한시 225작품이 수록된 “한시 백일장 투고집록” 1,000부를 제작 발행하여 사라져 가는 옛 문인들과 경로효친을 선양하였다.



----- 애향활동 전개사업 -----

향토애향지 및 문학지 발간

우리 고장의 순수 향토지로 자리를 잡고 향토문화를 창달해 나가는 “어사매 제12호”를 지역인사 및 사회단체 교육기관, 출향인사 등에 발간 배포하였다. 12호에는 특히 횡성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을 찾아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 결과를 13호와 연계 중점수록 하였고 문학인, 출향인사들이 투고한 작품 다수와 연구문등을 수록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또한 우리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학인들이 투고한 작품을 수록 발간하는 “횡성문학지 제4집”을 후원 발행하였다.



(고)이연승 선생 동시비건립

향토인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5월 25일 황성도서관앞 정원에서 (고)이연승선생 동시비를 건립 제막식을 하였다.

이 동시비 건립은 유족과 추진위원회가 결성 후원한 성금으로 건립되었으며 심진항 문화원장이 건립 추진위원장을 맡아 추진 건립하였다.



~~~~~ 향토사료발굴 조사사업 ~~~~~

향토사료 발굴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금석문을 약30여점 탁본 배접보관 하였으며 12월 20일 향토문화재 사진전을 열면서 유·무형 문화재 및 기타 향토문화재등을 칼라화보로 수록 「사진으로 보는 황성의 문화유산」이라는 사진 도록을 제작 지역인사 및 기관, 사회단체와 출향인사 등에 향토사료집을 발간 배포 하였다. 11월 6일에는 향토사연구가인 정재영 문화원이사가 전국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가 주최하는 제12회 강원도향토사료 연구발표회에서 「구전으로 전래되는 황성의 동요」라는 사료연구문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으며 '97 12월 4일 전국 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한 제12회 전국 향토문화연구발표회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향토문화를 향상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한해였다.



황성문화원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장 명	직 장	자 택
원 장	심진황	황성읍 읍하4리 380-6 섬강①1동 203	황성문화원	343-2271	343-7841
부원장	진기범	황성군 황성읍 읍상리 278-8	알고파서점	343-2687	343-3334
"	조경택	황성군 황성읍 읍상2리 274			343-2742
이 사	정재영	황성읍 북천리 영진④ A동 201호	단계초등학교	742-3441	343-3336
"	우광수	황성읍 북천리 태우④ 3동 501호	황성중학교	343-2241	343-1446
"	이종호	황성군 우천면 정금리 904-1	민속예술보존회	342-2854	342-2647
"	전인환	황성군 황성읍 조곡리 433	의료보험조합	344-5001~3	343-7700
"	이석원	황성군 황성읍 읍상1리 346	황성새마을금고	343-3526	343-3518
"	김광수	황성군 황성읍 읍상리 284	백우사장	343-2618	343-5100
"	민경철	황성읍 북천리 태우④ 3동 308호	봉덕초등학교	342-5064	343-8781
"	정두영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299-6	서원사인쇄소	343-2404	343-0694
"	윤춘식	황성군 황성읍 읍상1리 333	황성감리교회	343-1286~8	343-3349
"	이일영	황성군 황성읍 읍하1리 69	빌트모아	343-0808	
"	유관종	황성군 우천면 용둔리			342-2706
"	정병익	황성군 황성읍 묵계리 22-2			343-2390
"	김상겸	황성군 황성읍 마산리 451-3	농 업		343-3514
"	오세민	황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108-9	자 영 업	342-5888	342-1019
"	한상래	황성군 황성읍 입석리 162-8	황성군노인회	343-3553	343-2670
감 사	도희관	황성군 황성읍 읍상2리 1반	LG대리점	343-2376	343-2964
"	전상국	황성군 황성읍 입석리 65	자 영 업		343-2466

형성문화원회원명단

'98. 9. 30 현재

성 명	주 소	직 업	자택 ☎	직 장 ☎
고 한 석	형성읍 공근면 수백리 295		343-6336	
구 본 섭	형성읍 읍하3리 251-54 동화회원	동화회원	343-2752	343-2752
권 상 철	형성읍 읍하4리 274	춘천철물	343-3218	343-2824
권 용 환	형성읍 읍하리 383 대동여중	대동여자중학교	343-7135	343-4396
김 광 수	형성읍 읍상리 284	백우사장	343-5100	343-2732
김 상 겸	형성읍 마산리 451-3(말미)	농 업	343-3514	
김 운 수	형성읍 읍상5리 102-2	형성군청	343-2181	
김 정 웅	형성읍 읍상리 315-8	김 약 국	343-2707	
김 창 식	형성읍 읍하리 73-6	국도광고	343-4900	343-2100
김 철 호	형성읍 북천리 영진④B동 101호	형성군청	343-2689	
김 현 주	형성군 우천면 상하가리	농 업	342-6518	
김 남 준	형성군 형성읍 읍상2리	농 업	343-3603	
김 진 혁	형성군 우천면 문암리 55	농 업	342-6019	
김 동 근	형성군 형성읍 내지리 217	농 업	343-3959	
김 순 남	형성군 둔내면 자포1리	아이세상	342-6925	
이 병 오	형성군 우천면 두곡리 467-2		343-6789	
김 천 수	형성군 형성읍 마산리 493	농 업	343-3434	
남 진 향	형성군 둔내면 자포곡 409	유미양품점		342-2205
도 회 관	형성읍 읍상2리 1반	LG전자형성총대리점	343-2964	
도 광 태	원주시 단계동 롯데③동 504호	중고동문화사무국장 (원주)	742-8229	343-0207
류 봉 만	형성읍 읍상2리 542-3	자연산추어탕	343-4253	
민 경 철	형성읍 북천리 태우④ 3동 308호	교 사	343-8781	
이 각 구	형성군 형성읍 목계리 106		343-2071	
윤 만 복	형성군 형성읍 읍하3리 215-3	농 업	343-2575	
박 재 항	형성군 둔내면 마암2리	가 사		343-6584
박 정 애	형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295	가 사	343-7814	
박 인 평	형성군 갑천면 삼거리 57	한정농장	714-0088	342-2526
박 태 식	형성읍 가담1리 468	농 업	342-2609	
방 규 진	형성읍 북천리 148 총무계	형성읍사무소	343-9661	343-2482
심 진 향	형성읍 읍하리 380-6 섬강①1동 203호	형성문화원	343-7841	343-2271

성명	주소	직업	자택 ☎	직장 ☎
송인석	황성군 둔내면 영랑리 539		343-1774	
신구선	황성군 황성읍 북천리 115-37		343-1350	
양우환	황성읍 북천리 중앙④ 3동 211호	황성한의원	343-9526	343-7364
양중하	황성군 우천면 정금리 849-3	농업	343-2602	
우광수	황성읍 북천 태우④ 3동 501호	교사	343-1446	343-2241
원종춘	황성읍 읍하1리 110 (한림서당)	한림서당	343-3162	
유인상	황성군 황성읍 읍하1리 115-11	황성치과		343-8890
윤재택	황성군 황성읍 읍하1리 115-1	형제건설	342-0009	343-3131
윤춘식	황성군 황성읍 읍상1리 333	자영업	343-3349	
이석원	황성군 황성읍 읍상1리 346	황성새마을금고	343-3518	343-2833
이일영	황성군 황성읍 읍하1리 69	빌트모아	343-0808	
이장우	황성군 황성읍 읍하2리 36	황성골재	343-2723	343-7618
이재구	황성군 황성읍 읍하1리 308(군청앞)	화성컴퓨터학원	343-2434	343-1202
이종호	황성군 우천면 정금리 904-1	민속예술보존회	342-2854	342-2647
이철우	황성군 우천면 정금리 507	농업	342-2665	
이승호	원주시 흥업면 흥업2리 748-2		(원주) 763-7386	
유병규	홍천군 남면 명동리		(홍천) 32-4252	
유관중	황성군 우천면 용동리		342-2706	
안병화	황성읍 읍상리 원흥④ 102동 505		343-0641	343-6975
김광남	원주시 단구동 142-24 5/1	초등교사	(원주) 763-4890	343-2311
임종홍	황성군 황성읍 읍하4리 6번지	농업	343-2056	
최기섭	황성군 우천면 상하가리 170	농업	342-6294	342-8923
신규영	황성군 둔내면 자포리		342-5889	
전석희	황성군 둔내면 둔방1리	가사	342-1403	
양희자	황성군 둔내면 자포리	태양미용	342-1884	342-1884
김형래	황성군 둔내면 우룡1리 365-12	사업	344-5500	0342-732-2124
윤국영	황성군 둔내면 석문1리 168	학원운영		342-0127
김영선	황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0		342-1072	
이대선	황성군 둔내면 화동리 280-1	농업	342-2405	
원종훈	황성군 황성읍 읍하1리 67-1	자영업	343-7920	
양기호	원주시 명륜2동 현대1차④ 202동 1007호		762-8328	
오세민	황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108-9	사업	342-1019	342-5888

성명	주 소	직 업	자 택 ☎	직 장 ☎
전 상 국	황성군 황성읍 입석리 65	회 사 원	343-2466	
전 인 택	황성군 둔내면 자포1리 409	도 의 원	343-0601	
전 인 환	황성군 황성읍 조곡리 433	의료보험조합	344-5001~3	343-4813
정 두 영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299-6	서원사인쇄소	343-0694	343-2404
정 병 익	황성읍 묵계리 22-2(황여고 뒤)		343-2390	
정 삼 영	황성군 황성읍 읍하3리 214-6	황성군청	343-3130	
정 재 영	황성읍 복천리 영진④ A동 201호	교 사	343-3336	(원주) 742-3441
정 우 철	황성읍 읍하리 농협중앙회군지부	농협군지부		343-2811
정 병 유	황성군 공근면 공근리		342-3217	
정 왕 택	황성군 공근면 덕촌리		343-6494	
정 계 철	원주시 개운동 444-15		(원주) 761-1063	
정 인 영	황성군 청일면 유동리	황성여고교장	343-8698	343-2010
조 경 택	황성군 황성읍 읍상2리 274		343-2742	
조 광 식	황성군 황성읍 청룡리		343-3074	
장 태 준	황성군 서원면 석화3리		342-5077	
김 용 금	황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17	가 사	342-6811	
박 봉 순	황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가 사	344-0522	
조 규 선	홍천군 남면 유치리 575	농 업	(홍천) 32-4802	
진 기 영	원주시 개운동 394-12		(원주) 761-0346	
진 기 범	황성군 황성읍 읍상리 278-8	알고파서점	343-3334	343-2687
채 금 순	황성군 둔내면 자포1리 455-2	새마을둔내면부녀회	342-1245	
채 희 승	황성읍 복천리 태우④ 1동 906	황성서예학원	343-9060	342-6000
최 혁 순	황성읍 복천리 중앙④ 3동 408	농협군지부	343-1019	343-2811
정 미 호	황성군 둔내면 동산④ A동 308	상 업	342-0387	342-7892
한 상 국	황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82	농 업	342-1516	
한 상 동	황성군 황성읍 읍상2리 276-15		343-4019	
한 상 래	황성군 황성읍 입석리 162-8	황성군노인회	343-2670	343-3553
홍 성 익	황성군 우천면 정금2리	농 업	342-2671	
함 기 중	황성군 황성읍 읍상3리 313-7		344-2543	
김 관 수	황성군 공근면 수백리	농 업	343-6821	
임 중 훈	황성군 둔내면 자포2리 643	농 업	342-1555	
김 두 선	황성읍 읍상4리 동원④ 209	건 설 업	343-2495	345-8504
고 명 규	황성읍 읍하리 511-16	상 업	343-3337	345-1013

문화원 회원 임회안내

황성군 관내 성인 남·여 거주자로
학력 및 직업등의 자격 제한없이 수시로
누구나 입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입회비 : 10,000원, 연회비 20,000원)

안 내 : 황성문화원 ☎ 343-2271

어사매 제13호

발 행 일 : 1998. 11.

발 행 처 : 황성문화원

발 행 인 : 심 진 황

편 집 : 황성문화원

기획·인쇄 : 누리기획

(비매품)
